

文化財學碩士 學位論文

韓國 가톨릭 繪畫의 土着化 과정에 관한
研究

－ 殉教圖를 中心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裴 仙 英

2005年 12月

韓國 가톨릭 繪畵의 土着化 과정에 관한
研究

－ 殉敎圖를 中心으로 －

指導敎授 鄭 炳 模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裴 仙 英

裴仙英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⑩

審査委員 ⑩

審査委員 ⑩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5年 12月

목 차

| | |
|---|-----|
| I. 머리말 | 1 |
| 1. 연구 목적 | 3 |
| 2. 연구 내용과 방법 | 4 |
| II. 가톨릭 繪畵의 전개 | 6 |
| 1. 聖畵像 의의 | 6 |
| 2. 天主教의 傳來와 聖畵像의 유입 | 8 |
| 3. 典禮의 土着化와 聖美術의 土着化 | 19 |
| III. 한국순교자 103位 諡福과 諡聖경위 | 24 |
| 1. 한국 순교자 79位 시복경위 | 24 |
| 2. 한국 순교자 24位 시복경위 | 28 |
| 3. 한국 순교자 103位 시성경위 | 31 |
| IV. 韓國 가톨릭 殉教圖의 土着化 과정 | 33 |
| 1. 제1기 : 조선교회 창설 후부터 한국 79位 시복식까지 | 35 |
| 2. 제2기 : 한국 79位 시복식 후부터 24位 시복식까지 | 56 |
| 3. 제3기 : 24位 시복식 후부터 103位 시성식까지 | 82 |
| V. 맺음말 | 109 |
| 참고문헌 | 113 |
| 부 록 | 118 |
| Abstract | 140 |

표 목 차

| | |
|-----------------------------|----|
| <표 1> 한국 순교 79位 福者 명단 | 26 |
| <표 2> 한국 24位 福者 명단 | 31 |
| <표 3> 제 1시기의 작품 | 38 |
| <표 4> 제 2시기의 작품 | 58 |
| <표 5> 제 3시기의 작품 | 87 |
| <표 6> 한국 103位 聖人名단 | 93 |

도판 목차

| | |
|---|----|
| 〈도판 1〉 『墨苑』의 삽화 | 10 |
| 〈도판 2〉 『墨苑』의 삽화 | 10 |
| 〈도판 3〉 『不得已』의 삽화 | 10 |
| 〈도판 4〉 중국 聖畵, 1800년경, 407×240.5cm, 절두산순교박물관 | 12 |
| 〈도판 5〉 여사울출토 성물(십자가, 목주괘, 성해통), 1801년 전후, 절두산순교박물관 | 12 |
| 〈도판 6〉 이희영, <犬圖>, 1795년, 지본담채, 32×28cm, 숭실대학교박물관 | 14 |
| 〈도판 7〉 이희영, <雙犬圖>, 지본담채, 32×105cm, 1795년, 李元基 소장 | 14 |
| 〈도판 8〉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친필서한, 절두산순교박물관 | 16 |
| 〈도판 9〉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친필서한, 절두산순교박물관 | 16 |
| 〈도판10〉 김준근, 『친로역정』, 1985년, 국립중앙박물관 | 17 |
| 〈도판11〉 “Christian’s Burden falls off at the sight of the Cross,” <i>The Pilgrim’s Progress</i> , 1817년, 10.2×7.4cm, LG연암문고 | 17 |
| 〈도판12〉 상본(성 · 베드로 · 성 다테오 · 성녀 카타리나 · 성녀 마르타) | 34 |
| 〈도판13〉 형장으로 가는 신부의 모습,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의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서 | 37 |
| 〈도판14〉 가위 주뢰,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의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서 | 37 |
| 〈도판15〉 즐 주뢰,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의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서 | 37 |
| 〈도판16〉 팔 주뢰,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의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서 | 37 |
| 〈도판17〉 주장질,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의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서 | 37 |

| | |
|--|----|
| <도판18> 학춤,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의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서 | 37 |
| <도판19> 툽질,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서한의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서 | 37 |
| <도판20> 『경향잡지』 1925년 9월 15일 | 39 |
| <도판21> Giustanian, <영광圖>, 1925년, 캔버스 유채, 미상 | 39 |
| <도판22> <두 성인들圖>, 9세기, 35.5×30.5cm, 러시아 | 39 |
| <도판23> Angelico. Fra, <성모대관圖>, 1428년경, 목판에 템페라, 112×114cm,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 39 |
| <도판24> Giustanian <영광圖>의 배치도 | 42 |
| <도판25> Giustania <79位福者圖>, 1926년, 캔버스 유채, 520×345cm, 명동성당 | 45 |
| <도판26> Giustanian <79位福者圖>의 배치도 | 46 |
| <도판27> Giustanian, <소년순교자 유대철(베드로)圖>, 1925, 캔버스 유채, 미상 | 47 |
| <도판28> 원각사 10층 석탑, 1897년, 『사진으로 보는 백 년 전의 한국』 (사진159번) | 47 |
| <도판29> 조선시대 재관광경, 1900년, 『사진으로 보는 백 년 전의 한국』 (사진439번) | 47 |
| <도판30> Giustanian, <순교자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 1925년, 캔버스 유채, 미상 | 50 |
| <도판31> 서소문, 1900년, 『사진으로 보는 백 년 전의 한국』 (사진126번) | 50 |
| <도판32> Giustanian, <세 프랑스 신부 殉教圖>, 1925년, 캔버스 유채, 미상 | 52 |
| <도판34> 새남터, 1900년, 『사진으로 보는 백 년 전의 한국』 (사진166번) | 52 |
| <도판35> 장발(루도비코) <加敬者김대건(안드레아)圖>, 1920년, 캔버스 유채, 미상 | 55 |
| <도판36> 요한 조그라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1398~1394년경, 목재, 88.5×131cm, 스키프예 예술화랑 | 55 |
| <도판37> 장발(루도비코), <79位福者圖>, 1934년경, 캔버스 유채, 미상 | 59 |

| | |
|--|----|
| <도판38> Duccio di Buoninsegna, <옥좌의 성모>, 1308~11경, 목판에 템페라, 214×412cm, 시에나 두오모박물관 | 59 |
| <도판39> 장발(루도비코) <79位福者圖>의 배치도 | 60 |
| <도판40> 작가미상, <79位福者圖>, 1945년 이후 추정, 한국화, 미상 | 61 |
| <도판41> 작가미상의 한국화 <79位福者圖>의 배치도 | 61 |
| <도판42> 남대문 밖, 1910년, 『사진으로 보는 백년 전의 한국』 (사진107번) | 61 |
| <도판43> 서울북악산, 1900년, 『사진으로 보는 백년 전의 한국』 (사진103번) | 61 |
| <도판44> 각종 순교圖 상본,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소장 | 61 |
| <도판45> 장발(루도비코), <福女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 1925년, 캔버스 유채, 69.5×46.5cm. 절두산순교박물관 | 63 |
| <도판46> <聖女 글라라> 시드니미술관 | 6 |
| <도판47> 장발(루도비코), <福者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 1928~1929년, 캔버스 유채, 81×43.5cm, 절두산순교박물관 | 66 |
| <도판48> Raffaello Sanzio, <알렉산드리아의 聖 카타리나>, 1507년경, 목판에 유채, 71.5×55.7cm, 런던 국립회화관 | 66 |
| <도판49> 장우성(요셉), <聖母子와 어린 요한圖>, 1949년, 종이에 채색, 200×136cm, 로마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 | 69 |
| <도판50> 장우성(요셉), <강완숙(골롬바)·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 圖>, 1949년, 종이에 채색, 185×108cm, 로마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 | 71 |
| <도판51> 장우성(요셉), <김대건(안드레아)·남종삼(요한)·유대철(베드로) 圖>, 1949년, 종이에 채색, 185cm×108cm, 로마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 | 73 |
| <도판52> 장우성(요셉), <聖母子와 김효임(골롬바), 김아네스圖>, 1951년, 종이에 채색, 미상 | 74 |
| <도판53> <옥좌의 성모>, 시드니박물관 | 74 |
| <도판54> Giulio Dante, <24位福者圖>, 1968년, 미상 | 75 |
| <도판55> Giulio Dante <24位福者圖>의 배치도 | 75 |
| <도판56> 정창섭(암브로시오), <순교자圖>, 1968년, 캔버스유채, 407×240.5cm, 절두산순교박물관 | 77 |

| | |
|--|----|
| <도판57> Tizian Vecellio, <성모승천> 1518년, 베네치아 프라리성당 | 77 |
| <도판58> 정창섭(암브로시오) <순교자圖>의 배치도, 1968년 10월 6일 가톨릭시보에서 | 80 |
| <도판59> 笞刑, 1900년, 『사진으로 보는 백 년 전의 한국』 (사진442번) | 81 |
| <도판60> 주리틀기, 1890년, 『사진으로 보는 백 년 전의 한국』 (사진440번) | 81 |
| <도판61> 軍門梟首, 1890년, 『구한말사진』 (사진99번) | 81 |
| <도판62> 옥중에서 큰칼을 쓴 죄인, 1894년, 『사진으로 보는 백 년 전의 한국』 (사진77번) | 81 |
| <도판63> 김준근, <형벌圖>, 1900년경, 덴마크국립박물관 | 81 |
| <도판64> 김준근, <형벌圖>, 1900년경, 덴마크국립박물관 | 81 |
| <도판65> 문학진(토마스), <聖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 1983년, 캔버스유채, 120×98cm, 명동성당 | 85 |
| <도판66> 문학진(토마스), <聖 현석문(가롤로)圖>, 1984년, 캔버스 유채, 90×72cm, 절두산순교박물관 | 85 |
| <도판67> 박득순(요셉), <聖 정하상(바오로)圖>, 1984년, 캔버스 유채, 102×70cm, 절두산순교박물관 | 85 |
| <도판68> 박득순(요셉), <聖 김성우(안토니오)圖>, 1984년, 캔버스 유채, 102×70cm, 명동성당 | 85 |
| <도판69> 임직순(사도요한), <聖 정의배(마르코)圖>, 1985년, 캔버스 유채, 90×73cm, 절두산순교박물관 | 85 |
| <도판70> 김태(바오로), <聖 남종삼(요한)圖>, 1984년, 캔버스 유채, 90×72cm, 절두산순교박물관 | 85 |
| <도판71> 김태(바오로), <聖 유진길(아우구스티노), 聖 유대철(베드로)圖>, 1984년, 캔버스 유채, 102×80cm, 절두산순교박물관 | 85 |
| <도판72> 정창섭(암브로시오), <聖 정정혜(엘리사벳), 聖 유소사(체칠리아), 聖 정하상(바오로)圖>, 1985년, 캔버스 유채, 98×75cm, 절두산순교박물관 | 85 |
| <도판73> 김형구(루가), <聖 전경협(아가다), 聖 박희순(루시아), 聖 김유리대(올리에타)圖>, 1984년, 캔버스 유채, 98×75cm, 절두산순교박물관 | 85 |

| | |
|---|-----|
| <도판74> 장발(루도비코), <聖 김효임(골롬바), 聖 김효주(아녜스)圖>, 1925년, 98×67cm, 절두산순교박물관 | 85 |
| <도판75> 문학진(토마스), <한국103位聖人圖>, 1977년, 캔버스 유채, 323×376cm, 혜화동성당 | 88 |
| <도판76> 堂上官, 1900년, 『구한말사진』 (사진47번) | 88 |
| <도판77> 장옷, 1900년, 『구한말사진』 (사진83번) | 88 |
| <도판78> 땡기머리와 복건, 1900년, 『사진으로 보는 백 년 전의 한국』 (사진434번) | 88 |
| <도판79> 대감과 무관, 1900년, 『구한말사진』 (58번) | 88 |
| <도판80> 황해도 안악군 매화동성당 신자가족, 1898년경, 『빛·믿음·흔적』 화보 (사진39번) | 88 |
| <도판81> 미사보를 쓴 천주교 신자 1900년 | 88 |
| <도판82> 문학진(토마스) <한국103位聖人圖>, 1977년, 캔버스 유채, 323×376cm, 서울혜화동성당 | 93 |
| <도판83> 탁희성(비오), <김대건신부시복의영광圖>, 1971년, 지본채색,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 96 |
| <도판84> 탁희성(비오), <소현세자와 아담 샬 신부圖>, 가톨릭순교李朝200년—제1圖, 1970년, 지본채색, 절두산순교박물관 | 97 |
| <도판85> 탁희성(비오), <신앙 내력과 성장과정圖>, 김대건신부 일대기—제1圖, 1971년, 지본채색, 57×73cm,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 98 |
| <도판86> 탁희성(비오), <머슴살이圖>, 한국103위 성인—제37도, 1989년, 지본채색, 39×50cm,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 98 |
| <도판87> 방오석(말가리다), <예수그리스도왕을 모신 한국순교성인들圖>, 1984'5년, 440×211cm, 화선지묵채, 새남터성당 | 99 |
| <도판88> 방오석(말가리다), <한국순교자의 모후를 모신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성인들圖>, 1984'5년, 440×211cm, 화선지묵채, 새남터성당 | 102 |
| <도판89>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녜스)자매圖>, 화선지묵채, 1984년, 작가소장 | 103 |
| <도판90> 김태(바오로), <명례방집회圖>, 1984년, 캔버스 유채, 180×257cm, 명동성당 | 104 |
| <도판91> 『그림으로 보는 신앙』에 실린 <명례방집회圖>의 배치도 | 105 |

I. 머리말

가톨릭교회에서 聖美術이란, “천주교 신앙과 그 가르침을 위한 전교와 찬미를 위한 각종 像本·聖畫·聖像·聖器工藝 그리고 교회건축의 예술적 측면을 총칭하는 개념이다.¹⁾ 사물 앞에 聖을 부치는 것은 교회 측에서 사용하는 주관적인 용어로써 거룩함을 표현하거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가톨릭교회의 聖畫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생애, 聖經 속의 인물, 공적으로 인정한 聖人들, 그리고 聖經의 내용과 교회 역사상 성스러운 사건들을 재현해 놓은 그림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교 정신을 주제로 작가의 신앙적인 체험과 영감을 예술적인 세계관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한 작품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작가의 작품 세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또 작가 자신이 속한 그 당시 사회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한국 가톨릭교회도 聖人을 주제로 그린 여러 종류의 聖畫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순교자들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殉教圖’라고 정의하고, 그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순교자들의 殉教圖가 제작된 배경에는 천주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수많은 신자들의 순교가 있었고, 훗날 그 순교자들을 교회가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과정에서 殉教圖가 그려졌다고 본다. 殉教圖는 순교자들의 諡福·諡聖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되거나, 순교자들의 행적을 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려진다. 우리나라에서 순교자들을 群像으로 그린 殉教圖는 <영광圖>, <79位福者圖>, <24位福者圖>, <순교자圖>, <한국103位聖人圖>가 있으며, 대표적인 인물의 殉教圖는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 <세프랑스신부殉教圖>,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 <유대철(베드로)圖>가 있다. 또 한국교회사의 내용을 史畫 형식으로 그린 작품도 있다.

1) 이구열, 「韓國 가톨릭美術 2백년의 軌跡」, 『계간미술』 26호, 1984, p.72.

한국 79位·한국 24位·한국 103位란 ‘位格을 갖춘 한국인 인원’을 뜻한다. 즉 ‘한국 103位聖人’은 ‘한국의 聖人 103명’을 총칭하는 말이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대성전에서 1925년 7월 5일에 거행된 諡福式으로 79명의 순교자가 79位福者가 되었고, 1968년 10월 8일에 거행된 諡福式으로 24명의 순교자가 24位福者가 되어 103位福者를 모시게 되었다. 聖人品 오르는 諡聖式은 전통적으로 바티칸에서만 거행되어 왔는데,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nes Paulus II, 1920~2005)의 방한으로 특별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 諡聖式에서 103명의 福者가 聖인이 되었다. 103位聖人 중에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주교 3명, 신부 7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국적이 비록 프랑스이지만 한국의 선교사로서, 한국인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므로 한국 가톨릭교회의 聖인으로 공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聖人이란 “사리에 통달하고 덕과 지혜가 뛰어나 만인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뜻하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의 聖인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교적인 덕성을 갖추고,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결합과 일치 이루는 삶을 살았던 뛰어난 이들로 그들이 생존시 보여 준 덕행이나 순교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증거요 본보기였음을 교회가 諡聖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을 뜻한다.²⁾

2) 국어국문학회, 『새로 만든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p.1421.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 위원회, 『한국 가톨릭대사전 7』, 1999, p.4753.

※ 각주에 나오는 聖人の 소개와 교회에 관한 것은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 인용하였다.

※ 모든 인명을 다음과 같이 표기 하고 호가 있으면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사용한다.

호·성명(세례명, 생몰년도)

可敬者：諡福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이다.

福者：諡福式을 통하여 福者品에 오른 분들로 공식으로 공경하지만, 그 범위가 어떤 지방이나 단체에만 제한되는 準聖人の 지위이다.

聖人：諡聖式을 통하여 聖人品에 오른 분들로 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을 드릴 수 있도록 선포된 분이므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聖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諡號：시호는 임금이 돌아가신 임금·정승·유현들의 공덕을 기리어 죽은 뒤에 내리는 이름이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교황께서 諡福式과 諡聖式을 거행하여 福者品과 聖人品을 내린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와 성장하기까지 220여년의 敎會史 안에서 가톨릭 회화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토착화 되어가는 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한국 가톨릭 미술에 관한 글은 金珠瑛이 1972년 『홍익미술』 창간호에 「그리스도 敎 傳來에 따르는 韓國 西洋畵의 流入의 軌跡」에 昭顯世子和 아담 샬 신부와의 만남, 李喜英의 <犬圖>에 대하여 논하였다. 方梧錫이 1976년 『한국 가톨릭 미술에 관한 연구』로 건축,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의 전반적인 것을 시대별로 다루었다. 그 이후 가톨릭 미술과 관련한 선행 논문의 대부분이 金珠瑛의 그리스도교 전래와 서양화 유입 부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연구의 범위도 거의 비슷하여 가톨릭 미술을 개신교 미술과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 미술로 소개하고, 가톨릭 화가들의 전반적인 작품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개신교 화가의 작품도 소개하고 있다. 시기적 구분도 가톨릭은 천주교가 전래된 1785년을 시작으로, 개신교는 개화기 이후를 기점으로 잡고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³⁾

諡聖 : 諡聖이란 말은 그리스어 “카논에서 비롯되었는데, 본래 ‘막대기’라는 의미였으나 그 뒤 자, 규범, 기준 등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시성이란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느님 백성의 거룩함 [聖性] 의 기준을 모범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諡福 후보자를 ‘하느님의 종(servus Dei)이라고 부르며, 聖인이 되기 전에 먼저 福者가 되어야 한다.

103位福者 :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대성전에서 1924년 7월 5일에 시복된 79位福者와 1968년 10월 6일에 시복된 24位福者를 합하여 103位福者라고 부른다.

79位福者 : 성직자 4명(한국인 1명, 프랑스인 3명)과 남교우 25명, 여교우 50명으로 1839년에 55명, 1840년~1841년에 15명, 1846년에 9명이 순교하였다.

24位福者 : 프랑스 성직자 7명, 남교우 17명으로 병인년(1866~1867.1월)에 순교하였다.

3) 金珠瑛, 「그리스도 敎 傳來에 따르는 韓國 西洋畵의 流入의 軌跡」, 1972년 『홍익미술』 창간호, pp.97~105.

林昭諭, 『韓國 基督教 美術에 관한 研究—회화부문을 中心으로』, 1984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래된 후 가톨릭 화가와 개신교 화가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鄭山南, 『韓國의 基督教 美術에 관한 史的 考察—繪畵를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1986. 서양 기독교미술사를 전개하고, 가톨릭미술을 근대 이후의 기독교미술로 소개하면서 현대 가톨릭 미술전의 의의를 다루었다.

徐茲禧, 『韓國 基督教 美術의 高察』,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천주교와 개신교의 역사를 나누어 聖畵의 유입과 근대 건축을 다루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논문도 선행논문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한국순교자들과 관련된 회화들을 다루면서 좀더 범위를 좁혀 순교자들을 주제로 제작된 殉敎圖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도상의 변화를 살펴 ‘土着化’에 의미를 실어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II장에서는 가톨릭 회화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聖畫像의 의의와 聖畫像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天主教의 傳來와 聖畫像의 역할,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른 典禮 안에서 聖美術의 土着化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신앙의 선조인 103位 聖人들의 諡福과 諡聖경위를 교회사 문헌에서 찾아보고, IV장에서는 殉敎圖를 3시기별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시기 구분은 가톨릭 회화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殉敎圖가 제작된 배경을 중심으로 殉敎圖 안에서 토착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가톨릭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殉敎圖는 시기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면서도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작가의 신앙 안에서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순교자들과 관련된 殉敎圖가 전달해 주는 의미와 토착화되어 가는 과정을 찾아보고자 한다.

李益魯, 『한국 개신교 미술에 관한 연구—회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기독교미술의 역사 안에서 聖畫像의 논쟁을 다루면서 개신교와 가톨릭 화가의 작품을 다루었다.

김영주, 『한국 기독교미술의 聖像畫 연구—1920~1960년대의 가톨릭, 개신교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2002. 기독교 미술의 역사를 신학적 배경 안에서 찾고, 聖像畫을 유형별로 나누어 특성과 의의를 다루었다.

鄭實羅, 『韓國 基督教 美術에 관한 研究—韓國畫를 中心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5.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다루었다.

申鉉基, 『韓國 基督教 美術에 관한 研究—회화부문을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기독교미술의 본질과 기독교미술의 역사 안에서 기독교미술의 현대적 경향에 대해서 다루었다.

조윤경, 『張勃의 생애와 작품활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 聖畫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1999. 가톨릭화가인 장발화백의 작품과 가톨릭성화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미술에서 차지하는 작가의 위상을 밝혔다.

權奇姪, 『韓國基督教 美術 研究—作家를 中心으로』, 안동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기독교 미술의 개념과 성격을 전개하면서 개신교 작가의 작품만 다루었다.

연구 방법은 가톨릭교회에서 발행한 서적 및 기념화보, 잡지, 신문, 가톨릭 미술과 관계된 문헌과 이론적 근거를 둔 자료, 작가의 도록과 전시관련 기사를 참고하였고, 작품의 소장처가 정확한 곳은 직접 찾아가 확인하였다.

II. 가톨릭 繪畵의 전개

1. 聖畵像 의의

가톨릭교회는 교회역사 초기부터 聖畵像과 상징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초대 교회시대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지하묘소인 카타콤바(Catacombae) 벽에 “예수 그리스도·성모 마리아·사도들·순교자들의 얼굴 그리고 聖經에 나오는 추상적인 상징물이나 성스러운 의미를 갖는 구체적인 사물” 등이 그려진 벽화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심과 정신을 드높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된 것이다.⁴⁾

가톨릭 聖畵像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주제로 그린 것이 많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되는 시대적 양식 속에서도 거의 비슷한 구도와 조형적 특징들이 나타난다. 聖人들의 聖畵像에도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사물·동물·의상·기호·신체적 특징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 베드로 聖人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국의 열쇠이다. 열쇠는 ‘천국의 수문지기’인 聖人의 직분을 상징하므로 ‘베드로 聖人과 열쇠’의 관계는 보는 이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聖畵像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물을 통하여 우리는 그 뜻을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이다.

4) 구제덕 편역, 『성화상의 의미』, 성요셉출판사, 1989, p.24.

Catacombae : 초대 교회시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지하묘소이다. 박해 때에는 피난처로 사용했고, 전례를 행하였다. 초기의 카타콤바는 죽은 이의 묘비명과 유리그릇 이외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후기에는 죽은 이의 나이와 매장일자를 기록한 묘비명에 그리스도교적 신앙고백과 유족의 기원이 적혀 있다. AD.313년 밀라노칙령으로 공인되고 점차 지상에서 전개되어 중세 미술의 부흥기인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의 양식적 특징을 낳게 된다.

聖畵像 : 넓은 의미로 聖畵를 가르키며, 좁은 의미로는 東方正敎會가 숭배하는 聖畵像(Icon)을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聖畵와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미술이 한 시대의 정신을 표현해 주듯이 가톨릭교회의 聖畫像도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영적 표현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러한 聖畫像의 역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형태와 방법을 보여주는 교육적 수단으로 복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성인들의 생애와 순교정신 등 무형의 것으로 聖畫像을 통해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敎會에서도 聖畫像을 종교 예술의 정점으로 또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가장 고귀한 업적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인간이 종교 예술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니고 있는 특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열정이며, 종교적 감성은 인간의 감성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것으로 새로운 생명력과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Gerardus van der Leeuw)는 “聖의 표현은 성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교 예술에서 거룩한 [聖]을 표현하려면 작가의 영혼 안에서 藝術의 美가 함께 순수하게 자라고 무르익어서 갈라짐 없는 하나로 결합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⁵⁾

바티칸공의회문헌 제122조에 보면 “훌륭한 미술, 특히 종교적 미술과 그 정점인 聖美術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가장 고귀한 업적의 하나로 정당하게 평가된다.” 하였다. 종교적 미술과 聖美術은 그 본질상 인간의 작품으로 어느 정도 표현해 보려는 하느님의 한없는 아름다움을 지향해야 하며, 작품을 통해 사람의 정신을 하느님과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영광을 위해 봉헌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

종교를 가진 작가의 경우 종교는 그의 작품 세계에 핵심을 이루는 주축이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작가는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과 그 사랑에 힘입어

5) Gerardus van der Leeuw, 『종교와 예술』, 윤이흠 역, 열화당, 1994, p.57.

6)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해설총서」, H.V.스트라렌 外 저. 현석호 역. 1992. 성바오로출판사, p.373.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0.~1965.12) : 교황 요한(Joannes)23세에 의하여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개최된 세계 공의회로 제1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개별적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통합시켜 새롭고 진보적인 가톨릭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을 그 기본성격으로 하여 개최된 회의였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자신이 속한 문화 사회의 감수성으로 신앙을 다양한 미술양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3세기의 철학자이며 그리스도교 교리를 정립한 플로티누스(Plotinus, 205~270)도 “예술가의 목적은 어떠한 像이나 색이든 볼 수 있는 위대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을 可視化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참다운 聖畫像의 역할은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영적이며 정신적 활동의 산물로서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신심에 도움을 주어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聖畫像은 의미와 상징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를 익숙하게 하고 사물의 외관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작품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징표를 보도록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주기도 한다.⁷⁾

2. 天主教의 傳來와 聖畫像의 유입

한국 가톨릭교회는 1783년 말 晩泉 李丞薰(베드로, 1756~1801)이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이듬해 봄에 귀국하여 그해 겨울에 譯官인 曠菴 李檠(요한, 1754~1786)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조선천주교회가 창설된다.⁸⁾

우리나라에 최초로 聖物과 聖畫像을 유입한 사실을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병자호란(1636~1637년)으로 1637년 동생 鳳林大君과 함께 중국(淸)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귀국한 昭顯世子(1612~1645)이다.⁹⁾ 昭顯世子가 심양에서 보낸 8년간의 체류 내용이 『深陽日記』에 담겨 있다. 그 당시 淸나라의 수도인 심양에서

7) 구제덕 편역, 『성화상의 의미』, 성요셉출판사, 1989, pp.23~29.

8) 샤르르 달레, 안응렬, 최석우 역주, 『韓國天主教會史 上』, 분도출판사, 1979, p.312.

李丞薰(베드로, 1756~1801) : 한국 가톨릭교회의 첫 영세자. 성균관 進士인 이승훈이 이벽의 권유로 1783년 겨울 冬至使 書狀管인 부친 李東郁을 따라 北京에 가게 된다. 그 곳 北堂(4개의 天主堂이 있었음)에서 예수회선교사 그라몽(Jean Joseph de Grammont, 梁棟1材, 1736~1812) 신부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은 최초의 영세자이다.

9) 崔爽祐, 「韓國天主教會의 歷史」, 한국교회사연구소 출판부, 1982, p.21.

昭顯世子 : 仁祖의 長子

북경으로 淸 세조가 천도(1644년 9월 19일)하자, 昭顯世子도 북경의 東華門 안 文華殿의 文淵閣으로 거처를 옮겨 60여 일간을 머물다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11월 26일 북경을 떠나 이듬해 인조23년(1월 16일)에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昭顯世子는 북경에서 머무는 동안 숙소 근처에 있는 南堂(천주당)을 방문하여 “欽天監正으로 있던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Joannes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1~1666) 신부와 친교를 맺고 왕래하면서 서양 문물과 천주교에 대해 알게 된 후, 天文·역산 관계 서적과 聖教正道(천주교) 서적과 輿地球 1架, 天主像 1폭을 기증받아 귀국 시 조선에 들여오게 된다.” 그러나 昭顯世子는 귀국 후 3개월 만에 병으로 3일을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중국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을 불태워 버리고, 따라왔던 환관과 궁녀들도 모두 淸나라로 돌려보냈다. 昭顯世子가 가져온 많은 자료들이 모두 소각되어 聖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¹⁰⁾ 이중희의 『한·중·일의 초기 서양화 도입 비교론』에 그 그림이 실려 있다.

일반적으로 昭顯世子가 가져온 天主像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의 聖書이였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담 샬 신부보다 먼저 중국에 입국하여 북경에서 활동하던 마테오 리치(Matto Ricci, 利瑪竇, 1552~1610) 신부가 神宗을 처음으로 알현했을 때 서양 문물과 함께 天主와 聖母像을 그린 서양 그림 3폭을 증정하였다고 한다. 그 시기에 마테오 리치 신부가 전교하기 위하여 동판으로 찍어 보급한 聖書가 『墨苑』(程大約 著, 1605년(만력 33년)에 실려 있다.<도판1, 2> 그리고 1622년에 북경에 온 아담 샬 신부도 明의 승정제에게 聖書를 증정하였는데 그 聖書가 『不得已』(楊光先 著)에 소개되어 있다.<도판3>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의 그림으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¹¹⁾

10) 崔奭祐, 『한국교회사의 탐구 II』 「조선후기의 서학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p.178.

李錫浩, 『昭顯世子』, 良友堂, 1988, pp.19~21.

北京에는 南堂(1601년), 東堂(1628년), 北堂(1703년), 西堂(1723년) 등 4개의 성당이 있었다.

11) 이중희, 『한·중·일의 초기 서양화 도입 비교론』, 일과말, 2003, pp.35~40.



<도판1> 『墨苑』에 실린 삽화



<도판2> 『墨苑』에 실린 삽화



<도판3> 『不得已』에 실린 삽화

아담 샬 신부가 라틴어로 쓴 회고록 『Historica Relatio』에는 1622년부터 1658년까지 있었던 자신과 중국 그리스도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과 관계된 부분은 昭顯世子가 보낸 한문편지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聖畫像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어제 뜻밖에도 제게 보내주신 구세주 천주상, 역서들, 기타 서화서들을 선물로 받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는 신부님께 큰 빛을 쬐었습니다. 몇몇 서책들은 대충 살펴보니 저희가 이제까지 모르던 교리를 다루더군요. 마음을 닦고 덕을 기르는 데 매우 적절한 교리입니다... 중략... 성화상은 장중하여,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서 온갖 불결과 먼지를 없애줍니다.(중략)

그 후 조선에 천주교 신자로 聖物과 聖畫를 유입한 사람은 李承薰(베드로)이다. 정조 8년(1783)에 천주교를 학문으로 연구하던 曠菴 李檠(요한, 1754~1786)의 부탁으로 북경에 간 李承薰(베드로)은 그 이듬해(1784년) 北堂에서 그라몽(Louis de Grammont, 梁棟材, 1736~1812)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요한복음 12장 12~15절 : “... 많은 군중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중 나와서 외쳤다. ... 예수께서 마침 어린 나귀를 얻어 올라앉으셨으니, 성서에 써어 있는 대로였다. ... 보라, 네 임금님이 오신다. 새끼나귀 타고 오신다.”

12) 張情蘭, 「昭顯世子 研究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 『教會史研究 第9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pp.191~198. 정양모 신부가 라틴어 원문을 1993년 12월 21일에 적역하였다.

세례를 받고 귀국하면서 많은 책과 十字苦像과 聖書와 몇 가지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보물의 일부를 李檠(요한)에게 보내었다.¹³⁾

이승훈 베드로는 이가환의 생질이고 정약종의 매형입니다. 젊어서 진사에 급제하고 학문과 궁리를 좋아하여, 벼슬하지 않은 선비 이벽이 크게 기특히 여겼습니다. 그때 이벽은 聖敎의 서적을 비밀리에 읽고 있었는데, 승훈은 이를 몰랐습니다. 계묘년(1783)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되자, 이벽이 그에게 은밀히 부탁하기를 “북경에는 천주당이 있고 그 안에는 서양 선교자가 있으니, 자네가 가서 찾아보고 信經 한 부만 달라고 하고, 세례 받기를 청하면, 선교사들이 자네를 크게 사랑하여 기이한 물건과 궤물을 많이 얻을 것이니, 반드시 그냥 돌아오지 말게”라고 하였습니다. 승훈이 그의 말대로 천주당에 가서 세례를 청하자, 여러 신부들은 영세하기에 필요한 도리를 모른다고 영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양 신부가 세례를 주고 또한 교회 책도 많이 주었습니다.

李承薰伯多祿 李家煥之甥姪 丁奧斯定之妹兄 少登進士 素好學問窮理 布衣李藥大寄之 時李藥密看聖書 而承薰不知 癸卯隨父入燕 李藥密托曰 北京有天主堂 堂中有西士傳敎者 子往見之 求信經一部 并請領洗 則西士必大愛之 多得奇物玩好 必勿空還 承薰如其言 到堂請洗 諸位司鐸 以其不明要理 不許領洗 惟梁神父力主授洗 并給許多聖書¹⁴⁾

그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聖書 중에서 가장 오래된 聖書 한 점이 서울 절두산순교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聖書는 1800년경 중국에서 인쇄하고 손으로 채색된 8쪽의 聖書로 한국의 전통회화 기법과는 전혀 다른 서양화법으로 그린 것이다. 聖經의 내용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 지옥의 고통과 천당의 즐거움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과 死를 심판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도판4>

13) 샤를르 달레(Dallet, Claude Charles), 『韓國天主敎會史 上』, 분도출판사, 1979. pp.303~310.

十字苦像 : 가로와 세로의 십자(十字) 모양으로 교차되는 2개의 나무로 이루어진 것으로 십자가는 원래 이집트, 카르타고 등의 고대 동방(東方)에서 죄인의 양팔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달아 처형하던 도구였다. 이 형벌이 로마제국에 유입된 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자 그 후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고통 등을 상징하게 되었다.

14) 여진천,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기쁜소식, 2002, p.83.

황사영, 『황사영 백서』 44행.



<도판4> 1800년경 중국에서 들어온 가장 오래된 8폭의 聖畵. 중국에서 인쇄되고 손으로 채색하였다. 서울절두산순교박물관 407×240.5cm



<도판5> 여사울출토 성물(십자가, 목주패, 성해통), 신유교난(1801년)전후, 서울절두산순교박물관

그리고 李丞薰(베드로)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천주교와 관련된 많은 물품을 받아들음을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십자가 1점, 목주패 3점, 聖骸통 1점)가 충청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 소재한 「여사울 李存昌(루도비코, 1752~1801) 生家터」에서 1969년 6월 18일 발굴되어 절두산순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발굴된 유품들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신유박해(1801년)가 일어나자 李存昌(루도비코)는 체포되기 직전에 성물의 훼손과 압수를 방지하기 위해 아궁이와 땅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사학자들은 이 유품들을 초기 신앙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聖物로서, 한국인 신자가 중국에서 갖고 온 첫 聖物로 추정하고 있다.¹⁵⁾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신자 화가로는 秋餐 李喜英(루가, 1756~1801)이 알려져 있다. 그는 石癡의 鄭喆祚(1730?)의 제자이며 『黃嗣永 帛書』에 ‘…本來工畵 …’

15) 박희봉, 『천주교 순교성지 절두산』, 1994, p.90.
『가톨릭신문』, 1997. 9.14.

이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李喜英(루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서양화법 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희영은 요사팻(김건순의 세례명)의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처음에 여주에서 살다가 뒤에 서울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畫工으로 聖像을 아주 잘 그렸는데, 역시 참수당해 순교하였습니다.”

“李喜英路加 若撒法之密友 先居驪州 後移都下 本來工畫 善摹聖像 亦以斬首致命”¹⁶⁾ 『黃嗣永 帛書』 64행.

최인李喜英은 본래 김건순의 家客으로서 김건순과 더불어 주문모를 찾아가서 만나 보았으며, 옛날부터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순의 아버지와 형에게 쫓겨났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학에 오염되어 서울에 출입하여 徒黨과 체결하였으며 다달이 네 번씩 재계하고 素食하면서 洋書를 암송해 익혔다. 畫法을 조금 알고 있었으므로, 耶蘇像 3본을 본떠서 만들어 이를 黃嗣永에게 보냈었다. 이에 眞贓이 드러나서 국청에서 자복 하였으니, 요서요인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지만을 받아 正法하였다.

罪人李喜英, 本以金建淳之家客, 與建淳往見周文謨, 而以自來行己之不正, 被建淳父兄之所逐. 終始染汚邪學, 出入京洛, 締結徒黨, 月(三) [四] 齋素, 誦習洋書, 稍解畫法, 摸出耶蘇像三本, 送之黃嗣永. 眞贓綻露, 鞫庭自服, 以妖書、妖言, 傳用惑衆, 捧遲晚正法. 『순조실록 권2』, 元年 辛酉 3月 乙巳條 김백순(요사팻) 공초.

李喜英(루가)은 자신이 그린 예수像을 洪弼周(필립보, 1773~1801)에게 한 점, 黃嗣永(알렉산데르, 1775~1801)에게 세 점 보낸 사실이 탄로 나서 1801년 신유박해로 李承薰(베드로, 1756~1801), 丁若鍾(아우구스티노, 1760~1801), 李家煥(입교불분명) 등이 함께 순교하였다. 權日身(암브로시오, 1751~1792)은 예산으로 가던 도중 형벌로 얻은 상처로 인해 사망하였다.¹⁷⁾

16) 黃嗣永, 『황사영 백서』 64행, 정음사, 1975, p.72.

여진천,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기쁜소식, 2002, p.110.

17) 최석우,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天主敎會」, 『韓國敎會史의 探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p.71.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 권2』, 元年 辛酉 3月 乙巳條.

李喜英(루가)의 <犬圖><도판6> 좌우에 있는 跋文은 葦滄 吳世昌(1864~1953) 선생이 1926년에 『純祖實錄』에서 발췌한 글이다. 오늘날 李喜英(루가)의 작품으로 <犬圖> (지본담채, 32×28cm, 1795년, 송실대학교 박물관), <雙犬圖>(지본담채, 32×105cm, 1795년, 李元基 소장), <樓閣山水圖>(지본담채, 30.4×23.6cm, 洪性夏 소장)가 전해지고 있지만, 문헌에 나오는 聖畵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도판7>¹⁸⁾



<도판6> 이희영, <犬圖>, 지본담채, 32×28 cm, 1795년, 송실대학교박물관소장



<도판7> 이희영, <雙犬圖> 지본담채, 32×105 cm, 1795년, 李元基 소장

李喜英(루가, 1756~1801) :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순교자 李鉉의 숙부. 1797년 김백순(1776~1801, 요사팻)의 전교로 입교한 뒤 상경하여, 聖畵, 像本 등을 그리며 생활하다가 신유(1801)박해 때 체포되어, 5월 10일(음 3월 29일) 과 함께 서소문밖 형장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鄭喆祚(1730~?) : 자는 仲吉. 海州人으로 文科에 등제하여 지평을 지냈다.

金健淳(1776~1801) : 경기도 여주 출신, 14세 때에 이미 천주교 입문서를 탐독하고, 성장한 후, 南人의 權哲身을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1797년 6월 6일(음) 주문모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았다. 입교한 후에 이희영 외 많은 이에게 전교하여 여주고을을 천주교의 중심지로 하는데 큰 공을 남겼다. 丁若鍾을 도와 聖敎全書를 저술하다 1801년 6월 1일 서소문 밖에서 26세에 참수하였다.

吳世昌(1864~1953) : 서예가. 호는 葦滄. 서예와 전각 활동 외에 한국서화가 인명사전 『槿域書畫徵』을 편술하여 간행(1928년)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이다.

18) <犬圖>의 跋文 : 葦滄 吳世昌 學書於石癡 鄭喆祚 純祖元年 辛酉春 邢學之獄 秋餐拿鞠處刑 曾訪清人神父周文謨 沈溺其學 且摸出耶蘇像三本 送于黃嗣永 事統露自服也 其姪鉉 亦以邢邪學被刑

이원복, 「조선후기 루가 李喜英의 犬圖」, 『釜山教會史報』 제21호, 1999, pp.21~27.

이 시기에 여러 경로를 거쳐 서양문물과 함께 들어온 서양화법이 우리나라 전통화단에 알려지고 수용하게 되어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조선후기 초상화와 동물화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인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간직하려 할 것이고, 그 형상이 주위에 있다면 당연히 공경하려 할 것이다. 李喜英(루가)과 숨겨 있는 신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聖書를 보고 모사하거나 그들 나름대로 창작하였다면 그 時代의 예술적인 표현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聖書는 신자들의 개인 신심의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십자가像이나 여러 聖像을 모시는 것과 같이 공적으로 모이는 전례 장소를 장식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음을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초대교회에서 像本이나 聖書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경배 대상으로서 배부되었고, 교리를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관현에 잡혀온 신자들의 형조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조정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사학죄인으로 취급하였고, 천주교 교리서와 聖書를 妖書·妖書라고 하였다. 천주교 신자들이 聖書와 聖書로 전교를 하였다는 기록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죄인 幼學 정철상 …등은 사학에 깊이 빠져서 妖黨과 체결하고 주무하여 무리를 불러 모은 다음 주문모를 신부라고 부르며 영세를 하고 名號를 받았습니 다. 그리고 妖書·妖書를 존송하여 믿고 이를 전하여 외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르쳤으며 온 세상을 현혹 시킨 것으로 아울러 이미 승관하였으니, 妖書·妖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律로 결안 하였습니다. 청컨대, 전례에 의거하여 의정부에 보고한 다음 상세히 覆審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순조실록 2권 1년 4월 1일(丁未)/사학죄인 정철상·이합규 등.¹⁹⁾

압수한 聖物 중에 聖經과 聖書가 많았다는 것을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 관현에서만 잡혀온 신자들에게서 압수한 성경이 200여권이고 聖書와 聖物은 90여권”이라고 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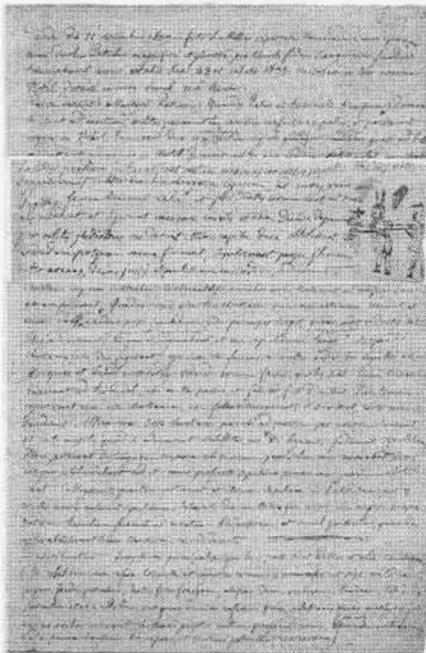
19) 趙珪, 『조선왕조실록 천주교사 자료 모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1997, pp.238~239.

20) 崔奭祐,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天主敎會」 『韓國敎會史의 探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pp.4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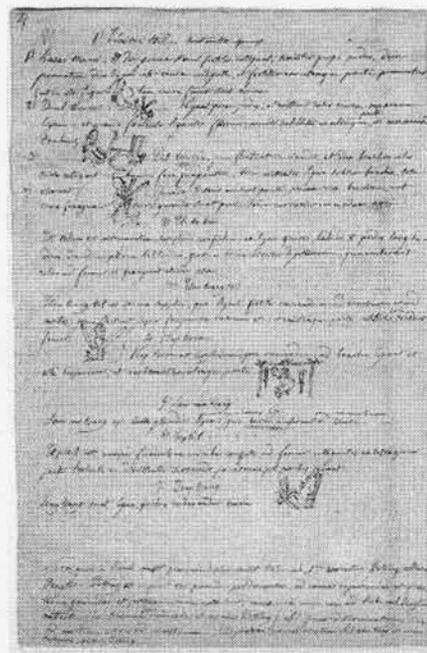
像本 : 聖人들의 聖書像이나 성스러운 문구를 적어서 성경이나 기도서의 책갈피 사이에

그 후 聖書는 아니지만 순교자들이 당하는 형벌의 현장을 선묘로 세밀하게 그린 삽화가 한 점 전하고 있다. 한국의 첫 사제 金大建(안드레아, 1821~1846) 신부가 마카오 주재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지역 경리부장 리브와(Libois Napoleon, 1805~1872) 신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1845년 7월 23일자 서한에 동봉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 실려 있는 삽화가 그것이다.〈도판8, 9〉²¹⁾

서양 문물을 자주 접한 金大建(안드레아) 신부의 솜씨를 친필과 함께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도판8〉 김대건 신부 친필서한의 삽화



〈도판9〉 김대건 신부 친필서한의 삽화

끼울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된 것이다. 교회법에 의하여 교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종류의 聖書는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21) 한국교회사연구소,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pp.217~341.

Libois, Napoleon(1805~1872) 신부 : 1832년 중국에 입국하여 1837년 마카오에 유학 온 조선 신학생 김대건(안드레아), 최양업(토마), 최방제(프란치스코)에게 교회음악을 가르쳤다. 1842년부터 1846년까지 김대건 신부로부터 조선교회의 상황을 알리는 15통의 편지를 받고 파리 외방전교회에 보고하였다.



<도판10> 김준근, 『천로역정』,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



<도판11> "Christian's Burden falls off at the sight of the Cross," *The Pilgrim's Progress*, 1817년, 102 ×7.4 cm, LG연암문고.

서양 종교의 내용을 한국적인 도상으로 표현한 작품이 종교화는 아니지만 1895에 출판된 『天路歷程』에 삽화가 실려 있다.<도판10·11> 『天路歷程』은 저자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종교적인 내용으로 엮은 문학소설이다.²²⁾

“조선시대 화가 箕山 金俊根은 1895년(고종32년)에 존 버니언(John Bunyan)의 『The Pilgrim's Progress』를 게일(Gale, James Scarth, 奇一, 1863~1937)이 번역한 『턴로력당』의 삽화를 맡아서 그렸다. 기독교 문학서인 이 책은 청나라에서 1853년 중국어로 번역된 바 있다. 이 책에는 판화로 찍은 金俊根의 삽화가 26점 실려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갓을 쓴 조선인이고 경물들도 조선식으로 변안되었는데, 직역을 하다보니 공간에 대한 처리까지는 조선식으로 바꾸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삽화에 보이는 공간감은 서양화적인 것이다.”²³⁾ 천로역정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 서양 종교의 도상이 아닌 토착화

22)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역사연구소, 기독교문사, 1990. p.263.

天路歷程 : 존 버니언(John Bunyan)의 『The Pilgrim's Progress』를 게일(Gale, James Scarth, 奇一)이 한국 최초로 번역한 서양 문학 작품이다. 목판본으로(上: 224쪽, 下: 204쪽, 20×28.8cm) 41점의 삽화가 들어있다.

게일(Gale, James Scarth, 奇一) : 개신교 선교사로 1888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1928년까지 신앙운동과 교육사업에 전력하였다. 『天路歷程』 외 『韓英大字典』도 펴냈다.

23)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p.418.

된 한국적인 도상으로 표현되었다. 한국인의 모습으로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있으며, 천사는 고전적인 선녀로 표현하고, 배경은 동양적인 선묘로 단순하게 하거나 여백으로 처리하였다. 金俊根의 일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모습과 민속을 담은 생업·놀이·형벌·의례 등에 관한 풍속화가 남아 있다. “1886년(고종23년)에 고종 임금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제독 슈펠트(R.W. Shufeldt)의 딸이 부산의 초량에서 사는 金俊根을 찾아가서 그림을 그려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그 당시 조선을 다녀간 학자나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의 작품들이 서양에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²⁴⁾

이 시기의 가톨릭 신자들이 聖物과 聖畵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편지가 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인 崔良業(토마스, 1821~1861) 신부가 충청남도 홍산의 도양골 공소에서 마카오 주재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지역 경리부장 르그레즈와(Legregeois Pierre Louis, 1801~1866) 신부에게 보낸 일곱 번째 서한(1850년 10월 1일)에 “신자들은 聖物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같습니다. 像本이나 苦像이나 聖牌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聖物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전 재산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뜻 다 내놓습니다.” 또 열세 번째 서한에서는 페롱(Feron Stanislas, 權, 1827~1903) 신부가 聖物을 갖고 오다가 모두 잃어버리게 되자 “聖物들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교우들의 요구를 달랠 방도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聖物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교우들의 눈에 점잖게 보이며 될 수 있는 대로 얇은 종이에 색채 없이 잘 그린 조금 큰 像本을 보내 주십시오. 성모님 像本을 많이 보내주시고 다른 聖人들의 像本은 조금씩 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⁵⁾

24) 김광언, 「箕山 金俊權」의 풍속도 해제, 『유럽미술관소장 한국문화제』, 한국국제교류재단, 1989.
R. W. Shufeldt : 1882년에 체결된 韓美수호조약 당시의 미국 대표.

25)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바오로딸, 1995, pp.78~138.
서울 철두산순교박물관 : 1866년에 순교한 병인순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1966년에 기공하여 1967년 10월에 개관하였다. 한국천주교회의 관련 사료와 유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처럼 聖物과 聖畵는 신자들의 신심생활의 도구인 동시에 신심생활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비록 천주교 신자로 발각되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聖物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의 때가 오면 기쁘게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였다.

한국 순교자들과 관련된 유물은 서울 절두산순교박물관, 서울 한국천주교회사연구소, 부산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3. 典禮의 土着化와 聖美術의 土着化

한국 문화와 가톨릭 복음과의 토착화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차지하게 된 위치나 중요성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영향으로 토착화가 교회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土着化’(Inculturation)라는 말은, “어떤 제도나 풍습·문물 따위가 그 지방에 뿌리를 내려 그 곳에 맞게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⁶⁾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착화’는 순수한 우리말로 신앙의 문화 안으로의 ‘뿌리내림’을 뜻한다. 이러한 뜻을 지닌 서구적인 개념의 토착화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문화융합’, ‘문화순응’ 등이 있다.²⁷⁾

한국 가톨릭교회는 1984년에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갖가지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제반 기념사업들을 추진하던 교회 지도자들은 200주년을 기념하는 동안 한국 교회의 토착화가 곧 민족의 복음화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자세의 맥락 속에서 교회의 쇄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또 타종교와 문화에 대해 토착화

부산 오륜대 한국순교자기념관 : 한국순교자들의 유품과 박해시대의 유물 및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 순교자 현양사업에 헌신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1982년에 설립하였다.

26)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p.3869.

27) 심상태, 「한국 천주교회의 토착화 전망」, 『전례·영성의 토착화』, 한국사목연구소, 1992, pp.7~32.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르치는 ‘土着化’란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나라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여러 민족들의 문화와 교회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각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가톨릭 신앙의 일치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도정으로, 이 일치 속에서 각 민족은 고유한 문화적 요소들로 치장된 외적 면모뿐만 아니라 내적 삶의 분위기도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토착화는 지역 교회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강조하여, 서구적인 조직의 서구 교회가 아닌 자주적인 교회를 인정하여 지역 교회도 토착화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일으켜 준 것이다.²⁸⁾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본 진리들도 그리스 문화의 토양 위에서 이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초기 교회 지도자들도 그리스도를 믿은 이가 차츰 늘어나자 처음부터 계시된 진리를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사목헌장 제58항에서도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백성에게 파견되었으므로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에든, 또 어떠한 특정 풍속이나 고금의 어떠한 관습에도 불가분의 배타적 관계로 얽매이지 않는다.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보편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교회는 여러 형태의 문화와 교류할 수 있으며 또 그 교류로 교회 자체도 여러 문화도 풍요로워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유입되던 시기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던 예수회 소속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 신부가 중국의 문화와 종교를 도외시한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을 지양하고 현지의 사상과 문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선교 방법을 실시하여 중국문화에 적응하던 시기였다. 그 맥을 이어받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교회의 토착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회 토착화를 비그리스도교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복음화의 사건으로 이해할 때에 토착화

28)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토착화 신학 총론』, pp.59~72.

박정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사목헌장』 제58항, p.521.

작업은 이미 교회 초창기부터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⁹⁾

한국 교회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후 1970년대부터 토착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례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토착화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게 되었다. 1984년 5월 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 1920~2005)도 <문화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화의 복음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활발히 진행하게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의 바티칸 공의회문헌 선교교령 제21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조국의 사회적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자기 민족의 전통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것과 또한 그 문화를 완성하고 보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³⁰⁾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이지만 그 어떤 형식의 전통문화라도 그 사회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나라 고유문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많은 세대에 걸쳐서 그 사회를 풍요롭게 해 주고 그 사회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이다.³¹⁾

가톨릭교회가 한국문화에 토착화 한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한국적인 형식으로 재현한다는 것이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교회의 가르침을 접목시켜 보다 차원 높은 문화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土着化’란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유성과 순수성을 손상하지 않고 인간 문화가 그리스도교에 수용됨으로써 그 문화의 참된 가치의 내적인 변모가 이루어지는 것과 여러 가지 人間文化 안에 그리스도교가 스며들어 새롭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가톨릭 미술은 천주교 전래 초기부터 聖畫像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29) 崔爽祐, 「東亞細亞에서의 教會의 土着化」. 『교회사 연구 第7輯』,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p.8.

3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선교교령」, 제21항, p.1021.

31) 윤민구, 「전례의 토착화」, 가톨릭출판사, 1990, pp.134~135.

보급도 활발하였다. 천주교 교리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聖畵를 작은 像本으로 만들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경배 대상으로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차례 박해를 거치면서 聖畵와 聖物이 탄압의 표적이 되어 거의 사라져 버리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에 가톨릭 미술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조선왕조를 배경으로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 1886년 韓·佛 수호 조약이 체결되고, 선교사들 프랑스 파리의 방전교회에 의해 포교활동이 자유롭게 시작되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그러나 전통적 한국문화와 종교사상에 대한 선교사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서구사회에서 토착화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1890년과 1892년에 준공을 본 서울 鐘峴(현: 명동)의 주교관과 中林洞聖堂, 그리고 1898년에 낙성된 명동대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이들 성당에 장식된 聖畵와 聖像들은 거의 전부가 외국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그들의 본국에서 수입한 미술품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국 미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문화가 곧 서양 문화라는 생각이 한국 가톨릭 미술의 실상으로 정착되어 버렸던 것이다.³²⁾ 이러한 상태는 신앙의 박해가 끝나고 일제 식민통치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한국교회는 내외적인 차원에서 서구교회의 축소판과 같은 외래 종교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방인 성직자들에 의해 교회생활 여러 부문에서 토착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가톨릭 미술을 일구어나가는 미술가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는 “교회는 미술가를 부른다.”라고 역설하였고, 1984년 5월 5일 한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도 「文化人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예술가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종교미술에 있어서 예술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1964년 바티칸에서는 교회미술

32) 崔奭祐, 『天主教의 初期傳播와 그 反響』, pp.109~134.

품을 소장하는 박물관과 현대종교미술관을 마련하여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가톨릭 미술인들도 교회미술을 한국적인 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이 민족의 역사, 문화, 민족성, 미의식, 지혜, 창의성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 가톨릭미술도 교회의 정착과 발전을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정신에 따라 차츰 토착화되어 한국사회에 종교미술로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³³⁾

한국 가톨릭교회는 수많은 순교선열들의 순교의 피로써 시작되고 뿌리 내린 교회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거듭되는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해 갖은 고문과 형벌에 맞서면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순교의 고통을 기꺼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다.

1984년은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이 되던 해로, 그 해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nes Paulus II)에 의해 諡聖式이 거행되어 한국 103位聖人이 탄생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文學鎭(토마스) 화백이 1977년에 제작한 <한국103位福者圖>가 시성식 제대 뒤에 전시되었다. 이 후부터 한국 聖人으로 지칭되는 聖畫像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후 자신의 신앙을 죽음으로 증명한 한국순교자들의 諡聖 경위와 殉教聖人들과 관련된 聖畫像을 소개하고자 한다.

33) 『가톨릭신문』, 2000년 10월 15일.

Ⅲ. 한국순교자 103位 諡福과 諡聖경위

초대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순교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의 진리를 증명한 증인으로 특별히 공경해 왔고, 그들의 명부와 순교 사실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한국 가톨릭교회도 신앙의 선조인 이벽을 중심으로 조선천주교회가 창설(1784년)되고 韓·佛조약으로 조선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공인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박해를 겪으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였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영광스런 103位の 聖人이 탄생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순교자 79位 시복경위

한국 가톨릭教會史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을 찾은 자주성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 자신의 신앙을 피로써 지킨 순교정신이다. 한국 순교자 79位는 기해박해(1839년/70명)와 병오박해(1846년/7명) 때 순교하여 하느님께 믿음을 굳게 지킨 순교자로서 1925년 7월 5일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諡福된 79명을 말한다.

1837년 12월 조선에 입국한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 앙베르(Imbert, 范世亨) 주교는 1838년(己亥年)말부터 박해가 일어나자 곧 순교자들의 사적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신도 체포될 것을 예상하여, 丁夏祥(바오로, 1795~1839. 9. 22), 玄敬連(1794~1839. 12. 29), 李文祐(1809~1840. 2. 1), 崔榮受(필립보), 玄錫文(가롤로, 1796~1846. 9. 19)에게 기록을 계속 하도록 임무를 맡겼다. 앙베르 주교는 9월 21일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와 함께 새남터에서 순교하였고, 임무를 맡았던 사람도 玄錫文(가롤로)만 남고 모두 순교하였다. 玄錫文(가롤로)이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교자들의 순교 행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 『己亥日記』이다. 이러한 『己亥日記』를 1845년 10월에 입국한 페레올(Jean Joseph Ferreol 高, 1808~1853) 주교가 입수하였다. 그러나 玄錫文(가롤로)이 병오박해로 순교하자 李在容(도마)에게 순교자들의 행적을 모으게 하였다. 그리고 중국(淸) 상해에 머물러 있던 崔良業(도마) 副祭에게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를 보내어 라틴어로 번역하여 파리의방전교회 신학교로 전하게 하였다. 이 자료를 받은 뤼게 주교(Mgr. Luquet)가 이를 로마 교황청에 제출하였다. 이 기록의 제목은 「1839년과 1846년에 조선왕국에서 발발한 박해 중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전기, 玄가롤로와 李도마의 수집, 베리나(Belline, 페레올 高) 주교의 프랑스 원문으로부터 최 도마 副祭 번역」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자들을 福者위에 올리는 諡福운동이 시작되었다.³⁴⁾

이러한 기록을 1847년 10월 15일 이후 쯤 받은 로마 교황 비오 9세(Pius IX)는 주교들이 정기적으로 사건 조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의 심리를 위하여서는 여기 제출된 여러 가지 기록으로 족하다는 인허를 내렸다. 그리하여 1924년 5월 9일 ‘하느님의 종’들의 순교를 인정하고 선언하는 칙령이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공식으로 발표되고, 6월 2일 모든 심사와 모든 서류를 완결하고 조선 순교자들의 諡福을 거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 해 1925년 7월 5일 79位 諡福式이 260대 교황 비오 11세(Pius XI)의 주례로 로마 성 베드로대성전에서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이 諡福式은 파리 외방전교회가 조선 순교자의 기록을 로마 교황청에 제출한 1847년 10월 이래 78년 만에 이루어진 것

34) 유홍렬, 「韓國103위聖人 諡福經緯와 그 聖畫의 유래」, 『순교지와 순교 유물 : 신유박해연구 논문집2』,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pp.398~402.

『己亥日記』 : 현석문(가롤로)이 저술한 책으로 1839~1842년 기해박해 때의 순교자들을 기록한 순교자전이다. 남교우 28명, 여교우 50명으로 대부분 서울에서 순교한 것으로 적고 있다.

페레올(Ferreol, Jean Joseph, 高, 1808~1853), 조선 제3대교구장, 1838년에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가 되었다. 1845년 10월 12일 조선에 입국하여 8년 동안 조선교회를 위하여 사목활동을 하였다.

李在容(도마) :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인 李承薰(베드로)의 손자이다.

이다.³⁵⁾ 이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순교자들을 드러내는 聖畫가 여러 점 그려졌다. 이탈리아 畫家 쥬스타니안(Giustanian)이 79명의 순교자를 그린 <영광圖>와 <소년순교자 劉大哲(베드로)圖>, <순교자 金孝任(골롬바)·金孝柱(아네스)圖>, <세프랑스신부殉教圖> 등 4점이 있다.

<표 1> 한국 순교 79位 福者 명단

| 번호 | 성명 | 세례명 | 성별 | 나이 | 신분 | 순교일 | 순교지 | 순교형 |
|----|------|--------|----|----|-----|------------|---------|------|
| 1 | 범세형 | 라우렌시오 | 남 | 43 | 주교 | 1839. 9.2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2 | 나 | 베드로 모방 | 남 | 35 | 사제 | 1839. 9.2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3 | 정 | 야고보 | 남 | 35 | 사제 | 1839. 9.2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4 | 이광현 | 아우구스티노 | 남 | 53 | 회장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5 | 권희 | 바르바라 | 여 | 46 | 부인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6 | 이 | 아가타 | 여 | 17 | 동정녀 | 1840. 1. 9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 | 남명혁 | 다미아노 | 남 | 38 | 회장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8 | 이연희 | 마리아 | 여 | 36 | 부인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 | 권득인 | 베드로 | 남 | 35 | 회장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0 | 이소사 | 아가타 | 여 | 56 | 과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1 | 김아기 | 아가타 | 여 | 66 | 과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2 | 한아기 | 바르바라 | 여 | 48 | 과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3 | 박아기 | 안나 | 여 | 57 | 부인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4 | 김업이 | 막달레나 | 여 | 53 | 과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5 | 박희순 | 루치아 | 여 | 39 | 궁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6 | 이광렬 | 요한 | 남 | 45 | 양반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7 | 이영희 | 막달레나 | 여 | 31 | 동정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8 | 허계임 | 막달레나 | 여 | 67 | 부인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9 | 이매임 | 테레사 | 여 | 52 | 부인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0 | 이정희 | 바르바라 | 여 | 41 | 과부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1 | 이 | 바르바라 | 여 | 15 | 동정녀 | 1839. 5.27 | 서울 | 옥사 |
| 22 | 김성임 | 마르타 | 여 | 53 | 과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3 | 김 | 루치아 | 여 | 22 | 동정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4 | 김장금 | 안나 | 여 | 51 | 과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5 | 김 | 로사 | 여 | 56 | 과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6 | 원귀임 | 마리아 | 여 | 22 | 동정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7 | 박후재 | 요한 | 남 | 41 | 상업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8 | 박큰아기 | 마리아 | 여 | 54 | 부인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9 | 정하상 | 바오로 | 남 | 45 | 회장 | 1839. 9.22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0 | 유진길 | 아우구스티노 | 남 | 49 | 역관 | 1839. 9.22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1 | 조신철 | 가롤로 | 남 | 45 | 마부 | 1839. 9.22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2 | 남이관 | 세바스티아노 | 남 | 60 | 회장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3 | 김제준 | 이나시오 | 남 | 44 | 회장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35)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 위원회, 『한국 가톨릭대사전 8』, 1999, pp.5329~5333.

| | | | | | | | | |
|----|-----|--------|---|----|-----|------------|---------|------|
| 34 | 김 | 올리에타 | 여 | 56 | 궁녀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5 | 전경협 | 아가타 | 여 | 53 | 궁녀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6 | 박봉손 | 막달레나 | 여 | 44 | 과부 | 1839. 9.3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7 | 홍금주 | 빠르빠뚜아 | 여 | 36 | 과부 | 1839. 9.22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8 | 김효임 | 콜롬바 | 여 | 26 | 동정녀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9 | 김효주 | 아네스 | 여 | 24 | 동정녀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40 | 최창흠 | 베드로 | 남 | 53 | 회장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41 | 조증이 | 바르바라 | 여 | 58 | 부인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42 | 한영이 | 막달레나 | 여 | 56 | 과부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43 | 권진이 | 아가타 | 여 | 21 | 부인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44 | 이경이 | 아가타 | 여 | 27 | 동정녀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45 | 현경련 | 베네딕타 | 여 | 46 | 여회장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46 | 정정혜 | 엘리사벳 | 여 | 43 | 동정녀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47 | 유소사 | 체칠리아 | 여 | 79 | 과부 | 1839.11.23 | 서울 | 옥사 |
| 48 | 고순이 | 바르바라 | 여 | 42 | 부인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49 | 이영덕 | 막달레나 | 여 | 28 | 동정녀 | 1839.12.29 | 서울서소문밖 | 참수 |
| 50 | 이인덕 | 마리아 | 여 | 22 | 동정녀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51 | 박종원 | 아우구스티노 | 남 | 48 | 회장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52 | 홍병주 | 베드로 | 남 | 42 | 회장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53 | 홍영주 | 바오로 | 남 | 39 | 회장 | 1840. 2. 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54 | 손소벽 | 막달레나 | 여 | 39 | 부인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55 | 이문우 | 요한 | 남 | 31 | 회장 | 1840. 2. 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56 | 최영이 | 바르바라 | 여 | 22 | 부인 | 1840. 2. 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57 | 허 협 | 바오로 | 남 | 45 | 군인 | 1840. 1.30 | 서울 포청옥 | 장사 |
| 58 | 이호영 | 베드로 | 남 | 36 | 회장 | 1838.11.25 | 서울 | 옥사 |
| 59 | 장성집 | 요셉 | 남 | 54 | 환부 | 1839. 5.26 | 서울 포청옥 | 옥사 |
| 60 | 정국보 | 프로타시오 | 남 | 41 | 양반 | 1839. 5.20 | 서울 포청옥 | 장사 |
| 61 | 유대철 | 베드로 | 남 | 13 | 소년 | 1839.10.21 | 서울 포청옥 | 교수 |
| 62 | 김 | 바르바라 | 여 | 35 | 과부 | 1839. 5.27 | 서울 | 옥사 |
| 63 | 김 | 루치아 | 여 | 71 | 과부 | 1839.9. | 서울 | 옥사 |
| 64 | 이 | 카타리나 | 여 | 57 | 과부 | 1839.9. | 서울 | 옥사 |
| 65 | 조 | 막달레나 | 여 | 33 | 동정녀 | 1839.9. | 서울 | 옥사 |
| 66 | 최경환 | 프란치스코 | 남 | 35 | 회장 | 1839. 9.12 | 서울 | 옥사 |
| 67 | 정화경 | 안드레아 | 남 | 33 | 회장 | 1840. 1.23 | 서울 포청옥 | 교수 |
| 68 | 김 | 테레사 | 여 | 44 | 과부 | 1840. 1. 9 | 서울 포청옥 | 교수 |
| 69 | 민극가 | 스테파노 | 남 | 53 | 회장 | 1840. 1.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0 | 김성우 | 안토니오 | 남 | 47 | 회장 | 1841. 4.29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1 | 김대건 | 안드레아 | 남 | 26 | 사제 | 1846. 9.16 | 서울 새남티 | 군문효수 |
| 72 | 현석문 | 가롤로 | 남 | 50 | 회장 | 1846. 9.19 | 서울 새남티 | 군문효수 |
| 73 | 남경문 | 베드로 | 남 | 40 | 회장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4 | 한이형 | 라우렌시오 | 남 | 48 | 회장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5 | 임치백 | 요셉 | 남 | 43 | 사공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6 | 김임이 | 테레사 | 여 | 36 | 동정녀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7 | 이간난 | 아가타 | 여 | 33 | 과부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8 | 우술임 | 수산나 | 여 | 44 | 과부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9 | 정철엽 | 카타리나 | 여 | 30 | 하녀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2. 한국 순교자 24位 시복경위

한국순교자 24位는 丙寅大迫害 때 병인년(1866) 첫 해에 순교한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순교자 24명을 말한다. 조선교구 제8대교구장 뫼뮈텔(Mutel Gustave Charles Marie, 閔德孝, 1854~1933) 주교가 諡福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조선정부는 일본과 수호통상조약(1876년)을 맺어 문호개방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고, 프랑스와는 韓·佛조약(1886년)으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었다.³⁶⁾

뫼뮈텔 주교는 르장드르(Le Gendre, 崔昌根, 1866~1928) 신부에게 병인년에 순교한 순교자들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국적으로 수집하게 하여 1895년 『致命日記』를 출판하였다. 『致命日記』에는 서울과 전국 8道の 순교자 877명의 내역이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서문에 “순교자들을 聖人品에 올리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뫼뮈텔 주교는 달레(Dallet Claude Charles, 1829~1878)

36) 丙寅大박해 : 1866년 1월부터 6년 동안에 걸쳐 일어난 박해로 파리 외방전교회 7명의 성직자와 1만 여명의 교우가 순교하여 ‘병인대박해’라고 한다.

뫼뮈텔(Mutel Gustave Charles Marie, 閔德孝, 1854~1933) 주교 : 1873년 10월 4일 파리 외방전교회 입회한 후 1877년 2월 4일 사제서품을 받았다. 1880년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됨과 동시에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수속의 임무를 부여 받았다. 1885년 초 신학교의 지도자로 소환되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1890년 8월에 조선교구 제8대 주교로 임명되어 9월 21일 파리에서 主教 成聖式을 갖고 1891년 2월 23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주교 문장에 “활짝 피어라 순교의 꽃이여”라는 사목 표어를 넣었다.

르장드르(Le Gendre, 崔昌根, 1866~1928) 신부 : 1889년 6월 29일 사제서품을 받고 1890년 9월 21일 파리 외방전교회 입회하였다. 1891년 한국에 입국하여 사목활동을 하다가 1898년 시복조사를 하였다. 1919년 귀국하였다가 1921년 다시 돌아와서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

달레(Dallet, Claude Charles, 1829~1878) 신부 : 1850년 10월 5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 1852년 6월 5일 사제서품을 받고 인도 마이수르(Maissour) 지방에서 포교에 전념하면서 저술활동을 하였다. 조선에서 활동하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보낸 기초 자료와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의 비망기, 보고 및 편지들을 중심으로 조선 교회사의 편찬에 착수하여 1874년 《조선천주교회사 상·하》(Histoire de L'Eglise de Coree)를 출판하였다.

『致命日記』 : 1895년 뫼뮈텔 주교가 펴낸 한글 활판본으로 1866~1876년 사이에 순교한 순교자 877명의 명단과 그 약전을 담은 책이다. 각 순교자마다 번호를 붙여 출생지, 신앙상태, 체포일과 장소, 순교일과 장소, 나이에 관한 지역별 구분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부의 『朝鮮教會史』와 『致命日記』의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병인순교자 26位의 시복청원서 제출허가를 1918년에 교황 베네딕트 15세(Benedictus XV)로부터 받았다. 뫼텔 주교는 순교 사유를 밝히기 위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1923년 朝鮮王宮의 귀중문서 보관소인 奎章閣이 개방되어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左右捕盜廳謄錄』 등에서 순교자들과 관계된 기사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달레의 『朝鮮教會史』와 발췌 기사를 검토하여 교황청에 보냈지만 병인 순교자들의 시복판정은 30년 동안이나 침묵한 채로 열리지 않았다.

그 후 1952년 3월 2일에 교황 비오 12세(Pius XII)는 병인 순교자들의 입증 절차를 인정하는 유효령을 반포하고 1968년 봄에 병인 순교자 24位에게 ‘可敬者’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칙령을 반포하였다. 그 해 10월 6일에 金鑄煥(스테파노) 추기경과 한국주교단 그리고 평신도 대표 등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의 주례로 뜻 깊은 한국 순교자 24位 시복식이 로마 성 베드로대성당에서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영광스러운 諡福式 진행과정이 가톨릭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시복식이 거행되는 성베드로대성전의 제대와 아프스(성당의 맨 안쪽 돌출한 반원형의 부분)는 웅장하게 꾸며졌는데 ‘성베드로의좌’ 위에는 새 福者의 공경을 나타내는 그림을 걸어놓고 휘장으로 덮어두었다. 벽기둥에는 諡福을 위해 인정된 두 가지 기적을 그린 깃발이, 또한 대성전 건물정면 중앙에는 큰 福者의 그림이 각각 걸려 있다. 오전10시 정각 禮部聖省추기경들이 입장하여 복음 성경 쪽의 제단 앞 안쪽의 의자에 자리를 잡고 추기경 뒤에는 대주교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이 배석하며 맞은편에는 성베드로대성전의 추기경과 대성전 참사회 전원이 자리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저명한 사람 특히 새 복자의 친척이나 그들 수도회의 수도자들을 따로 마련된 특별석에 자리를 잡는다. 이어 시복수속을 청원한 이가 禮部聖省의 비서관을 대등하고 禮部聖省장관 앞으로 나아가 시복교서를 바치며 그 공포를 명해질 것을 청하면 禮部聖省장관은 이에 동의하고 대성전안에서 시복교서를 반포할 허락을 얻기 위해 비서관을 대성전추기경에게 보내어 그의 허락을 구한다. 허락이 내리면 대성전참사회원 한 사람이 작은 강대에 올라가서 새 福者에 대한 찬사가

포함된 교서를 낭독하고 새 福者가 福者로 공경 받게 된 것을 선언한다.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대성전의 종이 울리고 새 福者の 그림을 덮었던 휘장이 벗겨지며 새 福者の 遺骸가 제대에 顯示된 가운데 미사가 시작된다. 붉은 감빠를 입은 미사 집전자는 새 福者の 그림과 유해를 향해 향을 피운 다음, 제의를 입고 대미사를 드린다. 미사가 끝나면 청원인 이 추기경들과 고위성직자 및 저명인사들에게 새 福者の 傳記와 기념메달을 나눠주고 像本과 傳記는 신자들에게도 배부된다.”³⁷⁾ 諡福式에 聖畫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 할 수 있다.

諡福式 제대 위에 걸렸던 <24位福者圖>는 서울로 가져와서 切頭山성당에 모셨다고 하나 확인 할 수 없었다. 줄리오 단테(Giulio Dante)가 지은 『한국 신앙의 씨앗들/병인(1866~1867)순교복자 24位 전기』 표지에 聖畫가 소개되어 있다. 24位 諡福式을 기념하여 丁昌燮(암브로시오) 화백이 그린 <순교자(별칭: 영광)圖>는 서울 절두산순교박물관에 설치하였다.³⁸⁾

37) 『가톨릭 신문』, 1968년 10월 6일.

38) 柳洪烈, 「韓國103위聖人 諡福經緯와 그 聖畫의 유래」, 『순교지와 순교 유물 : 신유박해연구 논문집2』.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pp.402~405.

金壽煥(스테파노, 1922~) : 서울 대교구장. 대주교. 추기경. 1951년 9월 15일 사제서품. 1966년 2월 15일 마산교구장으로 임명되어 5월 29일 주교로 되고, 1968년 서울대교구장 노기남(바오로) 대주교가 사임하자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임되었고 이듬해 3월 28일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Giulio Dante : 한국순교자들의 시성시복을 위하여 활동한 변호사이며, 『한국 신앙의 씨앗들—병인(1866~1867)순교복자24位전기』의 저자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년.

<표 2>

한국24位 福者 명단

| 번호 | 성명 | 세례명 | 성별 | 나이 | 신분 | 순교일 | 순교지 | 순교형 |
|----|-----|--------|----|----|----|------------|---------|------|
| 1 | 장 | 시메온 | 남 | 52 | 주교 | 1866. 3. 7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2 | 백 | 유스토 | 남 | 28 | 사제 | 1866. 3. 7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3 | 서 | 루도비코 | 남 | 26 | 사제 | 1866. 3. 7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4 | 김 | 헨리코 도리 | 남 | 27 | 사제 | 1866. 3. 7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5 | 정의배 | 마르코 | 남 | 72 | 회장 | 1866. 3.1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6 | 우세영 | 알렉시오 | 남 | 22 | 진사 | 1866. 3.1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7 | 남중삼 | 요한 | 남 | 50 | 승지 | 1866. 3. 7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8 | 전장운 | 요한 | 남 | 56 | 회장 | 1866. 3. 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 | 최형 | 베드로 | 남 | 53 | 출판 | 1866. 3. 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0 | 안 | 안토니오 | 남 | 48 | 주교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군문효수 |
| 11 | 오 | 베드로 | 남 | 29 | 사제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군문효수 |
| 12 | 민 | 루가 | 남 | 30 | 사제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군문효수 |
| 13 | 황석두 | 루가 | 남 | 54 | 회장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참수 |
| 14 | 장주기 | 요셉 | 남 | 64 | 회장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참수 |
| 15 | 유정률 | 베드로 | 남 | 30 | 상업 | 1866. 2.17 | 평양 | 장사 |
| 16 | 손자선 | 토마 | 남 | 23 | 농업 | 1866. 5.18 | 공주 공주옥 | 교수 |
| 17 | 조화서 | 베드로 | 남 | 52 | 농업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18 | 이명서 | 베드로 | 남 | 46 | 농업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19 | 정원지 | 베드로 | 남 | 21 | 농업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20 | 정문호 | 바르톨로메오 | 남 | 66 | 원님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21 | 손선지 | 베드로 | 남 | 47 | 회장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22 | 한재권 | 요셉 | 남 | 31 | 회장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23 | 조운호 | 요셉 | 남 | 19 | 농업 | 1866.12.23 | 전주 전주서 | 장사 |
| 24 | 이윤일 | 요한 | 남 | 45 | 회장 | 1867. 1.21 | 대구 판덕정 | 참수 |

3. 한국 순교자 103位 시성경위

한국 가톨릭교회가 103位 聖人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奎章閣에 보관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左右捕盜廳謄錄』 등 정부문서가 순교자들의 순교 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79位 福者와 24位 福者를 합한 103位 福者의 諡聖수속은 1978년 4월 13일 교황청 諡聖省에 정식으로 접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는 1983년 6월 9일 諡聖에 필요한 기적심사를 관면한 후 9월 27일 諡聖을 최종 승

인하였다.³⁹⁾

한국순교복자 103명의 諡聖을 확정한 추기경회의에서 시성시복 변호사 줄리오 단테(Giulio Dante)는 한국순교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장기간의 무서운 옥고도, 잔인한 고문도, 목마름과 굶주림도, 무서운 형벌도, 모성애도, 자녀의 효성심도, 부부의 사랑도, 남녀노소를 막론한 이 순교자들의 확고 부동함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굴복시키지 못한 것은 세상의 승리자요 참된 생명의 길인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순교자들을 낳은 한국 교회는 더욱이 한국 교회 창설 200주년을 목적에 두고 이 기회에 그들의 사랑하는 영웅들이 聖人으로 공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⁴⁰⁾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이 되던 1984년 5월 6일에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광장에 100만 여명의 교우가 모인 가운데 諡聖式을 거행하여 103명의 聖人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文學鎭(토마스) 화백이 1977년에 79位福者와 24位福者를 함께 그린 <한국103位福者圖>를 諡聖 기념 聖畫로 공인하고 諡聖式 이후부터 <한국103位聖人圖>로 명칭이 바뀌었다.

39) 柳洪烈, 「韓國103위聖人 諡福經緯와 그 聖畫의 유래」, 『순교지와 순교 유물 : 신유박해연구논문집2』,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pp.402~405.

4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주년 기념의 전모』, 한국천주교회200주년보도자료 1, 1984. p.57.
Giulio Dante : 한국순교자들의 시성시복을 위하여 활동한 변호사이며, 『한국 신앙의 씨앗들—병인(1866~1867)순교복자 24位 전기』의 저자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1977년 발행하였다.

IV. 韓國 가톨릭 殉敎圖의 土着化 과정

가톨릭 聖畵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聖母 마리아를 주제로 그린 것이 많지만, 聖經 속에 등장하는 거룩한 인물 또는 敎회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제작된 聖畵는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 존재의 영원의 모습을 보여 주며 敎리적 특성과 구원의 사실을 제시한다. 신자들은 작가에 의해서 다양하게 제작된 聖畵 그 자체를 흠송 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靈感으로 표현된 聖人들의 삶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본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聖畵를 통하여 그 주제를 알 수 있고 화가가 나타낸 생각이나 느낌을 읽을 수 있다. 聖畵는 신자들에게 시각적으로 敎리를 전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敎회 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그림은 검열을 받도록 敎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聖畵는 주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畵, 聖母畵, 聖人畵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聖人畵 중에서 殉敎聖人들을 주제로 한 聖畵를 따로 묶어 殉敎圖로 정의하고 토착화된 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殉敎圖의 주제가 되는 순교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는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진리성과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행동을 뜻한다. 그러므로 순교는 최상의 은총으로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가장 그리스도를 가까이 닮고 그분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최고의 聖性에 이르는 길이다. 한국 103位 聖人들은 그러한 삶으로서 신앙을 증거 하였고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렸다. 순교자들과 관련된 殉敎圖가 전달해 주는 의미를 작품 안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도판12> 성 베드로

성 다테오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르타

殉教圖는 순교를 상징하는 특징과 도상을 다양하게 묘사하여 그 의미를 전달한다. 죽음의 승리와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월계관, 칼, 고문을 가한 여러 형태의 형구들, 순교 장소, 피를 상징하는 붉은 색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도판12>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이나 형상에 대하여 설명할 때 듣는 이가 그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그림이나 자료를 보여 주면 즉시 이해한다. 그러므로 殉教圖도 교회내의 역사적인 사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들의 생애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기 구분을 할 때에는 한 국가의 사회적인 변동과 함께 변화되는 문화의 차이에서 변환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톨릭 회화의 전반적인 작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殉教圖가 제작된 배경을 중심으로 3시기로 구분하여 殉教圖 안에서 토착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교회창설(1784년)후부터 諡聖式(1984년)까지 3시기로 구분하는 이유는 한국 가톨릭교회에 聖인이 탄생하기까지,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공적으로 선포한 예식이 3차례 있었다. 諡福式 2차례와 諡聖式 1차례로,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거행된 79位 諡福式(1925년 7월 5일)과 24位 諡福式(1968년 10월 6일) 그리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된 諡聖式(1984년 5월 4일)이다. 한국 순교자들은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세계 가톨릭교회의 聖人으로, 또 聖畫의 주제가 되는 주인공으로 한국 가톨릭미술에 새로운 방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殉教圖는

시기 절차에 따라 변화되지만 교회의 공인된 聖畵로서 자랑스러운 순교선열들의 삶을 모든 신자들에게 알리고 기리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殉教圖는 群像으로 그린 것과 金大建(안드레아) 신부, 金孝任(골롬바)과 金孝柱(아네스) 자매, 聖母子와 순교자를 주제로 그린 작품도 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첫 殉教圖는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외국 화가가 제작하였고, 諡福式 이후에는 한국 화가들의 작품이 나타난다.⁴¹⁾

1784년부터 1984년까지 3시기를 구분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기 1784년~1925년 7월 5일 조선교회 창설부터 79位 시복식까지

제2기 1926년~1968년 10월 6일 79位 시복식 후부터 24位 시복식까지

제3기 1969년~1984년 5월 4일 24位 시복식 후부터 103位 시성식까지

1. 제1기 : 조선교회 창설 후부터 한국 79位 시복식까지 1784년~1925년 7월 5일까지

제1기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조선교회가 창설된 1784년부터 1925년 7월 5일 諡福式까지를 정하였다. 1920년 이전에는 한국 가톨릭 畵家의 활동이 거의 없던 시기로 초기의 순교자와 관련된 작품은 외국 畵家에 의해 제작되었다. 한국 畵家의 작품은 張勃(루도비코, 1901~2001) 화백이 그린 <加敬者 金大建(안드레아)圖>가 1점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聖畵가 들어온 시초가 되는 시기는 문헌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1645년 昭顯世子가 아담 샬(Joannes Adam Schall) 신부로부터 天主像 한 폭을 가져온 때로 본다. 그러나 昭顯世子의 죽음으로 천주교를 알릴 수 있는 聖畵는 소각되어 버렸다. 그 후, 1784년 초에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李承薰(베드로) 이 귀국

41) 기해박해(1839년/70명)와 병오박해(1846년/9명) 때 순교한 79명이 1925년 7월 5일에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諡福되었다.

병인박해(1866년) 때 순교한 24명은 1968년 10월 6일에 같은 장소에서 諡福되었다. 그 후 79명과 24명을 합한 103명의 福者는 '한국천주교회창설 200주년'을 맞이하여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가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집전한 諡福式에서 聖人이 되었다.

하면서 천주교 서적과 함께 聖畵도 갖고 오게 된다. 李承薰(베드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李櫟(세자요한)을 중심으로 明禮坊(현: 명동성당, 첫 순교자 金範禹(토마스)의 집)에서 신자공동체가 형성되어 조선교회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1785년 봄, 함께 모여 종교적 모임을 갖던 중 우연히 적발되어 천주교 서적과 聖畵像이 압수되었고, 이 사건의 발단으로 1886년 韓佛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100여년 동안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여러 차례의 박해를 겪으면서 聖畵와 聖物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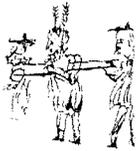
그 당시 신자들이 간직하고 있던 聖畵는 대부분 중국에서 갖고 온 像本이거나 李喜英(루가)을 비롯한 신자들이 함께 모여 모사한 것 이었다. 畵工이었던 李喜英(루가)도 자신이 그린 聖畵를 黃嗣永(알렉산테르)에게 보낸 사실이 발각되자 자복하여 1801년에 순교하였고, 그와 함께 聖畵를 그린 신자들도 순교함으로서 그 맥이 끊어졌다. 그 당시 李喜英(루가)은 畵工으로서 오늘날의 聖畵家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까지 그가 그린 聖畵가 한 점도 전해지지 않아 聖畵家로서 작품을 확인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후 李喜英(루가)이 순교한지 45년이 될 쯤, 聖畵는 아니지만 순교자들과 관련된 귀중한 插畵가 金大建(안드레아, 1821~1846) 신부가 리보아(Libois Napoleon, 1805~1872) 신부에게 보낸 1845년 7월 23일자 서한에 동봉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 실려 있다. 순교자들이 당하는 형벌의 현장과 새남터 형장에서 군문효수로 처형 받기 전에 형장으로 가는 성직자의 모습을 간단한 선묘로 묘사하고 설명하였다.<도판13> 주뢰질, 치도곤, 주장질, 학춤, 삼모장, 툽질 등의 형벌이 서양화법 형식으로 입체감이 있고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뒤에 <도판14~19> 세 성직자의 처형장면을 金大建(안드레아) 신부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다.⁴²⁾

42)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pp.271~273.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친필서한과 함께 동봉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는 1845년 副祭(사제가 되기 전에 받는 품)로서 귀국해 서울 돌우물골에 머물면서 작성한 것이다. 대부분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다. 1844년 12월 15일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아홉 번째 편지는 한문으로, 마지막 21번째 편지는 「조선 교우들에게 보낸 마지막 회유문」은 한글로 작성하였다.

… “신부님들이 의금부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군인들이 짚으로 만든 바구니에 올려놓고 노들(현 : 새남터)까지 운반해 갔습니다. 그때 대장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듯이 무장한 군인들 128명의 부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 백성들이 운집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 신부님들의 양팔 아래에 긴 막대기를 집어넣고, 두 귀에는 화살을 꽂고, 얼굴에는 흰가루를 뿌리고서 떠메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사형의 이유를 읽을 수 있도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 휘광이들이 신부님들을 내려놓고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려진 머리들을 대장에게 가져가 바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도판13>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 형장으로 가는 신부의 모습을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그린 것이다.



<도판14> 가위 주뢰



<도판15> 줄 주뢰



<도판16> 팔 주뢰



<도판17> 주장질



<도판18> 학춤



<도판19> 툽질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 그린 삽화】

1. 주뢰(周牢)에는 가위 주뢰, 줄 주뢰, 팔 주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 ① 가위 주뢰 : 두 무릎과 발목을 동시에 꿰뚫은 다음,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끝을 반대로 틀면 그림과 같이 활처럼 휘다.
 - ② 줄 주뢰 : 발목을 묶고 굵다란 나무를 정강이 사이에 끼우고 굵은 줄로 넓적다리를 엇갈리게 묶은 다음, 포졸들이 양쪽에서 힘껏 잡아당기는 것이다.
 - ③ 팔 주뢰 : 발목을 엇갈리게 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두 팔을 어깨가 맞닿도록 뒤로 묶은 다음 나무를 팔 속에 똑바로 세운다. 형리가 숙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가 단번에 부러지지만 숙달된 형리가 이 벌을 줄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가 활처럼 휘다.
2. 치도곤(治盜棍)은 참나무로 만든 형벌 도구로 길이는 손가락 세 개 정도를 합친 굵기로 넓적다리를 뒤에서 때리면 뼈까지 부러진다.
3. 주장질(朱杖)은 팔과 머리털을 뒤에서 엇갈리게 세게 묶고 사름과리 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양쪽에서 포졸들이 다리를 두들겨 패는 형벌이다.
4. 학춤은 양팔을 뒤로 엇갈리게 하여 묶어 높이 매달아 놓고 양쪽에서 때리는 형벌이다.
5. 삼모장은 나무로 만든 칼이나 도끼(곡괭이)를 다릴 부분의 살집을 떠내는 것이다.
6. 툽질은 털로 권 실(줄)로 다리를 돌려 감고 양쪽에서 당겼다 놓았다 하는 형벌로 살이 찢어진다.

1836년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한불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박해를 겪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선교사들은 1942년에 조선대목구를 한국인 盧基南(바오로) 주교에서 인계하고, 1944년부터는 사목활동의 책무를 점차 한국 신부들에게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해방 전까지 한국 신부도 부족 하였을 뿐 아니라 가톨릭 畫家도 등장하지 않아 토착화에 관하여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파리 외방선교사들의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서구교회의 것을 그대로 옮겨와 고딕 양식으로 明洞聖堂(1898년)과 主教館(1890년) 그리고 中林洞聖堂(1892년)을 세우고, 본국에서 수입한 聖畫와 聖像들을 설치하였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첫 聖畫家로 알려진 雨石 張勃(루도비코) 화백을 중심으로 1920년 이후부터 가톨릭미술가들의 활동이 전개된다.

諡福式 기념으로 제작된 殉教圖는 이탈리아 畫家 쥬스타니안(Giustanian)의 작품 <한국79位福者畫> · <소년순교자 유대철(베드로)圖> · <순교자 김효임(골롬바) · 김효주(아네스)圖> · <세 프랑스신부의 殉教圖> 등 3점이 있다.

張勃(루도비코) 화백의 작품은 1920년에 그린 <可敬者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 1점이 있다.

각 시기별로 작품을 소개 할 때에는 먼저 79位福者圖, 24位福者圖, 103位聖人圖를 연도별로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작품의 제작년도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표 3> 제 1시기의 작품

| 작 가 | 작 품 명 | 제작년도 | 재 료 | 작품크기 | 소장처 |
|----------|---------------------|------|-------|------|-----|
| 쥬스타니안 | 영광圖 | 1925 | 캔버스유채 | | 미상 |
| 쥬스타니안 | 79位福者圖 | 1925 | 캔버스유채 | | 미상 |
| 쥬스타니안 | 소년순교자 유대철(베드로)圖 | 1925 | 캔버스유채 | | 미상 |
| 쥬스타니안 | 순교자 김효임(골롬바) · 아네스圖 | 1925 | 캔버스유채 | | 미상 |
| 쥬스타니안 | 세 프랑스 신부 순교圖 | 1925 | 캔버스유채 | | 미상 |
| 장발(루도비코) | 加敬者 김대건(안드레아)圖 | 1920 | 캔버스유채 | | 미상 |

(1) <영광圖> <도판21>



<도판20> 경향잡지
1925년 9월 15일



<도판21> Giustanian, <영광圖>, 1925년, 캔버스 유채, 미상



<도판22> <두성인들圖>, 9세기,
35.5×30.5 cm, 러시아



<도판23> Angelico Fra, <성모대관圖>, 1428년경,
목판에 템페라, 112×114 cm, 피렌체 우피치미술관

<영광圖>는 한국 순교자들을 주제로 그린 첫 聖畵이며 殉教圖이다.<도판21> 이탈리아 화가 지우스타니안(Giustanian)이 그린 聖畵로 한국 가톨릭教會史 안에서는 참으로 소중한 귀한 작품이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79명이 福者品에 오르는 것을 기념으로 제작하여 1925년 7월 5일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된 '한국 79位 福者 諡福式 미사' 때 제대 위에 걸렸던 작품이다.

1925년 9월호 경향잡지에 “시복일에 베드로대성당 성베드로御座 제대 위에 걸어 놓았던 七十九위 치명자성상”이라는 글과 함께 聖畵가 소개되어 있다.<도판20> <영광圖>와 함께 실린 그림은 <소년순교자 유대철(베드로)圖>와 <순교자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이다. 세 점의 작품이 鄭淳在 신부가 엮은 『寫眞으로 보는 舊韓末』과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1860년대부터 1939년까지’의 사진을 묶어 기념화보집으로 발행한 『빛·믿음·흔적』에 실려 있다.⁴³⁾

로마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거행되는 한국 24位福者 諡福式(1938년 10월 8일)을 앞두고, 1925년에 거행된 79位 시복식장을 장식한 聖畵에 대한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여기에 작품을 제작한 畵家의 이름이 적혀 있다. “79位 시복식 때의 대성당은 어떻게 꾸며졌었나? 먼저 성당 門樓에는 7m 사방의 79位 초상화가 걸려졌다. 그리고 대성당 정문 위에는 범 주교, 정 신부, 나 신부의 초상화가 걸려지고, 제대 좌우 기둥에는 골롬바와 유 베드로 대철의 순교 및 고문당하는 그림이 걸렸었다. 그리고 대제대 위에는 <영광>이라는 순교자 전체의 큰 그림이 걸려지니, 이는 모두 이태리의 「쥬스타니아니」 교수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보면, 성당 입구에서부터 대제대 위의 영광의 그림까지 모두 다섯 폭의 그림과 초상화가 걸려진 셈이다. 이번 시복식에는 역시 그 때와 같이 그림이 걸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인사에 의해 그려진 그림은 없다. 성직자들의 초상화는 전부 있으나, 한국 사람 가운데에서는 남종삼(요한)의 초상화 하나가 가까스로 되어 있을 뿐이니,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인지 궁금스럽다.”고 끝을 맺었다.

諡福式에 걸렸던 세 작품은 같은 문양의 액자에 담겨져 있는데 <영광圖>를 장식한 액자 테두리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聖畵와 더불어 글에서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월계관을 받으시는 순교선열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43) 京城主教 민 아오스당, 『경향잡지』 제19권, 1925년 9월 15일, p.385.

엄수정, 『빛·믿음·흔적 / 한국교회사연구소설립 40주년기념화보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pp.260~261. 1860년부터 1939년 까지 한국가톨릭교회사와 관련된 사진이 실려 있다.

金昌文·鄭宰善, 『韓國가톨릭 어제와 오늘』, 가톨릭코리아 社, 1964년 초판.

鄭淳在, 『寫眞으로 보는 舊韓末(1880~1920)』, 每日觀光文化社, 1980, pp.97~99.

“오! 한국이여, 복된 합창대에 합해진 순교자들이여, 당신들은 하늘나라에서 뛰어난 화관을 얻었도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찬양하나이다.” (“O. COREANI. MARTYRES. CHORIS. BEATIS. ADDITI. SALVETE. IN. ARCE. SIDERVM. DIGNA. POTITI. LAVREA”) <액자 테두리에 쓰인 글>

79位福者 諡福式 미사 때 제대 위에 걸렸던 <영광圖>의 유래에 대하여 韓國史學者 柳洪烈(라우렌시오, 1911~1995) 선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작품은 “諡福式을 기념하기 위하여 파리 외방전교회의 지도하에 순교한 프랑스 세 성직자를 가운데 모시고 그려진 79位 福者の 採色聖畵는 諡聖式場인 성 베드로대성전의 제대 위에 게양되었다가, 그 후 서울 명동 주교좌 聖臺의 동쪽 壁上에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⁴⁴⁾ 그러나 현재 명동성당 동쪽 벽에 걸린 <79位福者圖>는 이탈리아 畵家 쥬스타니안(Giustanian)이 1926년에 제작한 작품이다. 화면의 구성과 등장인물의 모습이 비슷하여 동일 화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지만 諡福式제대 위에 걸렸던 <79位福者圖>는 아니다.⁴⁵⁾

기독교 美術家 이연호 선생은 盧基南(바오로) 주교로부터 “1925년 뮈텔(Mutel, Gustave Charles Marie, 閔德孝, 1854~1933) 주교께서 제8대 교구장으로 재임할 시절에 파리에서 외국인이 제작한 것”이라고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⁴⁶⁾ 이 작품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1925년부터 교회에서 발행한 잡지 및 여러 문헌

44) 유흥렬 저, 「韓國103위聖人 諡福經緯와 그 聖畵의 유래」, 『순교지와 순교 유물 : 신유박해 연구논문집2』.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p.402.

45) 정진석 발행, 『명동성당』, 가톨릭출판사,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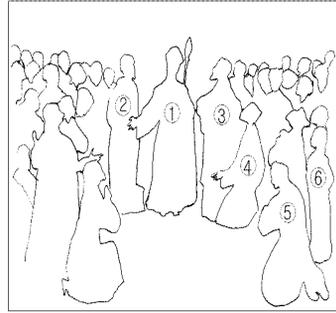
46) 이연호, 「한국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 『기독교미술의 원리와 과제』, 통합연구학회, 1993, p.156.

뮈텔(Mutel, Gustave Charles Marie, 閔德孝, 1854~1933) 주교 : 파리 외방전교회에 1873년 10월11일 입회. 1877년 2월 24일 사제서품 후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었지만, 병인 박해로 인하여 입국하지 못하고 만주에 머무르면서 전교활동 준비와 조선에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정리하였다. 일본 순교자들의 시복수속 등을 견학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후에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의 시복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885년 파리 외방전교회신학교의 지도자로 임명되어 파리로 소환되었으나 한불조약(1886년 6월 4일) 후, 1890년 8월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891년 2월에 재입국하였다. 일제하의 탄압 속에서도 교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3년 1월 23일 서울에서 생을 마쳤다.

들을 살펴보고, 여러 곳에 문의해 알아보았지만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畫家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작품의 소재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작품의 구성 인원은 79명으로 1839년 9월 21일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한 프랑스 성직자 앵베르 范(Imbert Laurence Marie Joseph, 范世亨, 1796~1839) 주교, 모방 羅(Manbant Peter Philibert, 羅伯多祿, 1803~1839) 신부, 샤스탕 鄭(Chastan Jacobus Honore, 鄭牙各伯, 1803~1839) 신부 등 3명과 한국인 金大建(안드레아, 1821~1846) 신부, 남교우 28명, 여교우 47명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의상과 머리모양새로 신분과 국적을 파악 할 수 있다. 화면 중앙에 갑바와 주교관을 착용하고 사목지팡이를 쥐고 있는 분은 조선 제2대 교구장 앵베르 범 주교①이다.⁴⁷⁾



<도판24> Giustarian <영광圖>의 배치도

47) 한국 103位 聖人에 포함된 파리 외방전교회 성직자들은 한국 姓을 함께 사용한다.

앵베르 范(Imbert Laurence Marie Joseph, 范世亨, 1796~1839) 주교 : 파리 외방전교회. 1819년 12월 18일 사제서품을 받고, 중국 사천에서 12년 이상 선교하였다. 1837년 조선 제2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2월 17일 입국하여 3년 동안 활동하다 1839년 9월 21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모방 羅(Manbant Peter Philibert, 羅伯多祿, 1803~1839) 신부 : 파리 외방전교회. 1829년 5월 13일 사제서품을 받았다. 중국 사천(四川) 교구선교사로 임명되었지만 도중에서 조선 초대교구장 브뤼기에르(Bruguiere, 蘇) 주교를 만나 조선 선교사가 되기를 자원하여, 1836년 초 파리 외방전교회원으로서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이다. 한국인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김대건(안드레아), 최양업(토마스), 최방제(프란치스코) 등 세 소년을 마카오로 유학 보냈다. 1839년 9월 21일 군문효수형으로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샤스탕 鄭(Chastan Jacobus Honore, 鄭牙各伯, 1803~1839) 신부 : 1823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서품을 받고, 1826년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다.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말레이 반도의 페낭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1836년 말 조선에 입국하였다. 1839년 9월 21일 군문효수형으로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金大建(안드레아, 1821~1846) 신부 : 최초의 한국인 신부.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 태생. 신앙 깊은 순교자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16세(1836년) 때 모방 나 신부에 의해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 갔다. 페레올 고 주교로부터 1844년 12월 15일 부제품과 1845년 8월 17일 사제서품을 받아 조선교회의 첫 사제가 되었다.

갑바(cope) : 특별한 종교 儀式 때 주교나 사제가 입는 소매 없는 외투 형태의 긴 옷.

主教冠 : 교황, 추기경, 대수도원장, 주교가 儀式 때에 착용하는 모자.

領帶 : 성직자가 성무 집행의 표시로 목과 어깨에 걸쳐 무릎까지 내려오는 좁고 긴 띠를 말한다. 장백의나 증백의 또는 수도자의 겉옷 위에 착용한다.

앵베르 범 주교를 중심으로 형벌 도구(큰 칼, 곤장, 칼)를 앞 쪽에 두고 왼쪽은 여교우, 오른쪽은 남교우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앵베르 범 주교 左②·右③로 두 분의 서양 신부가 위치해 있지만 어느 분이 모방 신부인지 샤스탕 신부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세 신부가 순교하였으므로 상투를 올린 옆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영대를 어깨에 메고 팔을 펼친 분이 김대건(안드레아) 신부④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아래에 금관을 쓰고 궁중 예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은 승지의 관직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벼슬을 버린 남종삼(요한, 1817~1866)⑤이다. 그 옆으로 머리를 땅은 뒷모습의 소녀는 15세에 순교한 이 바르바라(1825~1839)⑥이며, 바로 앞의 옆모습의 소년은 79명의 순교자 중 가장 어린 나이로 13세에 순교한 유대철(베드로, 1826~1839)이다. 왼쪽 맨 아래 한복을 입은 여인은 무릎을 꿇고 손을 합창한 채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고 있다. 하늘에는 천상 聖인들이 구름 위에서 순교자들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옹위하고 있다. 날개를 활짝 편 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각 구도로 ‘개선’과 ‘승리’ 그리고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palma) 가지를 양 손에 흔들며 내려오고 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상징으로 올리브나무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바닥에 깔았던 일에서 연유한다. 순교자들은 고개를 살짝 젖히거나 완전히 뒤로 젖힌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 높이 바라보고 있다. 순교자의 머리 뒤에 후광을 그리지 않은 것은 인원이 많아 복잡한 구성을 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광圖>의 구성이 프라 안젤리코(Angelico, Fra, 1387~1455)의 <성모대관>과 비슷하다.<도판23> 프라 안젤리코는 15세기 이후의 르네상스 회화의 기본적인 양식에 기반을 두고, 종교적인 내용으로 聖經과 聖人の 이야기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祭壇畵인 <성모대관圖>도 르네상스 회화 양식으로 명암법과 원근법이 뛰어나며, 등장인물들의 화려한 색채의 의상과 섬세한 장식이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 금색 바탕의 배경과 조형적 처리는 천상의 신비스런 儀式을 추상적 공간에 표현하면서, 중심인물을 에워싼 聖人들은 좌우로 반원형을 이루게 배치하였다. 인물들의 원근관계를 3차원의 공간 구성으로 보여 주고 있다.⁴⁸⁾ <영광圖>도

<성모대관圖>와 같은 대칭 구도로 르네상스 회화의 기본적인 양식에 기반을 두고 응용하여 명암이 뚜렷하고 원근법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형의 구도와 이분법으로 순교자들을 화면에 차도록 배치하고, 그들이 순교자임을 상징하는 형벌도구를 화면 맨 앞쪽에 넣음으로써 聖畫의 주제를 알려주고 있다. 구름 위에서 축복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聖畫의 자주 응용되는 기본적인 도상으로 하늘이라는 추상적인 공간 속에 ‘현존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구름도 ‘하느님의 현존’·‘창조자’·‘전능하신 하느님’을 뜻한다.<도판22>

<영광圖>를 제작한 畫家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앞서 밝혔듯이 파리 외방전교회의 지도로 이탈리아 畫家가 그렸다는 것 밖에 알 수 없다. 아마 주스타니안(Giustanian)이 작품의 소재로 달레(Dallet. Claude Charles, 1829~1878) 신부가 쓴 『朝鮮教會史』와 그 당시 외국에 알려진 우리나라의 사진을 참고로 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을 것이다. 『朝鮮教會史』는 ‘조선교회와 순교자들’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실린 책으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이며 教會史家로 널리 알려진 달레(Dallet. Claude Charles) 신부가 조선에서 활동하던 성직자들의 보고서와 편지 그리고 조선 교우들의 보낸 각종 보고 편지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⁴⁹⁾ 작가는 역사적인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순교자 개인의 삶을 신분과 직위에 맞도록 복식으로 표현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한국 순교자들의 모습이 耳目口鼻가 뚜렷한 서양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서구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진다. 한국 작가가 아닌 외국 畫家의 작품임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작품의 색채는 기념화보집에도 흑백으로 실려 있고 남아 있는 像本도 흑백이어서 아쉽게도 확인 할 수가 없다.

48) 프라 안젤리코(Angelico, Fra 1387~1455) : 이탈리아 비키오(Vicchio)에서 태어나, 20세에 피에솔레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활동한 수사 신부이며 화가이다.

49) 달레(Dallet. Claude Charles, 1829~1878) 신부 : 1850년 10월 5일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 1852년 6월 5일 사제서품을 받고 인도 마이수르(Maissour) 지방에서 포교에 전념하면서 저술활동을 하였다. 조선에서 활동하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보낸 기초 자료와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의 비망기, 보고 및 편지들을 중심으로 조선교회사편찬에 착수하여 1874년 《조선천주교회사 상·하》(Histoire de L'Eglise de Coree)를 출판하였다.

(2) <79位福者圖> <도판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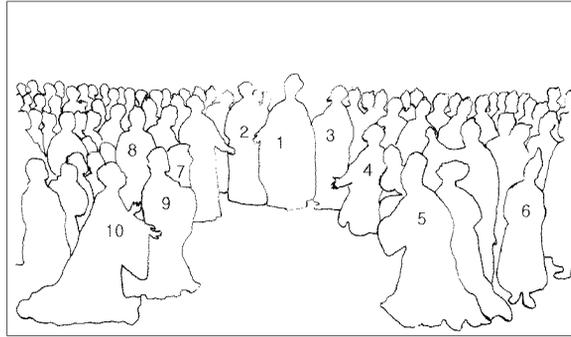


<도판25> Giustanian, <79位福者圖>, 1926년, 캔버스 유채, 520×345 cm, 명동성당

1925년 7월 5일에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거행된 諡福式으로 福者品에 오른 한국 순교자 79位 諡福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8대 조선교구장 뫼텔 주교(Mutel. Gustave Charles Marie, 閔德孝, 1854~ 1933) 때 파리에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이연호 선생의 증언(각주45참조)으로 이미 앞에서 밝혔지만, 경향잡지(1968년 10월호)와 명동성당에서 발행한 소책자 『명동성당』에는 이탈리아 畫家 쥬스타니안(Giustanian)이 1926년에 제작한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諡福式 미사 때 제대 위에 걸렸던 작품은 로마에서 서울로 가져오지 않고 다시 제작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탈리아 畫家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비록 서구적으로 그렸지만 신앙의 터전인 명동대성전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80여년의 역사를 지닌 聖畵이다. 가톨릭교회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종교미술사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 聖畵라고 볼 수 있다.

뫼텔 주교(Mutel. Gustave Charles Marie)는 1933년 서울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한국 천주교회를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 자신의 표어인 “순교자들의 꽃을 피어나게 하라(Florete Flores Martyrum)”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순교자 현양과 한국 천주교회사의 정립 그리고 순교자들의 諡福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뫼텔 주교의 그러한

열정이 순교자들의 꽃을 피어나게 하여 79명이 福者品에 오르게 되었고, 그 諡福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작품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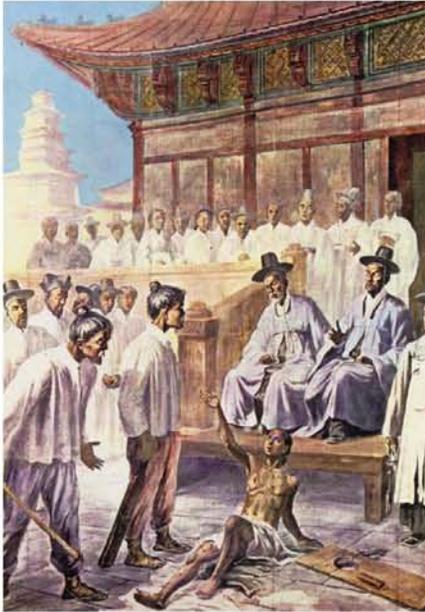
<도판26> Giustarian <79位福者圖>의 배치도

화면 중앙에는 흰 구름을 배경으로 로마 가톨릭교회를 상징하는 교황청이 열린 보라색으로 희미하게 윤곽으로만 표현되어 있고, 교황청 둥근 지붕(dome) 뒤에는 황금빛 후광이 퍼져 나오고 있다. 등장인물과 교황청 사이는 깊은 원근감으로 처리하면서, 옥색 하늘에서 瑞光이 뿜어 나오는 순간을 강조하기 위하여 굵고 투명한 직선의 빛줄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중앙과 좌우에 표시하였다. 르네상스 회화 양식으로 이분법과 대칭구도로 구성되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앙베르 범 주교①의 좌②·우③에는 파리 외방전교회 모방 나 신부와 샤스탕 정 신부가 있고, 오른쪽은 남교우가 왼쪽은 여교우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하늘의 두 천사도 대칭 구도이지만 왼쪽의 천사는 종려가지를 아래쪽을 향해 들고 있고, 오른쪽 천사는 하늘 높이 쳐들고 있어 대칭으로 인한 단조로움을 피하고 생동감을 준다. 화면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는 身分을 짐작 할 수 있는 화려한 궁중예복을 입은 순교자⑤,⑩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그 이외의 순교자들은 중심을 향하여 나열하듯이 원근감을 두면서 둥글게 배치하였다. 여교우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흰옷 차림이다. 화려한 색상의 예복과 흰색 한복이 잘 조화되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 느낌을 전해 주고 있다. 오른쪽에 양반자제의 차림으로 관람자 쪽을 향해 있는 소년의 유대철(베드로)⑥의 자세가 꼭 찬 구성에서 벗어나

부드러움과 여유를 느끼게 한다. 순교자들이 빙 둘러 있는 중앙에는 순교 당시의 형벌도구(큰 칼, 곤장, 칼)들이 놓여 있고 왼쪽의 화면 끝 부분에 서양악기가 놓여 있다. 원형의 구도에서 중앙의 범 주교와 좌·우 하단의 순교자가 삼각형 구도가 되어 전체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준다. 서양화법으로 표현하여 원근감과 명암법이 뚜렷하여 깊은 공간감과 입체감이 있다.

諡福式 기념미사 때 제대 위에 걸었다는 작품의 구도와 소품이 거의 비슷하다. 구름 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상 대신 바티칸 교황청을 그렸는데, 인물들의 표정에서는 西洋畫家의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3) <소년 순교자 유대철(베드로)圖> <도판27>



<도판27> Giustaniano, <소년순교자 유대철(베드로)圖>, 1925, 캔버스 유채, 미상.



<도판28> 원각사 10층 석탑, 1897년 (사진 159번)



<도판29> 조선시대 재판광경, 1900년 (사진 439번)

1925년 7월 5일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거행된 시복기념 미사 때 제대 위에 걸었던 <영광圖>와 함께 알려진 작품이다.<도판27>⁵⁰⁾ 이 시기는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한국 가톨릭교회를 주관하고 있었고 가톨릭 聖畵를 그리는 한국 畵

家の 부재로 모든 것을 외국인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의상이 서구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아마 이탈리아 畫家 吉士타니안(Giustanian)이 79명의 순교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 13세에 용감하게 순교한 유대철(베드로) 소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별히 그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화면은 유대철(베드로)이 관현에서 문초를 받는 광경을 그렸는데, 『韓國天主敎會史』에 “네모반듯한 넓은 뜰 한 쪽에는 재판관들과 다른 관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개의 단이 세워져 있다.”고 그 전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화면 왼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석탑은 조선시대 원각사 10층 석탑(국보 2호)으로 유대철(베드로)이 문초 받고 있는 포도청이 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도판28, 29> 그 당시 포도청은 左포도청과 右포도청으로 분리되어 치안업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석탑이 보이는 탑골의 위치로 보아 종로구 단성사 앞의 左포도청임을 알 수 있다. 달레 신부는 우포도청을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右포도청”이라고 하였다.” 소년 유대철(베드로)이 관현에서 문초를 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증거 하는 장면을 달레 신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⁵¹⁾

“하루는 어떤 포졸이 구리로 된 대통을 편치 삼아 그의 허벅지에 들이박아 살점을 한 점 빼어내면서 소리쳤다. “이래도 아직 천주교를 믿겠느냐.” “믿고 말구요. 이렇게 한다고 믿지 못하게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포졸은 별경게 된 솟덩이를 집어가지고 입을 벌리라고 하였다. “자요”하고 입을 크게 벌리니 포졸은 놀

50) 鄭淳在 편저, 『寫眞으로 보는 舊韓末(1880~1920)』, 每日觀光文化社, 1980.

김원모·정성길이 엮은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근대한국/1871~1910)』, 가톨릭출판사, 1997, p.260. 괄호 속의 번호는 책에 실린 사진번호이다.

유대철(베드로, 1826~1839), 13세, 소년, 1839년 10월 31일 포청옥 교수.

※ <도판 ()> 속의 사진번호는 아래의 책에 실린 사진번호이다.

『사진으로 보는 구한말』,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빛·믿음·흔적』

51)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敎會史 下』, 분도출판사, 1980, pp.392~393.

포도청 : 성종 때부터 좌포도청, 우포도청으로 나누어 좌포도청은 한성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북동쪽(서울 종로구 단성사 일대)에 두고 한성부의 동부, 남부, 중부와 京畿左道 일원을 관할하였다. 우포도청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 동쪽(서울 동아일보사 일대)에 두고 한성부의 서부 북부와 京畿右道를 관할하였다.

라 물러나고 말았다. 다른 교우들이 “너는 아마 많은 괴로움을 당한 줄로 생각하겠지만, 큰 형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저도 그걸 잘 알아요. 이긴 쌀 한 말에 대해서 한 톨 같은 것이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소년은 14회 신문을 받았고 14회나 고문을 당하였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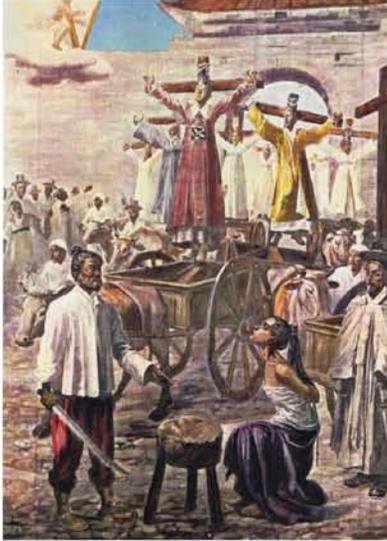
매를 때리기 위해 옷을 벗기고 배교를 강요해도 천주교를 버리지 않겠다는 소년의 용감한 태도에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의자에 앉아 문책하는 관리들도 황당한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할 말을 잊은 표정이다. 몽둥이를 든 옥사장이든 눈이 휘둥그레져 팔을 벌리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곤장을 권 옆 사람도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서 있다. 난간에 한 줄로 서 있는 흰 옷차림의 사람들의 표정은 희미하여 잘 파악 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남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유대철(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한 교우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그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씩씩하게 신앙을 증거 하는 소년을 침묵의 기도로 응원하고 있는 듯하다.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듯 오른팔을 들어 올린 소년의 얼굴에서는, 온 몸이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어져 피가 흘러내리지만 결코 배교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흘러넘친다.

조선말기의 건축양식으로 다포가 있는 기와지붕을 그렸지만 절의 대웅전처럼 보이는 것은 화가가 직접 현장을 보고 그렸다고보다는 그 시대의 우리 문화를 소개한 사진을 보고 그린 것으로 생각 된다. 짙신을 서양구두 신듯이 발목까지 끈으로 묶고 상투를 튼 포졸들의 옷차림이 서구적이다. 손을 벌리며 놀라는 표정도 서양인들이 자주하는 의사 표시로서 강하게 표현되었다. 직선적인 구도 속에 모든 것을 나열하듯이 구성하여 왼쪽에 탑이 보이는 하늘만 빼면 화면 전체가 꽉 차 있다. 화면 아래에 옥에 갇힌 죄인의 목에 채우는 큰 칼(枷)이 있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징적으로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畫家는 유대철(베드로) 소년의 고문 받는 장면을 역사적인 문헌 안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오늘도 그의 삶을 視空間을 초월한 한 점의 聖畫를 통하여 순교의 맥을 이어 주고 있다.

52)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中』, 분도출판사, 1980, pp.482~483.

(4) <순교자 김효주(아네스)·김효임(골롬바)圖> <도판30>



<도판30> Giustanian,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 1925년, 캔버스 유채, 미상



<도판31> 서소문 전경, 1900년 (사진 126번)

1925년 7월 5일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거행된 시복기념 미사 때 제대 위에 걸었던 <영광圖>와 함께 그 날 알려진 작품이다.<도판30> <소년순교자 유대철(베드로)圖>와 동일한 畫家의 작품으로 왼쪽 끝부분만 하늘이 조금 보이고 서소문 담 벽을 배경으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를 알리고 있다. 두 자매의 순결한 삶을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도판31>⁵³⁾

달레(Dallet, Claude Charles)의 『韓國天主教會史』에 자매가 체포된 후 배교를 강요당하고 고문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53) 西小門(현:서울역 옆천교 부근) : 조선시대 서소문은 그 당시 南小門(현:光熙門)과 함께 서울 도성의 遺骸를 운반하는 곳이다. 西小門이 순교자의 피로 물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신유박해(1801년)부터이다. 1801년 敎友인 이승훈, 정약중, 최필공, 홍교만, 홍낙민, 최창현 등 300명이 잡혀와 순교하면서 西小門 밖 네거리의 男·女 구별 없이 계속 천주교인들의 목을 자르는 형상이 되었다. 103位 聖人 중에서 44位의 聖人이 이곳에서 순교하였다. 한국 최대의 순교기념지이다.

金孝任(골롬바, 1814~1839), 26세, 동정녀, 1839년 9월 26일 서소문 밖 참수.

金孝珠(아네스, 1816~1839), 24세, 동정녀, 1839년 9월 3일 서소문 밖 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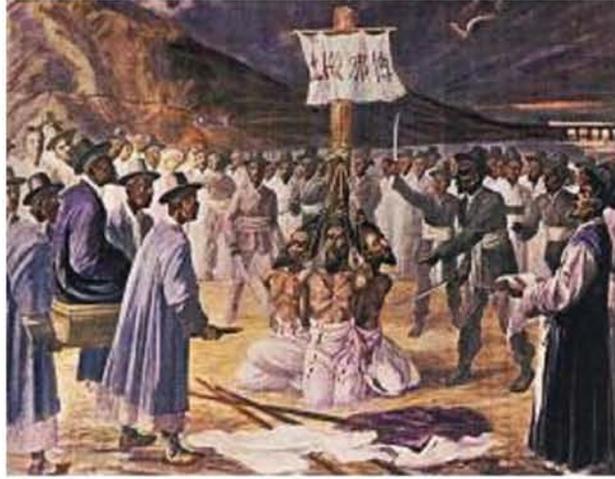
김효임(골롬바)는 동생 김효주(아네스)와 함께 童貞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오빠 김 안토니오의 집에서 지내다가, 1839년 5월 3일에 잡혀서 포장에게 끌려갔다. 포장은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별별 약속을 다하여 배교를 시키려 하였으나 얻은 것은 거절뿐이었다. 그러자 포장은 몽둥이로 어깨와 팔꿈치와 무릎을 치게 하였고 다시 번이나 다리에 고문을 가하여 다리뼈가 휘기는 하였으나 부러지지 않았다. … 포장은 항구심이 어떤 魔力의 덕이라고 생각하여 등에 몇 가지 呪文 글자를 쓰게 하여 불에 시뻘경게 달군 쇠꼬챙이로 그 글자들을 13군데나 뚫게 하였다. … 포장이 그만한 나이에 어찌서 아직 신앙을 고르지 않았느냐고 묻자 골롬바는 “천주교인들의 눈에는 童貞이 더 완전한 지위로 생각되며, 자기들은 천주를 더 기쁘게 해 드리려고 동정을 지키기로 하였다”고 대답하였다.⁵⁴⁾

포도청에서는 자매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을 들추어내어 주리형, 대꼬챙이질, 인두질 등 온갖 형벌을 주면서 배교를 강요하였고 듣지 않자 자매들의 옷을 벗긴 후 강도들이 갇혀 있던 구류간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이들은 굳은 신앙 때문에 김효주(아네스)는 24세에, 김효임(골롬바)는 26세의 나이로 서울 서소문 밖 형장에서 순교하였다.

聖書を 살펴보면, 서소문을 밖 형장으로 많은 천주교신자들이 끌려 나오고 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십자가형 나무틀을 고정시킨 후,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은 묶어 중앙에 손목은 끈으로 묶었다. 화면 중앙의 궁중예복을 입은 여인의 뒤로 많은 이들이 계속 서소문 밖으로 나와 형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화면 왼쪽에는 하늘나라의 전령사인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둥근 나무로 만든 斬首待 앞에 김효임(골롬바)가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 위하여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 하고 있다. 십자가에 손이 묶여 매달려 있는 이들, 쪽에 갓을 쓰고 두 손은 도포 소매자락에 넣고 두 개의 검을 옆구리에 찬 관리, 참수대를 가리키며 검을 들고 있는 휘광이 그리고 참수를 기다리는 김효임(골롬바) 얼굴이 耳目口鼻가 뚜렷하고, 차림새도 서구적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왼쪽에 가까운 붉은 바지와 보랏빛 치마에서도 서양화의 짙은 색채가 강한 느낌을 더해 주고 있다.

54)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中』, 분도출판사, 1980, pp.409~410.

(5) <세 프랑스 신부 殉教圖> <도판32>



<도판32> Giustanian, <세 프랑스 신부 殉教圖>, 1925년, 캔버스 유채, 미상



<도판33> 한강철교, 1900년 (사진 229번)



<도판34> 새남터, 1900년 (사진 166번). 새남터는 조선시대 사형을 집행하던 곳으로 신용산의 철교와 한강 인도교 사이의 이촌동에 있다.

1839년에 박해가 다시 시작되어 배교자들의 자백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앙베르 澆 주교, 모방 羅 신부, 샤스탕 鄭 신부가 체포되어 여러 번의 형벌과 고문을 당한 후 大逆罪人이라는 죄목으로 1839년 9월 21일 함께 서울 한강변 새남터 형장에서 군문효수로 순교하였다.<도판33>⁵⁵⁾

55) 앙베르 澆(Laurent, Joseph Marius Imbert, 澆世亨, 1796~1839. 9. 21, 43세) 주교.
모방 羅(Maubant, Pierre Philibert, 羅伯多祿, 1803~1839. 9. 21, 39세) 신부.
샤스탕 鄭(Chastan, Jacques Honore, 鄭牙各伯, 1803~1839. 9. 21, 35세) 신부.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은 세 선교사들은 고관들과 국사범의 감옥인 禁府로 옮겨져 3일간 주요 대신들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았고 사형선고가 내리기전에 각기 치도곤 70대를 맞았다. 가장 큰 죄명인 대역죄인 이라는 판결을 받고 등 뒤에 손을 결박한 채 가마를 타고 백여 명의 군인에게 호송되어 집행 장소가 서소문 밖이 아닌 새남터로 끌려갔다. 정해진 장소에 말뚝을 세워 놓았는데, 그 위에는 기 한 폭이 필적이고 말뚝에는 그들의 사형선고문이 달려 있었다. 옷을 벗기고 바지만을 남겨 놓고 군사들은 그들의 손을 결박하고 겨드랑이에 긴 몽둥이를 지르고 화살로 귀를 위에서 아래로 꿰뚫고, 얼굴에 물을 끼얹은 다음 회를 한 줍 뿌렸다. 그런 다음 6명이 몽둥이를 붙들고 순교자들에게 광장을 세 바퀴 조리를 돌려 군중의 조롱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듣게 하였다. 끝으로 그들의 무릎을 꿇리고, 군사 12명이 손에 칼을 들고 그들 주위를 빙빙 뛰어 돌아다니며 싸움하는 흉내를 내며 지나는 곁에 각기 한 차례씩 목을 칼로 쳤다. 사스탕 鄭 신부는 첫 칼질이 어깨를 스치기만 하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이내 다시 무릎을 꿇었고, 앙베르 澆 주교와 모방 羅 신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머리가 떨어지자 군사 하나가 판자에 엮어 상관에게 갖다 보이니 이 관리는 사형집행 보고를 하려 이내 궁궐로 떠났다.”⁵⁶⁾

앞에서 소개한 <소년순교자 유대철(베드로)圖>와 <순교자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를 그린 이탈리아 畫家 쥬스타니안(Giustanian)이 달레(Dallet Claude Charles) 신부의 『韓國天主教會史』를 읽고 세 선교사들의 순교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화면을 보면, 세 성직자의 처형을 알리는 북소리가 새남터에 퍼져나가자 수많은 군중들이 삽시간에 한강변 모래사장에 모여들었다. 화면 왼쪽의 삭막한 산등성이에는 기와 한 채가 덩그러니 있고, 짙은 구름이 깔린 오른쪽은 원근감으로 한강다리가 먼 거리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죽음의 길을 암시하고 있다.<도판33, 34> 화면 중앙의 죄명을 쓴 깃발은 畫家가 한자를 잘 모르고 그려서인지 오른쪽으로부터 傳은 위 부분에 한 획이 추가 되고, 敎는 변형이 되고, 두 글자는 획수가 정확하지 않다. 아마 ‘罪敎邪傳’이라면 그 당시 천주교를 邪學이라고 하였으므로 오른쪽부터 읽으면 ‘邪敎를 傳한 罪’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둥에 묶여 있는 세 사

56)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中』, 분도출판사, 1980, pp.423~463.

제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도로 관현과 군중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맨 앞 쪽에는 겨드랑이에 끼었던 긴 몽둥이 3개와 세 사제의 옷웃이 놓여있다.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邪學罪人들의 양쪽 귀에는 화살이 꽂혀 있고, 풀 어 헤친 머리카락 끝은 끈으로 칭칭 감아 꼼짝 할 수 없도록 기둥에 묶은 뒤 흰 횃가루를 얼굴에 뿌렸다. 사형을 재촉하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군중의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이천년 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의 우매함을 하느님께 용서 청하며 태연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방인인 세 사제의 모습과 그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도 대조적이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패랭이 모자를 쓰고 전복을 입은 군인이 사형선고문을 읽고 있다. 그 가운데 가마에 앉아 형을 집행하는 관리의 지휘 소리에 맞춰 휘두르는 휘광이들의 칼춤이 섬뜩함을 전해준다. 순교의 붉은 피를 흘리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세 사제의 죽음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작품도 순교자들의 역사적인 순교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聖畵이다. 전체 화면은 르네상스 聖畵의 기본적인 이분법 구도로 구성하고 인물들은 원형으로 배치하였다. 중앙을 대칭으로 양분하였지만 배경이 되는 산을 왼쪽에서 크게 잡아 오른쪽으로 원근감을 살리면서 모래사장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강하게 전해주고 있다. 세 사제의 얼굴은 耳目口鼻가 뚜렷한 서양인으로 그려져 자연스럽지만 그 이외의 등장인물은 한국인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

(6) <可敬者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 <도판35>

한국 가톨릭교회의 첫 聖畵家로 알려진 雨石 張勃(루도비꼬, 1901~2001) 화백은 우리나라 최초의 西洋畵家인 스승 春谷 高羲東(1886~1965) 화백의 ‘고려화회’에서 휘문고등보통학교에 다닐 때 서양화를 배웠다.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던 초기에 金大建(안드레아) 신부를 주제로 그린 첫 작품이다. 加敬者란 칭호는 순교자들에 관한 시복 조사 서류가 교황청에 접수되면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이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1857년에 처음으로 시복 후보자인 82명의 加敬者가



<도판35> 張勃(루도비코), <加敬者김대건(안드레아)圖>, 1920년, 캔버스 유채, 미상



<도판36> 요한 조그라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1398~1394년경, 목재, 88.5×131 cm, 스키프에 예술화랑 소장

있었지만, 1925년 7월 5일에 79명만 諡福되었다. 이 작품은 張勃(루도비코) 화백이 金大建(안드레아) 신부가 시복되기 전, 1920년 5월 14일 당시 용산 신학교 교장 기낭(Guinand Pierr, 陣普安, 1872~1944) 신부의 은경축(사제서품 25주년) 기념으로 그렸다. 한국 가톨릭교회 최초의 聖畵로 시복되기 전에 像本으로 만들어 모든 신자들에게 배부하였다.⁵⁷⁾

화면은 半身像으로 갓을 쓴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흰 두루마기 위에 붉은 영대를 메고 정면을 보고 있다. 가지런히 손가락을 모은 오른손은 검은 표지에 IHS가 금박으로 새겨진 聖經을 잡고 가슴에 안고 있으며, 왼쪽 손은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Palma) 가지를 힘차게 들고 있어 손을 강조하였다.⁵⁸⁾ 이와 같은 구도는

57) 한국교회사 역주, 『뫼텔 주교 일기 6(1916~192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p.357.

58) 예수(Jesus) : 예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스어 'ΙΗΣΟΥΣ'의 첫 세 글자 'ΙΗΣ'를 로마자로 표시하는데, 기본이 되는 글은 Iota Eta Sigma 즉 'IHS'이다. 다양하게 쓰이는 상징으로 I자를 J자로, S자를 C자로 바꾸어 IHS는 JHS, JHC, IHC가 있다. 김중익, 『그리스도교의 상징들』, 가톨릭출판사, 1987, p.33.

<도판36>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ICON’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형식의 도상과 순교자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있어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순교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이목구비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명암이 뚜렷하며, 자로 잰 듯한 좌우대칭의 구도는 엄숙한 느낌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圖><도판36>의 배경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가 드문드문 있지만,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의 배경은 한국적인 도상으로 吉祥문자인 ‘福’字와 ‘囍’字를 바탕으로 하였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첫 聖畫家의 작품에서 서구적인 도상과 한국적인 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순교자를 그린 첫 번째 그림이라는 점과 토착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2. 제2기 : 한국 79位 시복식 후부터 24位 시복식까지 1926년 7월 5일 ~ 1968년 10월 6일

제2기에서는 1925년 7월 5일 거행된 한국 79位福者 諡福式 이후부터 1968년 10월 6일에 거행된 한국 24位福者 諡福式까지 발표된 작품 안에서 토착화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는 거의 외국 화가의 작품이지만, 79位福者 諡福式 이후부터 雨石 張勃(루도비코) 화백을 중심으로 한국 가톨릭 畫家들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殉教圖가 제작된다.

1925년 7월 5일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한국 79位福者 諡福式」이 거행되었다. 한국 가톨릭의 첫 聖畫家로 평가되는 張勃(루도비코) 화백이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친형 雲石 張勉(요한, 1899~1966) 박사와 함께 시복식 기념미사에 참석 하였다. 그 후 서울에 돌아와 활동하던 張勃(루도비코) 화백은 명동성당 제대 뒤 좌우측 벽에 <14使徒圖>(1925~26)를 제작하면서 殉教者들을 주제로 <福女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1925년), <福者김대건(안드레아)圖>(1928~29년)를 그렸다. 그리고 諡福式에 참석하였을 때 외국 화가가 그린 <영광圖>의 인물묘사가 서구적으로 표현된 것에 어색함을 느껴, 한국적인 도상

으로 그린 <79位福者圖>가 1934년에 발행한 『가톨릭 청년 17호』에 실려 있다. 서양의 종교적인 도상을 응용하여 순교자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1968년 10월 8일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한국 24位福者 諡福式」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그 날 기념미사 제대 위에도 79位 諡福式과 다르지 않게 한국 畫家의 작품이 아닌 이탈리아 畫家 줄리오 단테(Giulio Dante)의 <24位福者圖>가 걸렸다. 비록 한국 畫家의 작품이 제대 위에 높이 걸리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丙寅순교 100주년 기념」으로 낙성된 서울 절두산순교자기념관에 丁昌燮(암브로시오) 화백의 <순교자(별칭:영광)圖>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 이 땅에 사는 한민족의 정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도상으로 표현된 작품이 서양화뿐 아니라 韓國畫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해방 후로 추정되는 작자미상의 韓國畫 <79位福者圖>가 한국 가톨릭교회의 모든 史料들을 정리하여 사진과 그림을 함께 넣어 발행한 『韓國 가톨릭 어제와 오늘』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을 교회에서 像本으로 만들어 신자들에게 배부한 자료가 부산 오륜대 한국순교자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像本을 발행한 목적과 畫家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이다.⁵⁹⁾ 그리고 聖母聖畫의 주제로 많이 나타나는 聖母子의 도상을 응용하여 韓國畫로 聖母자와 순교자를 함께 그린 殉教圖도 등장하고 있다. 김대건(안드레아)신부, 남종삼(요한), 강완숙(골롬바), 김효임(골롬바), 김효주(아네스), 유대철(베드로) 등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文人畫家의 大家 月田 張遇聖(1912~2005) 화백의 작품으로 「순교자의 모후 3連作」(1949년)으로 <성모자와 어린 요한圖>, <순교자 강완숙(골롬바)과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 <김대건(안드레아)신부·남종삼(요한)·유대철(베드로)圖>가 있고, 1951년에 그린 <聖母자와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유대철(베드로)圖>가 있다. 張勃(루도비코) 화백의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와 비슷한 구도로 韓國畫로 그린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59) 金昌文·鄭宰善 편저, 『韓國 가톨릭 어제와 오늘』, 가톨릭코리아사, 1964년(초판).

<79位福者圖>는 諡福式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張勃(루도비코) 화백의 서양화 작품 1점과 작자미상의 韓國畫 1점이 있다.

<24位福者圖>는 이탈리아 줄리오 단테(Giulio Dante)의 작품과 丁昌燮(암브로시오) 화백의 <순교자(별칭 : 영광)圖>가 있다.

작품의 순서는 먼저 <79位福者圖>를 연도별로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화가의 작품, 제작년도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표 4> 제 2시기의 작품

| 작 가 | 작 품 명 | 제작년도 | 재 료 | 작품크기 (cm) | 소장처 |
|----------------|--------------------------------------|---------|-----------|--------------|---------------------|
| 장발 (루도비코) | 79位福者圖 | 1930년경 | 캔버스 유채 | | 미상 |
| 미상 | 79位福者圖 | 미상 | | | 미상 |
| 장발 (루도비코) | 순교자김효임(골롬바)·아네스圖 | 1925년 | 캔버스 유채 | | 절두산순교박물관 |
| 장발 (루도비코) |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 | 1928~29 | 캔버스 유채 | | 절두산순교박물관 |
| 장우성 (요셉) | 성모자와 어린 요한圖 | 1949 | 지본채색 | 200×136 | 로마바티칸 인류복음화성고문서고 |
| 장우성 (요셉) | 강완숙(골롬바)·김효임(골롬바) · 김효주(아네스)圖 | 1949 | 지본채색 | | 로마바티칸 인류복음화성고문서고 |
| 장우성 (요셉) | 김대건(안드레아)신부· 남종삼(요한)·유대철(베드로)圖 | 1949 | 지본채색 | 185×108 | 로마바티칸 인류복음화성고문서고 |
| 장우성 (요셉) | 성모자와 김효임(골롬바)·김효주 (아네스)·유대철(베드로)圖 | 1949 | 지본채색 | 185×108 | 미상 |
| 장우성 (요셉) |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 | 1954 | 수묵담채 | 185×108 | 미상 |
| 줄리오 단테 | 24位福者圖 | 1968 | 캔버스 유채 | 185×108 | 미상 |
| 정창섭 (암브로시오) | 순교자圖 | 1968 | 캔버스 유채 | 407×240.5 | 절두산순교박물관 |

(1) <79位福者圖> <도판37>



<도판37> 장빌(루도비코), <79位福者圖>, 1934년경, 캔버스 유채,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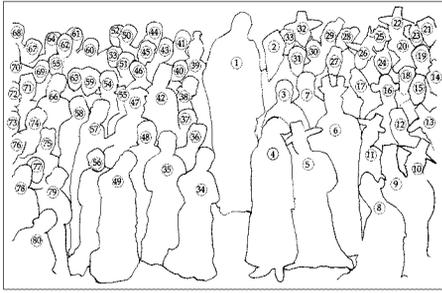


<도판38> Duccio di Buoninsegna, <옥좌의 성모>, 1308년경, 목판에 템페라, 214×412cm, 시에나 두오모박물관

한국 가톨릭 畫家가 처음으로 79位 순교자를 群像으로 그린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신앙 선조인 순교자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은 한국인의 모습으로 살아나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1925년 7월 5일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거행된 '한국 순교자 79位 諡福式'에 참석하고 돌아온 후 한국천주교회에서 발행한 『가톨릭 청년 17호』(1934년)에 이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자세한 제작년도와 작품의 소재를 알 수 없다.<도판37>⁶⁰⁾

화면은 배경이 없는 낮은 하늘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중앙에 가장 크게 그렸고, 예수 그리스도①는 유대인 복장에 맨발로 서 있다. 순교자들은 원근감 없이 왼쪽은 男교우, 오른쪽은 女교우를 층층이 나열적인 구성법으로 빈틈없이 배치하였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평면적이어서 깊은 입체감을 느낄 수 없지만 얼굴 표정은 뚜렷하다. 순교자들의 배교를 강요하는데 사용한 끔찍한 형벌 도구 대신, 왼쪽 아래 부분에 순교와 승리의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한 종려나무 2가지 위에 참수할 때 사용한 劍이 놓여있다. 술이 달린 劍의 손잡이는 안쪽을 향해 있다. 男교우 6명과 女교우 4명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슴에 안고 있거나 들고 있다. 여교우들의 머리모양새와 치장한 장식품에서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데, 긴 머리를 땅아서 紅羅를 맨 땡기머리와 땡아 올린 트레머리(없은머리) 그리고 쪽편

60) 가톨릭청년사, 『가톨릭 청년 17호』, 1934년(가톨릭 청년 2권 10호).



<도판39> 장발(루도비코), <79位福者圖>의 배치도

머리로 미혼자이거나 부녀자임을 알 수 있다. 또 궁중예복에 족두리, 아얌, 조바위, 남바위로 머리치장을 한 女교우도 있다. 등장인물들의 얼굴부분이 다양한 각도로 변화 있게 묘사되어 화면의 구성을 더욱 치밀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男교우들은 네 명의 사제(한국인 사제 1명, 프랑스인 사제 3명)를 제외하고는 상투를 튼 머리에 갓을 쓰고 있거나, 패랭이, 탕건, 방건, 程子冠, 紗帽를 쓰고 있다. 중앙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소년은 유대철(베드로)④이며, 그 당시 班家의 자녀들이 입는 붉은 細條帶로 맨 전복에 복건을 쓰고 태사혜를 신고 있다. 두 팔을 아래로 모으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에서 신앙을 굳게 지킨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오른쪽 맨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男교우는 紗帽冠帶를 입고, 청색의 단령에 문양이 있는 흉배와 각대를 착용한 모습에서 承旨의 官職에서 물러나 1866년 3월 7일에 순교한 南鍾三(요한)⑥임을 알 수 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살며시 고개를 숙이고 인자한 모습으로 내려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이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향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듯 행복한 표정이다. 순교자 한 분 한 분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는 제각기 다르지만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천국을 향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후손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초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두치오 디 보오니세냐(Duccio di Buoninsegna, 1255~1318)의 祭壇畫 <옥좌의 聖母(Maesta')>와 구성이 유사하다. <도판38> 중앙의 玉座에 앉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聖母子를 중심으로 양편에 聖인들이 좌우 대칭의 구도로 평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인물구성과 비슷하지만 後光은 그려 넣지 않았다.⁶¹⁾ 또 聖母子를 주위의 등장인물보다 한층 압도하는 크

61) Maesta' : 마에스타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모가 정면으로 옥좌에 앉아 있는 그림을 말한다.

기로 그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순교자들보다 크게 그린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聖畵의 양식으로 구원자이신 구세주로 흠송하기 때문이다. 張勃(루도비코) 화백은 서양 聖畵를 기본으로 한국적인 도상을 시도하였음을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79位福者圖> <도판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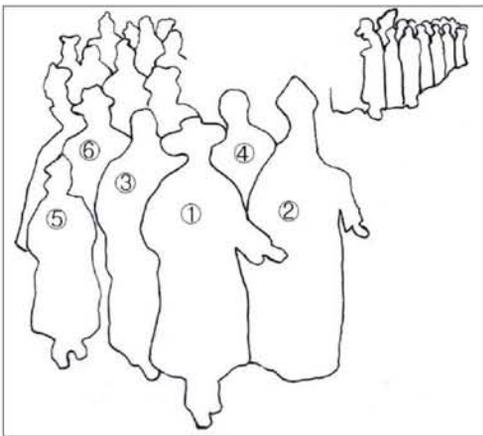
<도판40> 작가미상, <79位福者圖>, 1945년 이후 추정, 한국화, 미상



<도판42> 남대문 밖
1910년 (사진 107번)



<도판43> 서울 북악산
1900년 (사진 103번)



<도판41> 작가 미상, <79位福者圖>의 배치도



<도판44> 상분, 오륜대한국순교자 기념관소장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1964년에 발행한 『韓國가톨릭 어제와 오늘』에 실린 韓國 畵로 작가, 작품의 제작년도, 채색, 크기, 소장자 등을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畵 家가 전통화법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⁶²⁾ 가톨릭교회에서 어느 행사를 준비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1968년 24位 諡福 式을 앞두고 신자들에게 특별 기도를 권장하기 위하여 배부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기념행사가 있을 때에는 모든 신자들이 한 지향으 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79位福者 圖>, <福者유대철(베드로)圖>, <福女김효임(골롬바), 김효주(아네스)圖> 등 여러 점의 聖畵를 6.5cm×10.5cm 크기의 像本으로 만들어 발행한 像本이 부산 오류대 한국순교자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도판44>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耳目口鼻가 뚜렷한 서양인 이 아닌 동양적인 한국인 그대로 그렸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도판21>과 <도판 25>는 바티칸 대성전을 배경으로 하여 프랑스 성직자를 중심으로 79位 순교자들 을 배치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화면 맨 앞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金大建(안드레아) 신부를 배치하였다. 연극 무대의 휘장이 걸리면 배우가 등장하듯이 대칭 구도로 오른쪽에는 아기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성 모 마리아가 젖힌 휘장을 손으로 살짝 잡고 있고, 왼쪽에는 쪽진 머리에 고유의 한복을 입은 선녀가 아래를 향한 손에는 승리의 종려나무가지, 위를 향한 손에 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잡고 있다. 화면의 배경으로 왼쪽 에는 순교자들이 살았던 조선시대의 궁궐과 가까운 북악산의 산봉우리를, 오른쪽 에는 조선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남대문을 그렸다.<도판42, 43> 중층의 우진각지 봉과 석축 중앙의 홍예문은 남대문임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어오르는 구름 속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천을 두른 긴 십자가를 왼 손에 쥐고 두 팔을 펼치 고 순교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피어오르는 듯한 뭉게구름은 화면 주변으로 퍼져 나가 순교자들이 천상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암시하며, 원근감으로 나타낸 긴 행렬은 영광을 받는 79位 福者를 비롯한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을 뜻하다. 金大建

62) 金昌文·鄭宰善 편저, 『韓國가톨릭 어제와 오늘』, 가톨릭코리아사, 1964년(초판)

(안드레아) 신부를 선두로 남대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교자들의 모습에서 역동적인 힘이 느껴진다. 群像으로 나타나는 그림의 특징으로 뒤 부분은 생략되었다.

구름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유럽 聖畫의 기본적인 도상으로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다. 순교자들이 딛고 있는 地形은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을 입체감으로 그린 地圖로 표현하여 순교자들이 대한민국 백성임을 강하게 상징적으로 전하고 있다. 畫家가 가톨릭미술의 토착화를 염두에 두고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서구적인 도상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도상으로 표현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극기는 1883년(고종20) 朝鮮의 국기로 채택되어 1948년부터 대한민국 국기로 사용하고 있다. 무궁화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國花가 된 시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이다. 겨례의 꽃으로 겨례의 얼과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태극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작품은 해방 이후에 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서양의 종교적인 도상을 차용하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자연스럽게 담아낸 작품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福女 김효임(골롬바) · 김효주(아녜스)圖> <도판45>



<도판45> 張赫루도비코, <福女 김효임(골롬바) · 김효주(아녜스)圖>, 1925년, 캔버스 유채, 69.5×46.5 cm 절두산순교자기념관



<도판46> <聖女 글라라> 시드니미술관

張勃(루도비코, 1901~2001) 화백은 1920년에 일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년 후 미국으로 유학 가서 뉴욕 National Design Academy에서 1년간 수학한 후, 1923년에 뉴욕 Columbia University 미술학과에 입학하여 1925년에 졸업하였다. 1925년 7월 5일에 로마 바티칸 聖베드로대성전에서 거행된 한국 순교자 79位 諡福式에 친형 雲石 張勉(요한, 1899~1966) 박사와 함께 참석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가 귀국하자 당시 서울교구 드브레(Emiley Alexander Joseph Devred, 兪世俊, 1877~1926) 부주교의 부탁으로 명동성당 제단 뒤 벽을 장식할 <14使徒圖>를 위촉받게 되었다. 14使徒들의 순위를 지도해 준 명동성당 김요셉 보좌신부는 福女 김효임(골롬바)과 김효주(아네스) 자매 집안과 인척간으로 張勃(루도비코) 화백은 김 신부의 개인적인 요청도 받게 되어 <福女 김효임(골롬바)와 김효주(아네스)圖>를 그리게 되었다.<도판45> 張勃(루도비코) 화백은 초기에 독일 Beuron 聖美術의 엄숙하고 성스러운 화법에 심취하였는데, 화면 밑의 글자부분의 장식과 자매의 순결하고 엄숙한 표정이 Beuron 畫法의 전형이다. 그 후 <福者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도 Beuron 畫法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⁶³⁾

화면은 우리나라의 山野를 배경으로 致命을 앞둔 자매의 마음을 옮겨 놓은 듯 장렬한 기운이 감돈다. 전통한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은 자매는 운혜를 신고 조금 벌린 자세로 감정 표현은 극도로 절제한 듯 엄숙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다. 가름한 얼굴에 일자로 가르마한 머리 부분의 후광은 밝은 빛 무리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듯 빛나고 있다.⁶⁴⁾ 고귀한 삶과 순결을 상징하는 좌우에 그려진 두

63) 이구열, 『韓國의 가톨릭 美術』, 『近代韓國美術史의 研究』, 미진사, 1994, pp.162~168.

보이룬(Beuron) 畫法 : 독일 보이룬(Beuron)시에서 시작된 신비주의의 한 畫法이다.

64) 致命 :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를 당하던 시기에 교우들에 의해 만들어진 말로 원 뜻은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였으나 종교적으로 사용되어 순교를 의미한다.

후광(後光) : 그리스도교 예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聖인의 머리 부분을 둘러싼 광휘. 하느님의 神性이나 거룩함, 은총, 영광, 인간의 윤리적 탁월성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天主降生 : 강생이란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인간 세계에 직접 내려오신 것을 의미한다.

운혜(雲鞋) : 조선시대 상류계급의 부녀가 신었다. 겉은 분홍색 비단으로 만들고 안은 옹으로 하였으며, 신코와 뒤축에 녹색 비단을 대고 그 위에 남색 비단으로 雲紋을 장식

송이 흰 백합화는 자매가 동정녀임을 나타내고, 劍과 종려나무 가지는 순교를 상징하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후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보여 주고 있다. 서양 聖畫에서 백합화는 순결과 봉헌의 의미로 자주 등장하며 성녀 글라라도 백합화를 들고 있다.<도판46>

화면 중간 부분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휘돌아가는 길과 나지막한 산은 연한 색을 사용하여 원근감을 강조하였고, 자매가 딛고 있는 길은 녹색은 희망과 생명감이 넘치는 땅으로 표현하여 황금빛 하늘과 황갈색의 산야와 구분하였다. 자매의 한복 색상은 진한 향토미를 느끼게 하며, 치마 주름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음영을 강하게 표현하여 숙연한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 미혼녀의 예복은 노랑 반회장저고리에 다홍색 치마를 받쳐 입고, 기혼녀는 남색 치마를 받쳐 입었는데, 모두 미혼이지만 색상의 조화를 위해서 왼쪽만 변화를 주고 그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매는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5개월간 옥에 갇혀 있는 동안 童貞을 지키기 위하여 잔혹한 고문을 당하였지만,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견디어 낸 후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순교하였다 자매의 굳은 의지를 가슴 부근에서 질끈 맨 흰 치마끈에서도 느낄 수 있다. 맨 아래 부분에 장식적으로 적은 글은 다음과 같다.

致命 천주강생 1839 김골롬바·아그네스 + 형제동신치명 1925
천주강생 복자 KIM AGNES·COLUMBA B.B.V.V.ET·M·M

김골롬바·아네스 형제는 천주강생 후 1839년에 동정녀로 치명하여 1925년에 福者가 되었다.

하였다. 제비부리같이 생겨서 '제비부리 신'이라고도 한다.
半回裝저고리 : 결마기가 없고 깃과 고름, 끝동에만 저고리 색깔과 다른 색의 천을 댄 저고리이다.

(4) <福者 김대건(안드레아) 신부圖> <도판47>



<도판47> 張勃, <福者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 1928~1929년, 캔버스 유채, 81×43.5cm, 절두산순교박물관



<도판48> Raffaello Sanzio, <알렉산드리아의 왕 카타리나> 1507년경, 목판에 유채, 71.5×55.7cm, 런던 국립회화관

1920년에 그렸던 초상화 양식의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와 같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全身像이다.<도판47> 단아하고 굳건한 기품과 의지가 중후한 마티엘 감각으로 신비스럽게 묘사되었다. 소품도 성직자로서 복음전파를 위해 순교한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를 강조하기 위해 전통적인 聖畵 형식에 따라 聖經과 종려나무 가지로 표현하였다.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後光에서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황금빛은 고귀한 정신적 풍모를 더해 주고 있다. 화면의 구성은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자로 잰 듯한 좌우대칭 구도에서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화면 중앙에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위치해 있고 그 중심에 갓끈과 도포 끈이 일직선으로 되어 수직을 이루고 있다. 성경을 잡고 가슴에 얹은 왼손과 배경의 바탕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다. 가슴을 둘러맨 도포 끈의 작은 매듭이 수직과 수평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 작품에 대해 張勃(루도비코) 화백 본인이 “모든 형체를 가성적으로 직선화하

였고 직선화한 聖線을 다시 균제의 배열법으로 처리한 결과 …… 고요로운 평화는 최대한도로 달성되었다.”고 평하였다. 보이론 미술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된 완숙한 경지의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⁶⁵⁾

화면의 배경되는 풍경화는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작품에서 인물의 뒤 배경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의 제자인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의 작품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도판48>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聖畫에 등장하는 풍경화는 배경이 되는 자연을 먼 거리의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서 세밀하게 묘사하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사실적인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서정적인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산과 들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밟고 있는 땅은 매우 거칠게 채색하였지만 점점 뒤로 멀어지면서 부드럽고 밝은 색상으로 변하여 중간의 길은 청색과 대비를 이루어 거리감을 표현하였다. 푸른빛이 감도는 하늘은 엄숙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

張勃(루도비코) 화백의 좌우대칭 구도와 엄숙한 표정 그리고 캔버스 테두리 부분을 장식하는 문자구성과 문양은 보이론 미술의 특징이다. 또 윗부분이 둥근 아취 형태의 캔버스를 사용한 것은 프랑스 나비파(Nabis)와 상징주의 畫家들이 사용한 방법을 따른 것이다.⁶⁶⁾ 청색 바탕에 붉은 색으로 테두리의 장식으로 쓴 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65) 장발, 「화랑」, 『가톨릭청년』 2권 2호, 1934, p.16.

「張勃의 생애와 작품활동에 관한 연구(가톨릭 聖畫를 중심으로)」, 1999,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경, p.72에서 재인용.

66) 이구열, 「韓國의 가톨릭 美術」, 『近代韓國美術史의 研究』, 미진사, 1994, p.166.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 1870~1943) : 프랑스 화가, 판화가, Gramvill 출생, 나비(Nabis)파로 순화된 윤곽선과 평탄한 색면을 특징으로 만년에 많은 宗教畫를 그렸다. 張勃(루도비코) 화백이 작품세계에서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나비(Nabis)파 : 1880년대 말부터 1890년대에 걸쳐 고갱을 중심으로 한 젊은 화가들의 그룹이다. 반사실주의, 신비적인 상징주의, 장식성이 이들의 특색이다.

맨 아래 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 네가 영원히 탁덕이로다.⁶⁷⁾

오른쪽 부분 : 복자 김신부 탄생 1822 탁덕승품 1845년

왼쪽 부분 : 참슈치명 1864년 로마에서 시복식 1925년

위쪽 등근 부분 : 나를 위하여 무궁세가 꽃 시작하리니 그대들도 사후진복을 누리려하거든 성교를 봉행하라

전체 내용을 이어보면 福者 김신부는 1822년에 탄생하였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1845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1864년에 참수치명한 후 1925년에 諡福되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리니 그대들도 죽은 후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천주교를 믿고 따르라.”고 적혀있다. 이 글은 金大建(안드레아) 신부가 새남터 형장에서 군문효수로 처형되기 전에, 사형 선고문을 듣고 많은 군중들에게 크게 소리치면서 하신 말씀의 일부분이다. 달레(Dallet) 신부의 『韓國天主教會史』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을 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내 천주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⁶⁸⁾

우리나라 첫 사제로서 복음의 씨를 뿌린 金大建(안드레아)신부는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1857년에 加敬者, 1925년에 福者가 되었고, 1984년 한국 교회 창설 200주년을 계기로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순교자 102명과 함께 시성됨으로써 聖人이 되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모든 성직자의 주보성인이다.

67) 탁덕(鐸德) : 神父를 지칭하는 옛 말. 원 뜻은 德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현재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탁덕승품 : 聖職者의 품을 받는 옛 말이다. 현재는 司祭敍品이라고 하며 司祭를 神父라고 호칭한다.

68)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下』, 분도출판사, 1980, p.119.

(5) <聖母子와 어린 요한圖> <도판49 중앙>



<도판49> 張遇聖(요셉), <순교자의 모후 3連作>, 1949년, 종이에 채색, 로마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 소장

왼쪽 : <순교자강완숙(골롬바)·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

중앙 : <聖母子와 어린 요한圖> 200×136cm

오른쪽 : <순교자 김대건·남종삼·유대철圖>

文人畫家 月田 張遇聖(요셉, 1912~2005) 화백은 치밀한 조형미와 현실적인 소재 선택을 통해 전통적인 동양화와 문인화의 격조를 현대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한국 文人畫의 大家이다. 작품을 제작할 당시 張遇聖 화백이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노기남(바오로) 주교의 부탁으로 '한국 79位福者 諡福式' 이후 25년이 지난 1950년에 로마 바티칸에서 개최된 聖母聖年 기념 「로마 국제성화미술전」에 「순교자의 모후 3連作」을 출품하였다.

<순교자 강완숙·김효임·김효주圖><도판50>, <聖母子와 어린 요한圖><도판49>, <순교자 김대건·남종삼·유대철圖><도판51> 등 3점으로 오랜 기간동안 로마바티칸교황청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에 소장되어 있었다. 「로마 국제성화미술전」에 출품한지 50년이 지난 2001년에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신유박해(1801) 순교 2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신앙의 향기 200년—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2001년 8월 15일~10월 15일)로 인하여 반입하여 서울 절두산순교박물관에서 2개월간 전시하였다.

張遇聖 화백은 1949년 이른 가을 서울 동승동 옛 서울대 캠퍼스에서 당시 서울 대학교 미술대 초대학장이던 張勃(루도비코) 화백의 天主教 敎理에 관한 조언을 받아 제작하였다고 한다. 3작품의 크기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聖母子와 어린 요한 圖>를 중앙에 두고 왼쪽에 <순교자 강완숙·김효임·김효주 圖>, 오른쪽에 <순교자 김대건·남종삼·유대철 圖> 순으로 배치하여야만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다. 순교자 강완숙(골롬바)를 제외한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남종삼(요한), 유대철(베드로), 김효임(골롬바), 김효주(아네스) 자매 등은 1984년 5월 4일에 모두 聖人이 되어 작품명도 聖人姓名 앞에 聖을 부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聖人이 되기 전의 작품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聖을 부치지 않았다.⁶⁹⁾

張遇聖(요셉) 화백은 聖畵를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聖母 마리아의 얼굴이나 순교자들의 얼굴에는 거룩함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聖人들을 그리면서 美女圖에 나타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과 어린 요한, 소년 유대철(베드로)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함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張遇聖(요셉) 화백의 탁월한 畵法으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정확한 顔面描寫와 필선의 단순함이 안정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⁷⁰⁾

배경이 없는 깨끗한 공간에 聖母 마리아는 조선시대 궁중 소례복으로 壽福字 문양이 있는 연두색 唐衣에 남색치마를 입고 七寶花冠를 쓰고 있다. 당의는 붉은 옷고름에 산호노리개를 매달았고, 補는 錦繡로 龍文樣을 수놓았고, 소매 끝은 흰색 거들지를 달았다. 아기 예수의 흰 옷과 무척 대조적이다. 聖母 마리아는 어린 요한(세례자)을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으며, 아기 예수는 정면으로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다. 聖母 마리아와 어린 예수의 머리 뒤에는 후광을 그렸지만 하느님의 뜻을 이룰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어린 요한(세례자)에게는 후광이 없다. 아기 예수는 옅은 분홍색 저고리에 福字文樣이 있는 흰색 겹옷과 바지를 입고 있

69) 姜完淑(골롬바) : 1996년 ‘하느님의 중’으로 선정된 ‘시성시복을 기다리는 124位’에 포함되어 있다.

70) 『가톨릭신문』, 2001년 8월 12일, 2001년 9월 9일.

으며, 다홍색 술이 달린 타래버선을 신고 있다. 오른팔을 聖母 마리아 어깨 위에 살포시 얹고 있는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진다. 어린 요한은 색동저고리에 붉은 색 배자를 입고 옥색 대님을 맨 미색 바지를 입고 있으며, 허리춤에는 자주색 귀주머니를 차고 흰 버선에 태사혜를 신고 있다.

聖畵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聖母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려지지만 聖母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聖母子의 도상도 빈번한 주제로 작품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風俗畵의 평범한 人物像으로 보이지만, 머리 뒤 부분에 聖人들의 神聖을 표현하는 후광을 그림으로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 聖畵임을 알 수 있다. 聖母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한국인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서 聖畵로서의 의미가 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 한국적인 도상으로 그 뜻을 전할 수 있다면 토착화된 작품으로서의 의의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6) <강완숙(골롬바) · 김효임(골롬바) · 김효주(아녜스)圖> <도판50>



<도판50> 강완숙(골롬바) · 김효임(골롬바) · 김효주(아녜스)圖, 185×108cm

한국 風俗畵의 인물화로 보이지만 종교적인 도상으로 후광을 그려 넣어 聖畵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오른쪽의 첩지머리를 하고 三回裝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받쳐 입은 이가 한국 가톨릭교회의 최초의 여성회장 강완숙(골롬바, 1760~1801)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최초의 중국인 周文謨(야고보, 1751~1801) 신부를 도와 뒷바라지하다가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손에 들고 있는 노란 표지의 책은 여회장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활동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천주교에 관한 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강완숙(골롬바)의 애기를 귀담아 듣는 듯 다소곳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와 옆

모습으로 한쪽 무릎은 꿇은 채 시선은 聖母子와 어린 요한을 향해 있는 이는 서로 자매 관계이다. 동생 김효주(아네스)는 미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로 단장하고 오른손에 聖牌가 달린 묵주를 들고 있고, 언니 김효임(골롬바)는 길게 땀은 머리에 붉은색 제비부리댕기를 매고 흰 저고리에 연한 청색치마를 받쳐 입고 있다. 聖母子를 만난 기쁨이 넘쳐 자신을 봉헌하듯 두 손을 올리며 경배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다. 그 앞에 놓인 한 송이 흰 백합화는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한 세 女人의 순결하고 고귀한 삶을 상징으로 그렸다.⁷¹⁾

시성식 후 작품명 <순교자 강완숙(골롬바)·聖김효임(골롬바)·聖김효주(아네스)圖>로 바뀐.

姜完淑(골롬바, 1760~1801), 41세, 女性會長, 1801년 7월 2일 서소문 밖 참수.

金孝任(골롬바, 1814~1839), 26세, 童貞女, 1839년 9월 26일 서소문 밖 참수.

金孝珠(아네스, 1816~1839), 24세, 童貞女, 1839년 9월 3일 서소문 밖 참수.

71) 周文謨(야고보, 1752~1801) : 조선에 입국한 최초의 외국인 신부. 중국 소주에서 출생 북경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서품을 받았다. 1793년 조선 입국에 실패하고 1794년 12월 24일 尹有一(바오로)과 池璜(사바)의 안내를 받아 입국 하였다. 1795년 1월 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최인길(마티아)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6개월 후 신입교우 韓永益의 밀고로 입국 사실과 거처가 알려져 체포령이 내리자 곧 姜完淑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황해도 황주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의금부에 스스로 나타나 체포되어 1801년 5월 31일 세남터에서 군문호수형을 받았다. 1996년 '하느님의 중'으로 선정된 '시성시복을 기다리는 124位'에 포함되어 있다.

姜完淑(골롬바, 1760~1801)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회장, 충청도 內浦)방의 양반집안에서 출생하였다. 韓永益의 밀고로 周文謨(야고보) 신부의 체포령이 내리자, 강완숙은 주문모(야고보) 신부를 자기 집 나무광에 숨겼다가 3개월 뒤 사랑방에서 지내게 하여 주문모(야고보) 신부는 6년간 숨어 지내면서 사목활동을 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강완숙에게 세례를 주어 최초의 女會長으로 삼아 女性들에 대한 전교와 교회 일을 맡겼다. 강완숙의 활약에 힘입어 입국 당시 4000명에 불과했던 신자수가 5년만에 1만여명이 되었고, 여교우의 수가 절대다수였다. 주문모 신부의 행방이 드러나자 강완숙은 체포되어 모진 형벌인 주뢰를 여섯 번이나 받은 후 7월 2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하였다.

(7) <김대건·남종삼·유대철圖> <도판51>



<도판51> 張遇聖(요섭, 1912~2005), 1949, 종이에 채색, 185×108cm, 로마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金大建(안드레아) 신부는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관례를 함으로써 어른이 되어 상투를 틀고 수염을 길렀다. 몸을 반쯤 옆으로 하여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고귀한 삶으로서의 사제 직분을 수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시선은 성모자와 어린 요한을 향해 있다. 南鍾三(요한)은 正三品 承旨로 조선시대 文武百官들이 朝賀 의식 때 입는 朝服에 금관을 쓰고 雲文이 있는 靑緞中單에 赤稍衣와 赤稍裳 그리고 後綬와 관대를 착용하고 木靴를 신고 있다. 가지런히 모은 손은 笏을 들고 넓은 소매에 옆이 트인 赤稍衣에는 금박의 용문양이 새겨져 있고 금환이 달린 후수에는 운학문과 卍 무늬와 연꽃으로 수를 놓고 하단에는 靑絲網을 달았다. 화려한 색채의 궁중예복과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흰 두루마기가 무척 대조적이다. 시선은 몸을 옆으로 돌린 자세로 아기 예수를 향하여 있다. 유대철(베드로)이 짚고 있는 녹색 술이 달린 劍은 함께 등장한 인물들이 모두 순교자임을 암시하고 있다. 유대철(베드로)은 양반 자제의 복장 차림으로 머리 쓴 복건에 ‘壽福’과 ‘子孫昌盛’이라는 길상문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 분홍색 두루마기 위에 붉은 細條帶를 맨 청색 戰服을 입고 옥색 대님으로 바지를 마무리 한 후 흰 버선에 초록색 대사혜를 신고 있다. 시선은 聖母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향하여 있다.

시성식 후 작품명 <聖 김대건신부·聖 남종삼·聖 유대철圖>로 바뀜
 金大建(안드레아, 1821~1846), 사제, 26세, 1846. 9. 16, 서울 세남터
 南鍾三(요한, 1817~1866), 승지, 50세, 1866. 3. 7, 서울 서소문 밖
 劉大詰(베드로, 1826~1839), 소년, 1839. 10.21, 서울 포청옥

(8) <聖母子와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유대철(베드로)圖> <도판52>



<도판52> 張遇聖(요셉), <성모자와 김효임(골롬바), 김아네스圖>, 1951, 종이에 채색, 1951년, 미상



<도판53> <옥좌의 성모>, 시드니박물관

이 작품에서 3명의 구도는 「순교자의 모후 3連作」에서 보이는 위치와 거의 같다. 3連作 제작 후 발표한 작품으로 聖母子를 우리나라의 왕후와 왕자를 모델로 삼아 르네상스시대의 聖畵의 기본적인 도상을 응용하여 한국인의 모습으로 그린 聖畵임을 알 수 있다.<도판52> 서양 聖畵의 강렬한 색채에서 오는 느낌과는 다르게 은은한 색조의 부드러움에서 평온함이 전해져 온다.<도판53> 정확한 필선과 고운 세필묘사로 섬세하게 그려진 모습에서 등장인물의 정신도 함께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聖母子 왼쪽으로, 동생 김효주(아네스)는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꽃을 왼손으로 살짝 잡아 오른팔에 끼고 다소곳하게 서 있지만, 언니 김효임(골롬바)은 아기 예수를 만난 기쁨에 깊은 경배의 표시로 왼쪽 무릎을 꿇고, 聖母로부터 아기 예수를 받아 안아보려는 듯 두 손을 펴들고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소년 순교자 유대철(베드로)은 그 당시 양반 자제의 복장으로 복건을 머리에 쓰고 있다. 두 손을 아무지게 쥔 아기 예수는 흰 바지저고리와 호박단추가 하나 달린 조끼를 입고 타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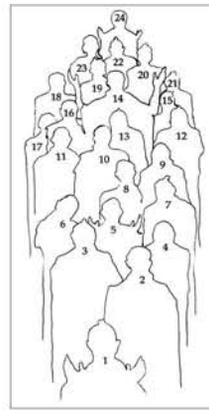
버선을 신고 있다. 흰색으로 아기예수의 神性和 거룩함을 표현하였다. 聖母 마리아는 궁중소례복인 연두색 당의와 군청색 치마를 입고 왼팔에 아기 예수를 안고 虎皮를 두른 옥좌에 앉아 있다. 금사로 수놓은 둥근 補가 달린 당의의 웃고름은 자주색이고 소매 끝은 백색 거들지를 달았다. 聖母 마리아가 신은 당혜의 신코가 치마 끝으로 살짝 드러나 보인다. 비녀를 꽂은 남자머리에 화관을 쓰고 지그시 눈을 내려 뜬 聖母 마리아의 모습은 금빛으로 처리한 後光으로 더욱 성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수직으로 배치되어 단조로울 수 있지만 앞 쪽의 종려나무 가지가 양편의 인물을 연결하듯이 반원으로 놓여 있어 한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유대철(베드로)이 두 손으로 짚고 있는 劍과 종려나무가지는 주제를 짐작할 수 있는 소품으로 모두 순교자임을 알려 주고 있다.

(9) <24位福者圖> <도판54>



<도판54> Giulio Dante <24位福者圖>, 1968, 미상



<도판55> Giulio Dante <24位福者圖>의 배치도

1968년 10월 6일 로마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교황 바오로 6세(Paulus VI)의 주례로 거행된 한국 24位福者 諭福式 때 제대 위에 걸렸던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가시관으로 聖書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이태리 화가가 병인년에 순교한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주교 2명, 신부 5명, 한국인 남교우 17명을 그린 작품으로 죽음의 장막을 넘어서 하느님 품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⁷²⁾

중앙의 십자가가 강하게 다가오지만 아래 부분에 가시나무를 둥글게 그려 넣어 한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것은 마치도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과 하느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어떤 대조를 보여 주는 듯도 하다. 십자가는 일반인에게는 치욕의 상징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작가는 표현하고자 한 것 같다. 화면 폭으로 가로 1/4, 세로 1/3 되는 크기의 푸른 십자가가 구도의 중심이 되고, 검푸른 가시나무가 안정감을 더해준다. 십자가는 활활 타오르는 듯 퍼져나가는 붉은 태양을 배경으로 순교자들이 두 손을 모으거나 두 팔을 올린 자세로 계단식으로 층층이 나열해 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엄숙한 느낌을 주지만,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하는 그 기쁨에 눈물이 솟구치는 듯 고개를 숙인 이도 있다. 얼굴 모습에서 한국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옷차림이 서구적이다. 상투가 있는 머리모양새로는 누가 프랑스 선교사인지 한국 남교우인지 구별 할 수 없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 중에도 몇 분은 상투를 틀고 전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畫家 줄리오 단테(Giulio Dante)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렸다고 여겨질 만큼 이 땅에서 순교하신 信仰의 선조들의 모습이 쉽게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72)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7명(주교 2명, 신부 5명) : 장 시르온(1814~1866) 주교, 안 안토니오(다블뤼, 1817~1866) 주교, 김 헨리코(1839~1866) 신부, 민 루가(위앵, 1836~1866) 신부, 백 유스토(1838~1866) 신부, 오 베드로(오메트르, 1837~1866) 신부, 서 루도비코(1840~1866) 신부이다.

24位 福者는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7명과 남교우는 17명이다.

24位 순교지 : 서울 세남터 6명, 충남 보령 갈매못 5명, 평양 1명, 서소문 3명, 공주 1명, 전주 숲정이 7명, 대구 1명이다.

(10) <순교자圖>(별칭 : 영광) <도판56>



<도판56> 정창섭(암브로시오), <순교자圖>, 1968년, 캔버스유채, 407×240.5 cm, 서울절두산순교자박물관



<도판57> Tizian Vecellio, <성모 승천> 1518, 베네치아 프라리성당

1968년 10월 6일에 諡福되는 24位福者를 기념하여 그린 <순교자圖>는 ‘영광’이라는 별칭이 있는 작품이다.<도판56> 1967년에 낙성된 ‘서울 절두산 순교기념관’의 축성식을 앞두고, 서양화가로 한국추상화단의 선구자인 서울美大교수 丁昌燮(암브로시오, 1927~) 화백이 1968년 10월에 완성한 작품이다.⁷³⁾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丁昌燮(암브로시오) 화백은 추상실험 작업을 시도하던 시기로 <순교자圖>는 수묵화처럼 느껴지고 單色調에 가까울 정도로 검붉은 화면이 섬세하면서도 거친 선묘가 특징적이다.

丁昌燮(암브로시오) 화백은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현실적 상황으로 설명이 불가능한데 치명자가 모두 다른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그 상황과 모습 역시 치명자 개개인 모두가 다르고, 또한 편태 당하던 그 상황을 묘사하는 동시에 後世에서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했기 때문에 반현실적·반추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1천호의 거대한 작품을 시간에 쫓겨 2개월 동안에 완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특히 천사의 모

73) ‘절두산순교기념관’이었던 명칭이 ‘절두산순교박물관’으로 바뀌었다. 丙寅年(1886)에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丙寅殉教 100주년 되던 해, 1966년 3월에 착공하여 1967년 10월 22일에 낙성되었다.

습에 한국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한복을 입히는 것과 수집 안 된 순교자들의 모습을 여러 문헌을 보면서 나이와 성품을 정하는데 애로가 컸다고 한다.⁷⁴⁾

한국 가톨릭교회는 피로 얼룩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병인년(1866) 박해는 그 규모와 희생자의 수에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다. 그 당시 참혹했던 순간을 24명의 순교자들을 통하여 감동적인 필치로 묘사하여 보는 이를 압도하고 더욱 가슴을 찡하게 하는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칼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형벌에 지친 육신이지만 다가오는 참수의 영광을 기다리며 은총에 젖어 있는 순교자들의 황홀하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작품 전체에 흐른다. 감옥에 혹은 형구에 갇힌 순교자들은 침묵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거나 고개를 숙인 옆모습으로 서로의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는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수호자인 聖母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린 작품은 맨 아래 부분에 검은 색을 사용하여 땅의 어둠과 죽음을 나타내고, 그 위에 순교와 피를 상징하는 붉은 색을 길게 채색하여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화면 위로 올라가면서 성모 마리아 주위로 희망과 평화의 상징인 녹색을 연하게 사용하여 하늘과 땅을 가르는 듯 반원으로 구름이 둘러져 있다. 윗부분에서 밝게 비쳐 나오는 노란 색깔은 순교자들의 영광을 의미한다. 화면 중앙 상단의 녹색 구름 아래 드러나는 커다란 십자가가 사선으로 아래 부분까지 그려져 있어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감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 상단에는 성벽이 둘러있고 타원형의 출입문이 있는 西小門은 서소문 형상을 상징한다. 화면에 그려진 여러 종류의 형벌도구로 보면 그 당시 무수한 교우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잔혹하게 고문을 받았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목숨을 초개 같이 여겼던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흘러 내렸음을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면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배치된 聖母 마리아의 후광은 미색으

74) 『가톨릭시보』 1969년 9월 14일.

윤선자 저, 『한국 가톨릭 문화유산과 절두산 순교 기념관』, 절두산순교기념관, 1999, p.116.

로 밝게 빛나고 양팔은 펼친 채 서 있다. 후면은 원형으로 밝은 주황색이 채색되어 있다. 성모 마리아 뒤에서 뻗어 나오는 빛줄기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구도 속에 순교자들이 위치해 있다. 세차게 뻗어 나온 빛줄기는 암흑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모진 고통과 형벌을 이겨내고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초대받는 순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의 치마폭 아래에는 짙은 초록빛 구름이 분향처럼 피어오르고, 구름 속에 반원으로 한복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날개 달린 어린 천사가 위치해 있다. 가운데 왼쪽의 男兒 모습의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순교자들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다. 원형으로 성모를 둘러싸고 있는 女兒 모습의 천사들이 각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해 있고 그 중 女兒 모습의 세 천사가(왼쪽 1, 오른쪽 2)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화면 중앙의 십자가가 사선으로 놓여 있는 그 위에 종려나무가지를 든 男兒 모습의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내려오고 있다.

순교자는 왼쪽에 17명, 오른쪽에 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머리 모양으로 한국인과 프랑스 성직자로 구별할 수 있다. 프랑스 성직자는 상투가 없고, 상투를 쓴 순교자는 男敎友들이다. 순교자들의 시선은 거의 성모 마리아를 향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고 있다. 감옥에 혹은 형구에 갇힌 순교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십자가 아래 부분에 상투를 쓴 순교자는 장계를 하고 오른손에 묵주를 쥐고 기도하고 있으며, 왼쪽 아래 바위에 등을 기대고 얼굴을 하늘로 향한 순교자는 십자가를 쥔 오른손은 가슴에, 왼손은 포승줄로 묶여 있다. 왼쪽 중앙에 두 명의 순교자가 큰 칼을 쓰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 옆의 팔목에 포승줄이 매어있고 묵주 기도를 하는 순교자를 향해 천사가 날아오고 있다. 화면 중앙에 가장 크게 배치된 수염을 기르고 상투를 쓴 순교자는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으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고 있다. 바로 아래쪽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의 팔목에는 포승줄이 매어져 있다. 왼쪽 맨 아래에 행형도구로 족쇄, 삼지창, 압슬, 행형도자가 오른쪽은 사형모, 치도곤이 그려져 있다.⁷⁵⁾ 순교자들은 來世의 천국을 그리워하였다기보다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체험하고 살

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 하였다. 천국을 사는 신앙이 곧 생명이고 힘이였다. 서소문은 광희문(光熙門)과 함께 屍身을 성 밖으로 운반하던 통로로 사용되었다. 겹처마 팔작지붕을 얹은 문루를 세웠다.

丁昌燮(암브로시오) 화백의 <순교자圖>도 르네상스 전성기의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Tizian Vecellio, 1477?~1576)의 <성모승천><도판57>의 종교적인 도상을 응용하여, 한국적인 도상으로 표현하였음을 하늘을 오르는 聖母와 아기천사들의 한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판58> 정창섭(암브로시오) <순교자圖>의 배치도 1988년 10월 6일 가톨릭시보에서

- 75) 족쇄(足鎖) : 쇠로 만든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형구이다.
삼지창(三枝槍) : 당과창(鎗把槍)이라고도 하며, 끝이 세 갈래로 되어 있다.
압슬(壓膝) : 죄인을 앉혀 가부좌를 틀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은 후, 무릎 위에 널빤지를 올려놓고 압력을 가하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악형이다.
행형도자(行刑刀子) : 죄인을 斬首할 때 쓰는 칼, 무죄자루에 날이 둔하여 여러 번 내리쳐야 한다.
사형모(死刑帽) : 용수 또는 행차칼이라고도 하며 사형수 머리에 씌웠던 철모.
축(杵) : 죄인의 손을 채우는 수갑이다.
곤장(棍杖) :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크기와 무게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이 있다.
대(苔) : 태형(笞刑)의 회초리로 형구 중에서 가장 가볍다.
가(枷) : 옥중 죄인의 목을 봉쇄하는 나무칼로서 큰칼이라고도 한다.
육모방망이 : 포졸들의 휴대용으로 사람을 구타하는데도 쓰였다.
형틀의자 : 양반계급의 죄인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의자이다.
철편(鐵鞭) : 포졸들의 호신용 형구.

【조선시대 형벌도】



<도판59> 태형(笞刑) 1900년 (사진 442번)



<도판60> 주리틀기 1890년 (사진 440번)



<도판61> 軍門梟首, 1890년, 참수 후 창이나 긴 막대에 매달아 놓는 형벌이다. (사진 99번)



<도판62> 옥중에서 큰칼을 쓴 죄인, 1894년 (사진 77번)



<도판63> 김준근, <형벌圖>, 1900년경, 덴마크국립박물관



<도판64> 김준근, <형벌圖>, 1900년경, 덴마크국립박물관

3. 제3기 : 24位 시복식 후부터 103位 시성식까지 1969년~1984년 5월 4일

제3기에서는 1969년 이후부터 1984년 5월 4일 「한국 103位福者」 시성식이 거행된 시기까지 다루고자 한다. 먼저 이 시기의 한국교회의 사정과 한국가톨릭미술가회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Gregorius XVI)는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브뤼기에르(Bruguiere, 蘇, 1792~1835) 신부를 초대 朝鮮代牧으로 임명하였다. 브뤼기에르 신부는 폐낭섬에서 전도하다가 주교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싱가포르로 가는 배를 탔다. 조선에 입국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갖은 노력과 고된 여행을 하다가 3년 만에 드디어 만주에 도착하게 된다. 중국땅을 걸어서 조금씩 조선을 향해 가는데 무더운 날씨에 쉴 곳도 여의치 않고 음식도 부실하여 죽을 고생을 하여 조선이 바라보이는 만주 교우촌 馬架子에 도착한다. 그러나 과로사로 43세의 나이에 1835년 10월 20일에 순직하게 된다. 그 후 1836년 1월 13일에 모방 나(Maubant, Pierre, 羅, 1803~1839) 신부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 후 계속적으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박해를 겪으면서 초기 조선천주교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한국 가톨릭교회의 정착과 여러 분야에서 선교사의 임무를 다 하였다. 그러던 중 1942년 11월 10일에 최초의 한국인 주교로 임명된 盧基南(마오로, 1902~1984) 주교에게 교구장직을 물려주고, 1944년부터는 사목활동의 모든 책무를 邦人 성직자들에게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차츰 한국 성직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사목 활동도 활발해 졌다.⁷⁶⁾

그 후 교황 요한(Joannes, X X III) 23세에 의하여 제2차 바티칸공의회(21차/1962년 10월~1965년 12월)가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1869~1879년) 이후 개별적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통합하여

76) 朝鮮代牧區 : 1831년 9월 9일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조선왕국에 설정된 교구이다. 서울 大敎區의 설정시점이 朝鮮代牧區이다.

새롭고 진보적인 가톨릭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 목적이었다. 회기가 끝나면서 ‘교회의 현대적 적응과 일치’를 위한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그리고 3개의 선언 등 모두 16개의 항목을 발표하였다. 그 중 聖美術에 관한 내용이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제7장에 나와 있다.

한편 한국 가톨릭 미술계는 1945년 해방이후 張勃(루도비코) 화백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張勃(루도비코) 화백이 서울대미술대학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대 교수진과 韓國畫壇의 거장들이 가톨릭 신자가 되거나 가톨릭 聖美術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54년 10월 서울 미도파 백화점에서 「聖 미술전」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임으로 되지 않고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 3월에 조각가 賀羅 이순석(바로로, 1905~1986), 김세중(프란치스코, 1928~1986) 작가를 중심으로 「서울 가톨릭미술가회」가 창립하였다. 회원전을 197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30회 기념 2003회원전」(2월 18일~3월 16일)을 서울 중림동 가톨릭화랑에서 마련하였다. 이날 최종태 회장은 “우리 교회는 토착화와 예술화의 기치 아래 거듭나고 있다”고 하면서, “토착화 과정을 넘어서 예술의 복음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니, 예술가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아름다운 것을 넘어 종교적이며 그리스도다운 것을 표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⁷⁾

한편 한국 가톨릭교회는 1968년 24위 시복식을 지낸지 얼마 되지 않은 1975년에 79위 시복 50주년을 기해 다시 시복시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위원회는 교우들에게 배부할 像本과 기도문(한국 순교 선열의 시성을 위한 기도)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제1기와 제2기에서 살펴보았듯이 聖畫는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와 몇몇 대표적 인물 그리고 <79位福者圖>(명동성당소장)와 <24位福者圖>가 있을 뿐이다. 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발표된 작품 중에서 像本으로 제작할 79位와 24位를 함께 그린 마땅한 聖畫가 없으므로, 명동성당 벽에 걸린 주스타니안의 <79位福者圖>를 사용하여 기도문을 넣어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像

77) 오광수, 『21인의 한국 현대 미술가를 찾아서』, 2003, 시공아트, p.49.
『평화신문』, 2003년 2월 16일.

本을 받은 많은 신자들은 순교자들의 인물 표현과 복장이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므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그림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79位 시복식 이후 50년, 24位 시복식이 있는 지 7년이 지났어도 103位福者를 한 화폭에 담은 聖畫 한 점 제작하지 못한 점은 가톨릭교회 측과 가톨릭화가들의 관심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까지 殉教圖가 기념식을 전후로 제작되어 온 것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철저한 고증과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순교자들의 모습을 재현한 작품이 文學鎮(토마스) 화백의 <한국103位福者圖>이다.

그리고 1979년부터 한국 가톨릭교회는 다가오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位 시성식」 행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1980년 1월 14일 주교회의 임시 총회를 열고 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해 이를 200주년기념주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정신운동위원회, 기념행사위원회, 사목회의위원회, 기념사업위원회로 구성하게 된다. 그 중 기념사업위원회가 추진하는 8개 분야의 기념사업임무 중에 「시복시성운동」과 「103位 聖人 영정 제작」이 포함되어 있었다.⁷⁸⁾

한국 103位 聖인들의 표준 영정을 제작하기 위하여 敎會史와 미술계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103位 표준영정제작위원회」가 조직되고,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고증과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준영정 제1호로 <김대건(안드레아) 신부圖>와 <김성우(안토니오)圖>가 시성식이 거행되기 전 완성되었는데,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는 발굴한 유해의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김성우(안토니오) 회장은 집안의 고증에 따라 가장 많이 닮은 후손의 사진을 기초로 제작하였다. 교회가 공인한 표준영정은 화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 9점이 제작되었다. <聖김효임(골롬바), 聖김효주(아네스)圖>는 張勃(루도비코) 화백이 1925년에 제작한 작품이다. 표준영정으로 공인된 작품 중 제1호 <김대건(안드레아) 신부圖>와 <김성우(안토니오)圖>는 명동성당에 소장되었고 그의 작품은 서울 절두산순교박물관에 소장되어

7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주년기념의 전모—한국천주교회200주년 보도자료1』, 1984. 『가톨릭신문』, 1984년 1월 29일

있다.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의 표준영정 10점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초기 교회 신앙 선조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聖畵를 그리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聖畵가 <明禮坊集會圖>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Joannes Paulus II)의 방한을 앞두고 완성된 聖畵는 명동성당 <79位 福者圖>와 마주보는 벽에 걸렸다가 시성식을 마치고 명동성당을 방문한 교황에 의해서 축성되었다.



<도판65>
성 김대건 안드레아
문학진(토마스), 1983,
캔버스유채,
120×98 cm, 명동성당



<도판66>
성 현석문 가롤로
문학진(토마스), 1984,
캔버스유채,
90×72 cm



<도판67>
성 정하상 바오로
박득순(요셉), 1984,
102×70 cm



<도판68>
성 김성우 안토니오
박득순(요셉), 1984,
102×70 cm, 명동성당



<도판69>
성 정의배 마르코
임직순(사도요한), 1985,
90×73 cm



<도판70>
성 남종삼 요한
김태(바오로), 1984,
90×72 cm



<도판71>
성 유진길 아우구스티
노성 유대철 베드로
김태(바오로), 1984,
102×80 cm



<도판72>
성 정정혜 엘리사벳
성 유소사 체칠리아
성 정하상 바오로
장창섭(암브로시오), 1985,
98×75 cm



<도판73>
성 전경현 아가다
성 박희순 루시아
성 김유리대 율리에타
김형구(루가), 1984,
98×75 cm



<도판74>
성 김효임 골롬바
성 김효주 아네스
장발(루도비코), 1985,
98×67 cm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와 聖人들은 모두 조선시대 전형적인 선비의 차림으로 상투를 틀고 머리에 갓을 쓰고 있고,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는 성직자의 표시와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 색의 영대를 어깨에 메고 있다. 承旨인 남종삼(요한)과 堂上譯官인 유진길(아우구스티노)는 文官의 궁중예복으로 유대철(베드로)은 양반자제의 옷차림으로 십자가를 쥐고 있다. 유소사(체칠리아)는 1801년에 순교한 정약종(아우구스티노)의 부인이며 정정혜(엘리사벳)와 정하상(바오로)은 그들의 자녀이다. 전경협(아가다), 박희순(루시아), 김 유리대(올리에타)는 궁녀로서 신앙을 지키다가 같은 해 1839년에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다. 천주교신자임을 나타내는 성경과 십자가, 묵주, 천주교 서적, 순교자의 행적을 기록한 기해일기, 동정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 백합화, 종려나무가지와 검으로 죽음의 승리와 순교정신을 표현 하였으며, 聖人의 표시로 머리 부분에 후광을 넣었다.

한 눈으로 보아도 우리와 같은 모습의 순교자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리스도 신앙의 메시지가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미술적 형상을 통해 교회역사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차츰 토착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미술은 그 시대의 미술양식과 조형이념뿐 아니라 信仰心과 風俗도 함께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諡福式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 성직자들도 문화의 토착화와 종교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95년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톨릭 미술상」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종교미술에 크게 이바지한 작가와 현역 미술가들 중에서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시상식을 갖게 되었다. 각 敎區에서도 전문 예술인들로 미술가회를 구성하고, 각 敎區의 미술가회가 연합하여 「한국 가톨릭미술가협회」를 조직하여 한국 가톨릭미술의 발전과 토착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창립전(1996년 9월 18일~10월 1일)을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었다.

3시기에 제작한 작품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제 3시기의 작품

| 작가 | 작품명 | 제작년도 | 재료 | 작품크기 cm | 작품소장 |
|-----|-----------------------------------|--------|-------|------------|-------------|
| 문학진 | 한국103위성인 | 1977 | 유채 | 323×376 | 혜화동성당 |
| 탁희성 | 가톨릭순교 李朝200년 26점 | 1970 | 지본채색 | 45×80 | 절두산순교박물관 |
| 탁희성 | 김대건 신부 일대기 24점 | 1971 | 지본채색 | 73×57 |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
| 탁희성 | 김대건 신부 시복의 영광圖 | 1971 | 지본채색 | 53×1230 |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
| 탁희성 | 최양업 신부 일대기 30점 | 1976 | 지본채색 | 65×48 | 절두산순교박물관 |
| 탁희성 | 동정부부 유중철(요한), 이순이(루갈다) 일대기 28점 | 1976 | 지본채색 | 63×47 | 절두산순교박물관 |
| 탁희성 | 다산 정약용 선생 일대기 22점 | 1984 | 지본채색 | 66×49 |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
| 탁희성 | 103위 성인화 103점 | 1989 | 지본채색 | 39×50 |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
| 방오석 | 예수그리스도왕을 모신 한국 순교성인들 | 1984'5 | 화선지묵채 | 440×211 | 새남터성당 |
| 방오석 | 한국순교자의 모후를 모신 새 남터에서 순교하신 성인들 | 1984'5 | 화선지묵채 | 440×211 | 새남터성당 |
| 방오석 | 한국의 순교자 성녀 콜롬바와 아녜스 자매 | 1984 | 화선지묵색 | 181×113 | 개인소장 |
| 김태 | 명례방집회 | 1984 | 캔버스유채 | 180×257 | 명동성당 |

(1) <한국103位福者圖> <도판75>



<도판75> 文學(토마스), <한국103位聖人圖>, 1977, 캔버스유채, 323×376 cm, 서울혜화동성당



<도판76> 堂上官, 1900년 (사진 47번)



<도판77> 장옷, 1900년 (사진 83번)



<도판78> 땡기머리와 복건, 1900년 (사진 434번)



<도판79> 대감과 무관, 1900년 (사진 58번)



<도판80> 황해도 안악군 매화동성당 신자가족 1898년경 (사진 39번)



<도판81> 미사보를 쓴 천주교신자, 1900년

한국 가톨릭교회는 여러 차례의 박해를 겪으면서 1만 여명 이상의 교우가 순교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103명이 聖人品에 올랐다. 그러나 시복식(1925년)이 끝나고 이 작품이 제작되기 전까지 50년이 지났어도 한국인으로서 가톨릭신자 뿐 아니라 비신자도 숭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 103位福者들을 한 폭에 그린 聖畫는 없었다. 앞에서 밝혔듯이 시복시성운동이 다시 일어날 때,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남달리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데 열의를 지닌 서울대교구 혜화성당 주임 朴喜奉(이시도로) 신부가 혜화동성당에서 제작하기로 하고, 평신도 운영위원이었던 史學者 柳洪烈(라우렌시오) 교수와 공동발의로 추진하게 된다. 1976년 9월 朴喜奉(이시도로) 신부가 전임지 절두산성당에서 聖畫 제작 일로 알고 지내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文學鎭(토마스) 교수를 찾아가 <79位福者圖>와 <24福者圖>를 참고로 하여 <한국103福者圖>를 그려 주기를 부탁한다. 文學鎭(토마스) 화백은 韓國史 및 敎會史, 服飾史, 典禮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고증과 자문을 구하면서 1년 여에 걸쳐 聖畫를 제작하게 된다.⁷⁹⁾

그러나 文學鎭(토마스) 화백이 처음에 준비한 도안은 서울 명동대성당의 <79位福者圖>와 거의 비슷한 구성이었다. 바티칸 성베드로대성전의 둥근 지붕을 배경으로 하여 그 앞에 祭衣 입을 프랑스 성직자 3명이 서 있고, 그 옆에 갓을 쓰지 않은 상투머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金大建(안드레아) 신부가 무릎을 꿇고 있는 위치에서 좌우로 남녀교우가 나뉘어져 서 있거나 꿇고 있는 서구적인 것이었는데 朴喜奉(이시도로) 신부와 柳洪烈(라우렌시오) 교수가 한국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기를 제안하자 文學鎭(토마스) 화백은 기꺼이 받아들여 도안을 바꾸어 제작하게 된 것이다.⁸⁰⁾

1977년 7월 6일 <한국103位福者圖>가 완성되어 혜화동성당 북쪽 벽에 모시고,

79) 『가톨릭신문』, 1977. 7. 2. 고증과 조연을 한 각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노기남 대주교, 교회 사학자 오기선 신부·최석우 신부, 사학자 유흥렬 교수, 극작가 이 서구 선생, 복식가 석주선 교수, 가톨릭대교수 최석호 신부, 가톨릭출판사사장 김병도 신부 등이 참여하였다.

80) 柳洪烈, 「한국 103위성인 시복경위와 그 성화의 유래」, 『比較文化研究』 제6집, 한양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87년. pp.408~409.

7월 15일 金壽煥(스테파노) 추기경의 집전으로 제막식과 축성식을 한 후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⁸¹⁾

그 후 7년 뒤 '한국 천주교창립 200주년'이 되던 해, 1984년 5월 6일 100만의 교우들이 모인 여의도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의 집전으로 시성식 제대 옆에 드높이 모셔져 축성을 받음으로써 <한국103位聖人圖>로 부르게 된 것이다. 그날 시성식에 참석한 수많은 교우들의 경배를 받은 <103位聖人圖>는 다시 혜화동성당으로 옮겨져 찾아오는 순례자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대가족의 사진을 찍어 놓은 듯한 아름다운 聖畵를 바라보면서·공간을 초월하여 그분들과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침묵으로 지켜보며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신다. 文學鎭(토마스) 화백은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103位聖人을 한 분 한 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聖人圖를 만들어 놓았다.<도판82>

앞에서 소개한 群像의 聖畵들은 대조표가 없어 신분과 의상으로 특색 있는 분들만 미루어 짐작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밖에 없다. 작품의 배경이 한국적이며, 군상표현에서 흔히 보이는 뒤의 인물들을 희미하게 처리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등장 인물 모두의 얼굴에서 개성이 나타나 있다.

103位 聖人들의 신분과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그 시대에는 신분을 중요시하여 兩班, 中人, 常民의 신분계층이 뚜렷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承旨, 繕工監과 廣興倉의 管理, 軍인, 宮女 등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였고, 직업으로는 상업, 농업, 제약, 인쇄, 書寫業 등 그 외에 靑신을 삼고 길쌈과 ㅅ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기도 하였다.⁸²⁾

81) 혜화동천주교회, 『백동 60년사』, 1987. p.145.
金壽煥(스테파노) 추기경 :

82)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 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샤를르 달레 저,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中·下, 분도출판사, 1980.
『한국79位순교복자전』, 가톨릭출판사, 1945.
이병영, 『어둠을 헤친 사람들』, 성 바오로출판사, 1968.

聖畫의 주인공인 103명의 聖人들은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개선을 기다리고 있다. 은총과 기쁨에 가득 차 있는 聖人들 각 개인의 표정이 생생하고 특색 있게 그려져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분들의 삶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 또 아름다운 도봉산의 드높은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하여 그 한가운데 잣을 쓰고 붉은 영대를 두루마기 위에 걸친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를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는 聖人들의 모습에서 가톨릭교회에서의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늠하게 한다.

앞에서 소개한 한국 순교자 79명을 그린 <영광圖><도판21>와 <79位福者圖><도판25>는 앙베르 뵘(Imbert Laurence, 范世亨)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와 교우들이 좌우 대칭으로 호위하고 있는 구도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화면 중앙에 우리 민족의 신앙을 이끈 목자로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를 배치하였다. 이는 한국적 주체성을 살려서 가톨릭교회 미술이 토착화 단계에 접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의 배경이 로마 바티칸대성전에서 한국의 서울 도봉산의 드높은 산봉우리들로 바뀌었고, 서구적인 도안의 날개 달린 서양 천사에서 한국의 仙女로 바뀌어 天衣를 두른 仙童과 仙女가 하늘을 날고 있다.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는 흰 두루마기에 순교의 피빛을 상징하는 붉은 영대를 어깨에 걸치고 합장한 모습으로 화면의 중심점이 되는 중앙에 서 있고, 聖人들은 좌우 대칭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모습으로 위치해 있다. 10명의 프랑스 성직자는 교우들 사이에서 설교를 하거나 함께 어울려 있다. 하늘에는 비스듬히 날고있는 두 선녀와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구도는 역삼각형으로 좌우에 배치된 聖人들의 무게 중심점이 되어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왼쪽 아래 미사보를 쓴 정정혜(엘리사벳) 聖女와 오른쪽 아래 무릎을 꿇고 마주한 우세영(알렉시오) 聖人과는 삼각형구도로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한다. 103位 聖人들이 덮고 있는 푸른 들판은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우리나라 어디에든 피어 있는 이름모를 풀꽃과 순결의 상징인 흰 백합꽃이 중앙에 나직하게 피어 있고, 좌우 화면 끝부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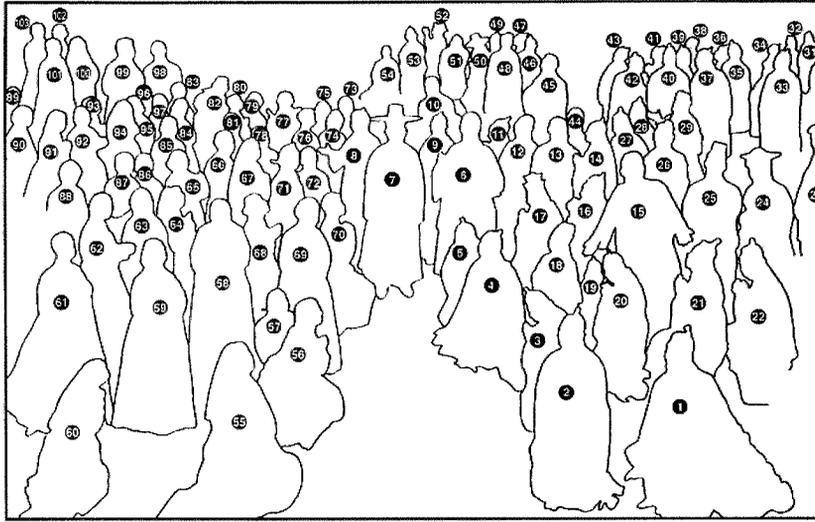
김옥희, 『한국 103위 성인전』, 순교의 맥, 2004.

도봉산이라는 지명은 혜화동성당의 『백동 60년사』에 나옴. 1987, p.145.

연분홍빛 함박꽃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짙은 청색의 밝은 빛이 감도는 하늘에는 구름이 솟아오르는 듯한 신비한 분위기가 흐른다. 하얀 구름이 퍼져 있는 하늘에 순교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 든 두 仙女가 긴 天衣를 펼럭이며 춤추듯 훨훨 날고 있지만 왼쪽의 仙女는 십자가를 들고 구름 위에 앉아 있다. 仙女들을 따라 귀 쪽으로 가늘게 머리를 땅은 仙童들이 환호성을 울리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 나서는 모습이 聖人들 바로 위에 배치되어 있다. 왼쪽의 한 仙童은 편안한 자세로 나팔을 불고 있다. 仙童들은 맨 위의 두 천사와 聖人들의 사이에 위치하여 하늘과 땅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많은 聖人들이 군집으로 인하여 아래에 쏠리는 중압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병풍 같이 펼쳐있는 기상 높은 산세의 드높은 산봉우리는 聖人들의 기세를 상징하고 아기자기 꽃들이 피어 있는 들판은 우리의 모습으로 살다 간 聖人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 땅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103位聖人圖>는 다양한 연령과 신분, 직업을 가진 聖人들 한분 한분의 모습을 문헌과 고증된 자료에서 개인의 행적과 특징을 찾아내어 신분에 맞는 복장과 소품 그리고 각기 다른 자세와 동작을 특색 있게 그려냈다. 철저한 고증에 의거한 인물 묘사는 그 분들의 삶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聖人들의 손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합장한 손, 손바닥을 펼친 손, 깍지 낀 손, 오므리거나 모으려고 하는 손동작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가슴에 얹고 있거나 손을 가슴에 엇갈리게 얹고 있는 모습, 오른 손에 묵주를 쥐고 성서를 받친 후 왼손으로 넘기고 있는 모습, 성경을 읽고 있거나 천주교에 대한 서적을 갖고 있는 모습, 천주교 신자임을 표시하는 미사수건과 묵주를 쥐고 있는 모습 등에서 하느님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성직자들의 입은 붉은 수단과 검은 수단, 祭衣의 衾帶와 中白衣, 문관인 承旨와 궁녀의 복장, 선비와 포졸과 일반인들의 복장에서 그 시대의 문화와 복식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을 믿고 신앙을 굳게 지킨 시대와 신분을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인 순교자들이 기쁨에 찬 모습으로 천상의 월계관을 기다리는 그림 속의 聖人들을 보면 볼수록 푸근한 감동과 평화를 안겨주고 있다.



<도판82> 문학진(토마스) <한국 103位 聖人圖>의 배치도

<표 6> 한국 103位 聖人名단

| 번호 | 성명 | 세례명 | 성별 | 나이 | 신분 | 순교일 | 순교지 | 순교형 |
|----|-----|--------|----|----|----|------------|---------|------|
| 1 | 정하상 | 바오로 | 남 | 45 | 회장 | 1839. 9.22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 | 우세영 | 알렉시오 | 남 | 22 | 진사 | 1866. 3.1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3 | 황석두 | 루가 | 남 | 54 | 회장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참수 |
| 4 | 정의배 | 마르코 | 남 | 72 | 회장 | 1866. 3.1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5 | 장주기 | 요셉 | 남 | 64 | 회장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참수 |
| 6 | 범세형 | 라우렌시오 | 남 | 43 | 주교 | 1839. 9.2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7 | 김대건 | 안드레아 | 남 | 26 | 사제 | 1846. 9.16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8 | 현석문 | 가롤로 | 남 | 50 | 회장 | 1846. 9.19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9 | 조신철 | 가롤로 | 남 | 45 | 마부 | 1839. 9.22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0 | 김 | 헨리코 도리 | 남 | 27 | 사제 | 1866. 3. 7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11 | 정화경 | 안드레아 | 남 | 33 | 회장 | 1840. 1.23 | 서울 포청옥 | 교수 |
| 12 | 김제준 | 이나시오 | 남 | 44 | 회장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3 | 나 | 베드로 모방 | 남 | 35 | 사제 | 1839. 9.2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14 | 박종원 | 아우구스티노 | 남 | 48 | 회장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15 | 안 | 안토니오 | 남 | 48 | 주교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군문효수 |
| 16 | 손선지 | 베드로 | 남 | 47 | 회장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17 | 남종삼 | 요한 | 남 | 50 | 승지 | 1866. 3. 7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8 | 유대철 | 베드로 | 남 | 13 | 소년 | 1839.10.21 | 서울 포청옥 | 교수 |
| 19 | 남이관 | 세바스티아노 | 남 | 60 | 회장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0 | 남명혁 | 다미아노 | 남 | 38 | 회장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 | | | | | | | |
|----|-----|--------|---|----|-----|------------|---------|------|
| 21 | 이광현 | 아우구스티노 | 남 | 53 | 회장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2 | 임치백 | 요셉 | 남 | 43 | 사공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23 | 민 | 루가 | 남 | 30 | 사제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군문효수 |
| 24 | 남경문 | 베드로 | 남 | 40 | 회장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25 | 최경환 | 프란치스코 | 남 | 35 | 회장 | 1839. 9.12 | 서울 | 옥사 |
| 26 | 유진길 | 아우구스티노 | 남 | 49 | 역관 | 1839. 9.22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27 | 홍병주 | 베드로 | 남 | 42 | 회장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28 | 홍영주 | 바오로 | 남 | 39 | 회장 | 1840. 2. 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29 | 오 | 베드로 | 남 | 29 | 사제 | 1866. 3.30 | 보령 갈매못 | 군문효수 |
| 30 | 박후재 | 요한 | 남 | 41 | 상업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1 | 이광렬 | 요한 | 남 | 45 | 양반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2 | 손자선 | 토마 | 남 | 23 | 농업 | 1866. 5.18 | 공주 공주옥 | 교수 |
| 33 | 최 형 | 베드로 | 남 | 53 | 출판 | 1866. 3. 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4 | 조화서 | 베드로 | 남 | 52 | 농업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35 | 전장운 | 요한 | 남 | 56 | 회장 | 1866. 3. 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36 | 조윤호 | 요셉 | 남 | 19 | 농업 | 1866.12.23 | 전주 전주서 | 장사 |
| 37 | 이윤일 | 요한 | 남 | 45 | 회장 | 1867. 1.21 | 대구 관덕정 | 참수 |
| 38 | 이명서 | 베드로 | 남 | 46 | 농업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39 | 유정률 | 베드로 | 남 | 30 | 상업 | 1866. 2.17 | 평양 | 장사 |
| 40 | 민극가 | 스테파노 | 남 | 53 | 회장 | 1840. 1.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41 | 정원지 | 베드로 | 남 | 21 | 농업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42 | 이문우 | 요한 | 남 | 31 | 회장 | 1840. 2. 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43 | 이호영 | 베드로 | 남 | 36 | 회장 | 1838.11.25 | 서울 | 옥사 |
| 44 | 서 | 루도비코 | 남 | 26 | 사제 | 1866. 3. 7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45 | 정 | 야고보 | 남 | 35 | 사제 | 1839. 9.21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46 | 장성집 | 요셉 | 남 | 54 | 환부 | 1839. 5.26 | 서울 포청옥 | 옥사 |
| 47 | 한계권 | 요셉 | 남 | 31 | 회장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48 | 정문호 | 바르톨로메오 | 남 | 66 | 원님 | 1866.12.13 | 전주 숲정이 | 참수 |
| 49 | 한이형 | 라우렌시오 | 남 | 48 | 회장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50 | 최창흡 | 베드로 | 남 | 53 | 회장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51 | 김성우 | 안토니오 | 남 | 47 | 회장 | 1841. 4.29 | 서울 포청옥 | 교수 |
| 52 | 허 협 | 바오로 | 남 | 45 | 군인 | 1840. 1.30 | 서울 포청옥 | 장사 |
| 53 | 권득인 | 베드로 | 남 | 35 | 회장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54 | 정국보 | 프로타시오 | 남 | 41 | 양반 | 1839. 5.20 | 서울 포청옥 | 장사 |
| 55 | 정정혜 | 엘리사벳 | 여 | 43 | 동정녀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56 | 손소벽 | 막달레나 | 여 | 39 | 부인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57 | 유소사 | 체칠리아 | 여 | 79 | 과부 | 1839.11.23 | 서울 | 옥사 |
| 58 | 현경련 | 베네딕타 | 여 | 46 | 여회장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59 | 김효주 | 아네스 | 여 | 24 | 동정녀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60 | 이 | 바르바라 | 여 | 15 | 동정녀 | 1839. 5.27 | 서울 | 옥사 |

| | | | | | | | | |
|-----|------|-------|---|----|-----|------------|---------|------|
| 61 | 김효임 | 골롬바 | 여 | 26 | 동정녀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62 | 이경이 | 아가타 | 여 | 27 | 동정녀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63 | 권진이 | 아가타 | 여 | 21 | 부인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64 | 이 | 아가타 | 여 | 17 | 동정녀 | 1840. 1. 9 | 서울 포청옥 | 교수 |
| 65 | 권 회 | 바르바라 | 여 | 46 | 부인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66 | 김임이 | 테레사 | 여 | 36 | 동정녀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67 | 전경협 | 아가타 | 여 | 53 | 궁녀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68 | 박큰아기 | 마리아 | 여 | 54 | 부인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69 | 박희순 | 루치아 | 여 | 39 | 궁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70 | 이연희 | 마리아 | 여 | 36 | 부인 | 1839. 9. 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71 | 김 | 올리에타 | 여 | 56 | 궁녀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72 | 이간난 | 아가타 | 여 | 33 | 과부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3 | 이정희 | 바르바라 | 여 | 41 | 과부 | 1839. 9.3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74 | 허계임 | 막달레나 | 여 | 67 | 부인 | 1839. 9.26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75 | 김 | 테레사 | 여 | 44 | 과부 | 1840. 1. 9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6 | 이영희 | 막달레나 | 여 | 31 | 동정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77 | 이매임 | 테레사 | 여 | 52 | 부인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78 | 우술임 | 수산나 | 여 | 44 | 과부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79 | 김아기 | 아가타 | 여 | 66 | 과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80 | 고순이 | 바르바라 | 여 | 42 | 부인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81 | 김 | 바르바라 | 여 | 35 | 과부 | 1839. 5.27 | 서울 | 옥사 |
| 82 | 최영이 | 바르바라 | 여 | 22 | 부인 | 1840. 2. 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83 | 홍금주 | 베르베루아 | 여 | 36 | 과부 | 1839. 9.22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84 | 한영이 | 막달레나 | 여 | 56 | 과부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85 | 김 | 루치아 | 여 | 71 | 과부 | 1839. 9. | 서울 | 옥사 |
| 86 | 이인덕 | 마리아 | 여 | 22 | 동정녀 | 1840. 1.31 | 서울 당고개 | 참수 |
| 87 | 이영덕 | 막달레나 | 여 | 28 | 동정녀 | 1839.12.29 | 서울서소문밖 | 참수 |
| 88 | 정철염 | 카타리나 | 여 | 30 | 하녀 | 1846. 9.20 | 서울 포청옥 | 교수 |
| 89 | 박아기 | 안나 | 여 | 57 | 부인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0 | 한아기 | 바르바라 | 여 | 48 | 과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1 | 조 | 막달레나 | 여 | 33 | 동정녀 | 1839. 9. | 서울 | 옥사 |
| 92 | 이 | 카타리나 | 여 | 57 | 과부 | 1839. 9. | 서울 | 옥사 |
| 93 | 조증이 | 바르바라 | 여 | 58 | 부인 | 1839.12.29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4 | 이소사 | 아가타 | 여 | 56 | 과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5 | 김 | 로사 | 여 | 56 | 과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6 | 김장금 | 안나 | 여 | 51 | 과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7 | 박봉손 | 막달레나 | 여 | 44 | 과부 | 1839. 9.3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98 | 백 | 유스토 | 남 | 28 | 사제 | 1866. 3. 7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99 | 장 | 시메온 | 남 | 52 | 주교 | 1866. 3. 7 | 서울 새남터 | 군문효수 |
| 100 | 김업이 | 막달레나 | 여 | 53 | 과부 | 1839. 5.24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01 | 김성임 | 마르타 | 여 | 53 | 과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02 | 원귀임 | 마리아 | 여 | 22 | 동정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 103 | 김 | 루치아 | 여 | 22 | 동정녀 | 1839. 7.20 | 서울 서소문밖 | 참수 |

(2) <김대건 신부 시복의 영광圖> <도판83>



<도판83> 탁희성(비오), <김대건신부시복의영광圖>, 1971년, 지본 채색, 부산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竹亭 卓熙成(비오, 1915~1992) 화백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7년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石黑保美 화백에게서 그림을 배운 후 한국으로 돌아와 작품 활동을 하였다. 1942년부터 개인전을 시작하여 1979년까지 한국화(동양화) 개인전 5회와 聖畫展 3회를 열었다. 그러나 卓熙成(비오) 화백은 1968년 24位 諡福式 이 후부터 초기교회 선구자들을 화폭에 담아 보고 싶은 열정에 山水와 風俗을 그리던 韓國畫에서 순교자들을 주제로 바꾸어 聖畫를 제작하게 된다. 첫 聖畫展은 1970년에 「가톨릭순교 李朝200년사」를 시작으로 1971년에 「김대건 신부 일대기」, 1976년에 「최양업 신부 일대기」와 「동정부부 유증성(요한), 이륙희(누갈다) 일대기」, 1984년 「다산 정약용 선생 일대기」를 열었다. 첫 聖畫展에서 卓熙成(비오) 화백은 부산에서 ‘오륜대 한국순교자 기념관’을 운영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창립자 윤병현(안드레아) 수녀와 홍은순(라우렌시오) 수녀를 만나게 되어 한국순교자들과 관련된 聖畫를 제작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리하여 <김대건 신부 시복의 영광圖>와 <김대건 신부 일대기圖>(26점)를 제작하게 되었고, 그 후 103位 福者들의 諡聖을 계기로 103位 聖人들의 聖畫도 4여년에 걸쳐 <103位聖人圖> 103점을 완성하게 되었다.

卓熙成(비오) 화백은 103점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聖人들에 관한 철저한 자료 수집과 교회사연구, 고증 작업을 거쳤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聖畫展은 「한국 103位 성인들의 순교화전」으로 1989년 9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열었다.⁸³⁾

畫題 ‘諡福榮光’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로마 베드로대성전에서 교

황 비오 11세 집전 아래 병오교난에 순교한 79위 복자 시복식이 거행되다. 복자 안드레아여 모든 치명자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로마 성베드로대성전에서 거행된 시복식 광경을 묘사한 장면으로 하늘 높이 오르는 광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세로가 긴 화폭을 이용하였다. 화면의 제대와 聖像은 성베드로대성전의 광경을 사실적으로 그렸고 영광 중에 오르는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를 표현하기 위하여 화면 바탕의 3/3가 하늘이다. 제대 옆에서 신비스러운 분향 연기가 피어나듯 서서히 솟아오르는 구름을 타고 김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오른손에 쥔 종려나무가지를 높이 흔들며 아기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하늘로 오르고 있는 광경이다.



<도판84> 탁희성(비오), <소현세자와 아담 샬 신부圖>, 가톨릭순교 李朝 200년—제1圖, 1970, 지본 채색, 절두산순교자기념관

<도판84>는 「가톨릭 순교 李朝200년」의 제1도이다.

병자호란으로 중국(淸)에 불모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독일인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 신부와 만나면서 천주교를 알게 되고 고국에 돌아오기 전에 천주교 서적을 받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83) 부산 오륜대 한국순교자 기념관에서 자료 제공.



<도판85> 탁희성(비오), <신앙 내력과 성장과정圖>, 김대건신부 일대기-제1圖, 1971, 지본 채색, 57×73 cm,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도판85>는 「김대건 신부 일대기」의 제1도이다.

소년 김대건(안드레아)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피(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태어났다. 순교자의 집안으로 박해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소년 김대건(안드레아)이 7살이 되던 1827년 무렵 경기도 용인 골배마실로 이주하여 살던 곳이다. 우람한 소나무 등걸에 걸터앉아 있는 소년에게서 굳은 기개를 느낄 수 있다.



<도판86> 탁희성(비오), <머슴살이圖>, 한국103위성인-제37도, 1989, 지본 채색, 39×50 cm,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도판86>은 <103位聖人圖>는 그림마다 제목과 聖人의 생몰일, 그리고 간단하게 행적이 적혀 있다. 한 쪽 한 쪽마다 103位 聖人들의 삶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성인들의 일생을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제1기와 2기에서 살펴보았듯이 殉教圖를 그리는 畫家가 많지 않던 시기에 卓熙成(비오) 화백은 韓國畫로 한국교회사의 내용과 순교자들의 삶을 조선시대 風俗畫 형식으로 풀어내어 그림을 그렸다. 그 당시 순교자들이 살고 가신 삶의 터전을 우리나라 자연을 배경으로 聖人들의 특별한 행적이나 직업, 순교모습 등을 선별하여 화폭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103位 聖人들과 관련된 서적이나 신문기사 등에 실려 많이 알려진 그림이다. 가톨릭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한국 가톨릭 教會史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聖畫로서의 또 다른 역할을 해내고 있다. <103位聖人圖>는 작품성을 떠나 103가지 형태의 개별적 삶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 고유의 회화적 정서와 어우러져 토착화 되어 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3) <예수그리스도왕을 모신 한국순교성인들圖> <도판87>



<도판87> 방오석(말가리다), <예수그리스도왕을 모신 한국순교성인들圖>, 1984'5, 440×211 cm, 화선지 목재, 새남터성당

韓國畫家 方梧錫(말가리다, 1938~) 화백은 張雲祥 화백으로부터 人物畫를 배우고 靑田 李象範 화백으로부터 韓國畫를 배운 후, 전통적인 한국화법인 세밀하면서도 간결한 필선으로 聖母子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聖母聖畫家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한국순교자를 金大建(안드레아) 신부,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 자매, 유대철(베드로)을 인물화로 제작한 작품도 여러 점이 있다. 가톨릭순교성지인 새남터성전 곳곳에 方梧錫(말가리다) 화백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찾아오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신앙의 선조이신 순교자들의 순교정신을 작품을 통하여 전해 주고 있다.

새남터는 ‘노들’ 혹은 沙南基라고도 불리던 곳으로, 조선시대 초기에는 군사들의 연무장으로 사용되었고, 국사범을 비롯한 중죄인들의 처형장으로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한 중국인 周文謀(야고버) 신부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새남터에서 순교한 뒤 1839년 기해박해 때 앙베르 범 주교와 샤스탕 정 신부, 1846년 기해박해 때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와 玄錫文(가롤로), 1866년 병인박해 때 5명의 신부와 丁義培(마르코), 禹世英(알렉시오) 등을 비롯하여 많은 교우들이 이곳에서 순교하였다. 새남터성전은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설계하여 1984년 완성하였다.

화면 중앙의 예수 그리스도는 라틴식 십자가(+)의 기본형에 윗부분에 二자형이 더 있는 십자가를 쥐고 삼층으로 된 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 계신다.⁸⁴⁾ 복장은 조선시대 국왕이 祭禮 때 착용하던 대례복을 연상시키는 청색의 옷 위에 왕족만이 사용하는 補에 십자문양을 새긴 갑바를 입고 좌우로 배치된 순교성인들에게서 경배를 받고 계신 모습이다. 張勃(루도비코) 화백의 <한국79位福者圖>와 비슷하게 층층이 평면으로 나열해 있는 구도로 오른쪽에 여교우, 왼쪽에 남교우가 대칭으로 위치해 있고, 원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 위에도 聖인들이 배치되어 있다. 멀리 구름 속에 있는 聖인들의 얼굴 표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복장으로 聖인들의 신분과 직분을 짐작할 수 있다.

84) 김종익, 『그리스도교의 상징들』, 가톨릭출판사, 1987, p.10.

聖人들은 모두 다소곳한 모습으로 정면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마주 치고 있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 남교우들은 상투만 틀고 있거나 망건을 두르고 탕건, 사모, 갓, 정자관, 전립, 패랭이모자 등 쓰고 직분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다. 화면 중앙에 무릎을 꿇고 양반자제의 복장은 한 소년은 유대철(베드로)이고, 그 뒤에 문관복장에 사모를 쓴 분은 남종삼(요한) 聖人이며, 왼쪽에 자신이 지은 上帝相書を 들고 있는 정하상(바오로) 聖人은 그 시대에 덕망 있는 선비가 입던 학과 같이 고결하고 숭고함을 상징하는 鶴氅衣 차림으로 서 있다.⁸⁵⁾ 군인이던 허협(바오로) 聖人은 戰服 차림에 戰笠을 쓰고 있다.

여교우들은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궁녀인 김유리버(올리에타) 聖女는 아암을 쓰고, 궁녀 전경협(아가다) 聖女는 족두리를 쓰고 있다. 여교우들의 옷고름은 모두 붉은 색으로 비녀는 황금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붉은색은 순교를 황금색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화면 맨 아래 물결문양의 중심에 삶의 여정을 뜻하는 듯 작은 배가 그려져 있다.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14분을 제외하고 그린 殉教圖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은 흰색 바탕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미색과 황금색으로 테두리를 하였고, 殉教聖人들의 후광은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도록 밝은 흰색으로 처리하였다.

85) 上帝相書 : 정하상(丁夏祥, 1795~1839)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護教論書이다.

(4) <한국순교자의모후를 모신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성인들圖>



<도판88> 방오석(말가리다), <한국순교자의 모후를 모신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성인들圖>, 1984년, 440×211 cm, 화선지 목재, 새남터성당

方梧錫(말가리다) 화백은 르네상스 聖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聖母子의 도상에 서 벗어나 한국적인 도상을 응용하여 서양의 聖母子를 조선시대의 전통 궁중 예복을 입고 있는 왕후와 왕자의 모습으로 탄생시켰다.

화면의 배경은 마치 十長生圖를 통하여 천상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신성함으로, 산수도를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을 정갈하고 깔끔하게 묘사하여 독특한 느낌을 전해 주고 있다. 해와 구름, 산, 물이 있고 아래의 반원형으로 표현한 물결문양의 좌우로 대칭되는 부분에 작은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다. 화면 중앙 높이 천상의 모후가 되신 聖母 마리아께서 좌우 대칭 구도로 위치한 순교성인 14분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는 聖母子를 중심으로 마주한 殉教聖인들의 모습은 다시 만난 기쁨에 평온함이 흘러넘치는 표정이다.

(5) <한국의 순교자 聖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녜스)圖> <도판89>



<도판89>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녜스) 자매圖, 화선지 묵채, 1984, 작가소장.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녜스) 聖女는 하얗게 눈이 부신 한복차림으로 길게 땀은 머리에 순교의 피를 상징하듯 붉은 땀기를 매고 있다. 언니는 오른팔을 펼쳐 고개를 조금 올려 하늘을 응시하고, 동생은 두 눈을 감고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이다. 화면을 이등분한 중앙 부분에 순결과 동정을 상징하는 백합화가 생동감이 넘치듯 한 발 가득 피어 있다. 화면의 배경이 되는 여백을 단색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은은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필치로 옷고름선과 치마 주름 선을 묘사하면서 순교를 상징하는 劒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

지 않고 순교의 피를 색으로만 표현하여 붉은 땀기가 흰 옷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다. 머리 부분의 후광은 배경이 되는 바탕에 황금 선으로만 표시하였다.

方梧錫(말가리다) 화백은 103位 聖人들만 주제로 聖畫를 제작하지 않고 1801년에 순교한 중국인 주문모(야고보) 신부, 동정부부 유중철(요한)과 이순이(누갈다)를 그린 작품도 있다. 그리고 여교우들 중에서 童貞女(15명)만 따로 뽑아 그리기도 하였다. 조선천주교회를 창설한 초기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도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하였지만, 그들이 79位 시복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시기에 순교한 교우들의 행적에 관한 정확한 기록과 증언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가톨릭교회는 초기교회 신앙의 증거자와 순교자들 가운데서 124명을 선정하여 시복시성을 준비하고 있다.

(6) <明禮坊集會圖> <도판90>



<도판90> 金泰(바오로), <明禮坊集會圖>, 1984, 캔버스 유채, 180×257cm, 서울명동성당

초기교회 신자들의 신앙상을 차분히 보여주는 聖書이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지도로 제작되던 聖書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位 시성식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초기 신앙 선조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聖書를 그리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聖書가 <明禮坊集會圖>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앞두고 완성된 聖書는 명동성당 안에 걸렸고, 시성식을 마치고 명동성당을 방문한 교황에 의해서 축복되었다.

金泰(바오로, 1931) 화백은 <명례방집회圖>의 제작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앞둔 1984년 초 명동본당 김수창 주임 신부와 사목위원회에서는 초기 천주교 명례방 집회와 관련된 聖書を 부탁하시며 교회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주었습니다. 명동성당은 서울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이자 한국 교회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784년에 현재 명동성당 부근인 명례방에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명례방 집회와 관련된 그 자료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신도 학자들이 천주학을 연구

하다가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작품에 다양한 계층의 평신도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조선사회는 유교사상이 지배적이고 신분제도가 엄격했지만 이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를 떠나 신앙 안에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兩班, 中人, 平人들까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한 형제·자매로서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린 밑그림을 여러 성직자들과 명동성당의 사목위원회 임원들이 면밀히 살펴본 후 좋다고 하여 본격적으로 聖畵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⁸⁶⁾

1784년 겨울,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실학자 李驥(요한), 權哲身(암브로시오) 등이 서울 명례방에 있는 중국어 譯官 金範禹(토마스)의 집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기도하던 모임이 명례방 집회이다. 이 집회로 말미암아 조선 땅에 드디어 교회가 창설된 것이다.⁸⁷⁾ 다음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판9> 『그림으로 보는 신앙』에 실린 자료

86) 김남철·정웅모 공저, 『그림으로 보는 신앙』, 천주교 서울대교구교육국, p.194.

87) 明禮坊 :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데, 明禮坊은 南部의 11坊 가운데 하나로 남산 아래에서부터 현재의 명동성당을 포함하여 을지로 입구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明禮坊 안에 살던 金範禹는 教友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기꺼이 제공하였지만, 1785년 초 信仰集會 중에 적발되어 한국가톨릭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假聖職者制度 :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성직자의 고유한 성무(聖務)를 집행했던 제도. 한국 천주교회 창설기인 1786년부터 1787년까지 李承勳(베드로), 權日身(프란치스코 사베리오), 柳恒儉(아우구스티노), 洪樂敏(루가) 등 10여명의 지도자들이 약 2년간 神品을 안받은 채 사제로서 미사성체를 드리고 각종 성사(聖事)를 집전하였다.

을사년(1785) 봄에 이승훈은 정약전, 정약용 등과 함께 장례원 앞에 있는 중인 김범우 집에서 설법을 하었는데, 이벽이라는 자가 푸른 두건으로 머리를 덮어 어깨까지 드리우고 아랫목에 앉아서 이승훈과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삼 형제 및 권일신 부자가 모두 제자라 일컬으며, 책을 옆에 끼고 모시고 앉았는데, 이벽이 설법하고, 깨우쳐주는 것이 우리 유가에서 스승과 제자간의 예법보다 더욱 엄격하였다. 날짜를 약속하여 모이는데 두어 달이 지나니 양반과 중인 가운데 모이는 자가 수십 명이 되었다. 추조의 금리가 그 모습이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들어가 본즉, 모두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수건을 썼으며, 거동이 해괴하고 이상스러워서 드디어 체포하고 예수의 화상과 서적들 및 몇 가지 물건을 추조에 바쳤다.⁸⁸⁾

乙巳春. 承薰與鄭若銓若鏞等 設法於掌禮院前 中人金範禹家 有李藥者 以青巾覆頭 垂肩主壁而坐 承薰及若銓若鏞三兄弟及權日身父子 皆稱弟子 挾冊侍坐 藥說法教誨 比之吾儒師弟之禮尤嚴約日聚會 殆過數朔 士夫中人會者數十人 秋曹禁吏 疑其會飲賭技 入見則舉皆粉面青巾 舉指駭異 遂捉其耶蘇畫像及書冊物種若干 納于秋曹 (券二乙巳秋曹摘發條) 李晚采, 『關衛篇』⁸⁹⁾

초기 교회 신앙집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명례방 집회 장소는 역관 김범우(토마스)의 집 사랑방이며 참석자들의 옷차림새로 보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회계층의 구별이 엄격하여 갓의 크기나 옷차림 등으로도 신분을 알 수 있다. 참석자가 모두 남자인 것은 남녀유별의 유교사상이 강했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부녀자들이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과 상민이 함께 자리한 것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모두 한 형제가 되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투를 튼 머리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 그 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갓을 쓴 중인, 평상복에 패랭이를 쓴 상인, 머리에 흰 수건으로 질끈 맨 평민이 앉아있다. 자리 배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반들 뒤에 중인과 평민이 앉아 있다. 이 시기에는 양반과 상민이 함께 자리 할 수 없지만, 金泰(바오로) 화백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

88) 이영춘, 『天主教의 東洋 傳來와 朝鮮 天主教會』, 천주교 서울대교구사제평생교육원, p.31.

89)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中人 金範禹 家門과 그들의 文書』, 1992, p.74.

으로서 모두 한 형제가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 천주교회는 假聖職者 制度의 사제로 평신도인 이벽이 신부가 되어 교회 예절을 거행하였으므로 흰 옷을 입은 인물들과 다르게 청색 도포를 입고 화면 중앙의 윗자리에 앉아 있다. 그의 書案에는 천주교 신앙의 표지인 십자가와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는데, 오른쪽 책은 펼쳐져 있고, 왼쪽에 놓인 책표지에는 『칠극』이라고 적혀 있다. 좌우의 서안에도 천주교 서적이 펼쳐져 있으며, 맨 하단 방바닥에 『칠극』이라고 적힌 책 한 권 놓여있다. 李承薰(베드로)이 세례를 받고 가져온 천주교 서적 등을 통해서 지식을 접하고 토론하며 신앙을 키워왔음을 알 수 있다.⁹⁰⁾

왼쪽 상단에 뒷모습으로 양팔을 벌리고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이가 모임 장소를 제공한 집 주인 金範禹(도마)이다.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초기 교회의 주축을 이루던 이들로, 청색 도포를 입은 이벽의 오른쪽부터 이승훈(베드로), 최창현(요한), 홍익만(안토니오), 정약용(요한),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 지황(사바), 정약중(아우구스티노), 정약전,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윤지충(바오로)이며, 이승훈 뒤 바깥쪽으로 김종교(프란치스코), 최필공(토마스)이며 오른쪽 하단의 등을 보이는 이가 최인길(마티아)이다.⁹¹⁾

진리를 찾기 위해 책을 뒤적이거나 읽고 있는 이, 이벽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듣고 있는 자세이다. 왼쪽 하단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이가 지황(사바)이며 옆의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의 말에 귀를

90) 李鑒은 1783년 李承薰이 중국으로 갈 때 그 곳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서적과 聖物을 구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1784년 봄 이승훈(베드로)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후 Louis de Grammont 신부로부터 천주상, 십자가상, 묵주를 받아와서 李鑒에게 전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七克 : 七克大全의 약칭.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판토타(D. Pantoja, 龐迪我, 1571~1618) 신부가 지은, 죄악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뿌리와 이를 극복하는 일곱 가지 덕행을 다룬 일종의 修德書이다.

天主實義 : 예수회 중국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가 저술한 漢譯西學書이다. 중국인 학자와 서양인 학자의 대화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91) 김남철·정용모 공저, 「그림으로 보는 신앙」, 천주교 서울대교구교육국, p.199.

기울이고 있다. 왼쪽 서안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이가 정약중(아우구스티노)이며, 그 옆에 오른손을 책 위에 얹고 들여다보는 이가 형 정약전이다. 오늘쪽 하단의 『천주실의』를 손에 든 이가 막내 동생인 정약용(요한)이다. 이벽의 왼쪽으로 손을 합장하고 있는 이가 윤지충(바오로)이며, 그 옆이 이존창에게 교리를 가르쳤던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황색과 흰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우리나라 전통 한옥인 사랑방의 분위기가 물씬 배어나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또 바닥은 밝은 황토색을 채색한 후 일직선의 무늬 결을 넣어 원형으로 표현된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 갖게 한다. 사랑방의 위쪽과 아래쪽에 거리가 그리 멀지 않지만 원근감이 살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가득 모여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왼쪽의 띠살문의 문창호지에는 밝은 햇살이 비쳐들고 족자가 걸린 벽 모서리와 오른쪽 벽 모서리에 사방탁자가 놓여 있다.

화면의 구도는 書案은 다근자 형으로 참석자들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원은 여기에서는 진리를 찾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관람자와 시선을 마주하지 않고 제각기 시선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중앙의 이벽은 어깨 높이만큼 오른손의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왼쪽 하단의 등을 돌리고 있는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과 마주치고 있다.

명례방집회 이 후 한국 가톨릭교회는 조선교회를 창설한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 주신 신앙을 유산으로 삼고 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녔던 불굴의 신앙을 묵상하고 본받기 위해서 매년 9월 한 달을 순교자성월로 정하여 그 분들을 기리고 공경하고 있다.

가톨릭 畫家들은 그 분들의 삶과 신앙을 다양한 조형언어로 표현하여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이 시대와 접목하여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을 통해 그 분들과 우리가 하느님의 영 안에서 서로 만나 어우러지는 장을 오늘도 마련하고 있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이 땅에 天主教가 들어와 조선천주교회가 창설된 1784년부터 諡聖式이 거행된 1984년까지 220여년의 가톨릭敎會史 안에서 미술의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순교자들을 주제로 제작된 회화를 殉敎圖로 정의하고, 시기별로 구분하여 도상의 변화를 살펴 ‘土着化’가 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 자료가 된 殉敎圖는 聖畵로 알려진 작품으로 교회에서 발행한 像本, 기념화보, 교회잡지 그리고 작가의 도록에 실린 작품이다.

한국 가톨릭敎會史와 더불어 역사가 길지 않은 미술사에서 殉敎圖가 차지하는 범위는 넓지 않다. 그 이유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화가들도 많지 않아 순교자를 주제로 발표된 작품도 적고, 시복시성을 기념으로 殉敎圖가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가톨릭 회화에서 연구 자료와 관련된 작품만 선택하여 제작된 그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토착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러모로 미흡하지만 서양의 聖畵에서 자주 쓰이는 서구적인 도상이 한국적인 도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殉敎圖는 시기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작품의 경향은 聖畵로서의 의미를 담아내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작가의 신앙 안에서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본 미술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1기 : 1784년~1925년 조선천주교회 창설부터 79위시복식까지>

제1기는 초기단계로서 한국 순교자들을 주제로 그린 최초의 殉敎圖는 이탈리아 畵家 쥬스타니안(Giustanian)이 諡福 기념으로 그린 <영광圖>이다. 한국 畵家의 활동은 1920년부터 시작된다.

1784년 조선천주교회가 창설되고, 신자 화가로 알려진 李喜英(루가)이 그렸다

는 聖畵는 한 점도 남아 있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 또 그 시기에 신자들이 보고 모사하였다는 聖畵는 예수像이나 聖母像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聖畵 1점이 절두산순교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자료 수집으로 알게되어 聖畵의 유입과 관련하여 실어보았다. 이 보다 먼저 昭顯世子가 서양문물과 함께 가져왔다는 聖畵도 문헌으로 확인하였지만 소각되어 현존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북경에서 昭顯世子가 만난 독일인 아담 샬(Schall von Bell, Johannes Adam) 신부는, 중국에 입국하여 明의 승정제에게 圖像을 증정하였다. 그 圖像은 앞에서 밝혔듯이 천주교교리를 설명한 그림으로 昭顯世子가 선물로 받은 天主像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831년부터 우리나라에 진출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교회미술품들을 본국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그들이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선교사에 의한 교회미술품의 직접 제작은 가톨릭미술의 土着化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들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과 서구적인 경향의 작품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최초로 우리나라 순교자들을 聖畵를 통하여 알린 사람은 이탈리아 畵家 쥬스타니안(Giustanian) 작품은 群像으로 그린 <영광圖>와 순교 장면을 묘사한 <소년순교자 유대철(베드로)殉敎圖>, <순교자 김효임(골롬바)·김효주(아네스)圖>, <세 프랑스 신부殉敎圖> 등 4점이 있다. 위의 4점을 제작한 이탈리아 畵家 쥬스타니안(Giustanian)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작품이 소장된 곳을 내어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인이 그린 첫 聖畵는 張勃(루도비코) 화백의 <可敬者 김대건(안드레아)신부圖>(1920년)가 있다.

<제2기 : 1926년~1968년 : 79位시복식 후부터 24位시복식까지>

제2기는 도약기로서 한국의 첫 聖畵家 張勃(루도비코) 화백을 중심으로 가톨릭 畵家들의 모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한국적인 도상으로 민족적 정서를 공감하게 하는 작품들이 서양화뿐 아니라 한국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1기에서 보았듯이 외국인 화가의 서구적인 인물묘사는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리고 24位 諡福 기념미사 때 제대 위에 걸었던 聖畵도

외국 畫家가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한국적인 도상을 찾을 수 없다. 張勃(루도비코) 화백이 그린 <79位福者圖>(1934년 제작 추정)는 서구의 종교적인 도상만 차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인물묘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동양인답게 표현하였다. 외래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성이 한국적인 현실과 만나 토착화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토착화는 단지 한국적인 도상의 도입으로 토착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적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와 형식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24位 시복(1968년 10월 6일)을 준비하면서, 1964년 4월에 개최된 주교회의에서 '병인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절두산순교기념관(1967년 10월 21일 축성)에 정창섭(암브로시오) 화백의 <순교자(별칭 : 영광)圖>(1968년 9월 30일 완성)를 1968년 10월에 설치하였다.

<제3기 : 1969년~1984년 : 24位시복식 후부터 103位시성식까지>

제3기는 본격적인 토착기로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후 로마 가톨릭교회는 모든 분야에 토착화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한국교회 창설200주년」과 「103位 諡福式」을 앞두고 가톨릭 畫家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많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과 예술성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메시지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조형언어로 표현됨으로써 차츰 土着化가 진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톨릭미술가회가 조직되어 다양한 조형언어로 작품을 제작하지만 殉教圖에 관한 작품은 철저한 고증과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순교자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文學鎭(토마스) 화백의 <한국103位福者圖>가 바로 그것이다.

위의 3시기를 구분하여 殉教圖에서 보여지는 작품의 토착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는 르네상스 聖畫의 서구적인 도상과 한국적인 도상이 혼합되어 그려진 것이 특색이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순교자들을 그린 聖畫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도상으로 종려나무가지, 백합, 검, 형벌도구, 순교자들이 처형된 장소 등이 殉教圖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시기는 초기 순교성인들의 상징적인 도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 고유의 복장을 입은 순교자로 표현하여 민족 정서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셋째 시기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殉敎圖의 중심인물이 한국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종교적 예술 작가는 창조적 생명력을 지닌 신앙인이어야 한다. 그의 체험적 신앙 고백이 표출되어 작품을 빚어내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예술품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신적인 영역을 연결 지어 신앙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톨릭 미술가들은 토착화된 조형언어로서 사회 현실을 담아 낼 수 있는 예술적 도구가 될 때 그는 자신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정신으로 느끼는 표현에서 토착화가 발전하고, 예술인들이 그 시대를 느끼고 그 민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때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것을 보편화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토착화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1984년 103位 시성식까지 작품을 다루었다. 향후 한국 가톨릭교회는 초기교회 지도자를 포함한 124位 시복시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그 날에 한국 가톨릭 미술사에 또 하나의 획이 그어질 殉敎圖가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해 본다.

참고 문헌

【학위논문】

- 權奇姪, 『韓國基督教 美術 研究—작가를 中心으로, 안동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 김영주, 『한국 기독교미술의 聖像畫 연구—1920~1960년대의 가톨릭, 개신교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류제봉, 『한국 주요성당의 가톨릭 聖美術品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전례공간의 聖美術品, 경희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方梧錫, 『한국 가톨릭 미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徐茲禧, 『韓國 基督教 美術의 高察』,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申鉉基, 『韓國 基督教 美術에 관한 研究—회화부문을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李益魯, 『한국 개신교 미술에 관한 연구—회화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춘만, 『韓國 聖像에 關한 考察—實態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林昭侖, 『韓國 基督教 美術에 관한 研究—회화부문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鄭山南, 『韓國의 基督教 美術에 관한 史的 考察—繪畫를 中心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鄭實羅, 『韓國 基督教 美術에 關한 研究—韓國畫를 中心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조윤경, 『張勃의 생애와 작품활동에 관한 연구—가톨릭 聖畫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일반논저】

- 김정옥, 「迫害期 宣教師의 韓國觀」, 『韓國教會史論文集 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 金珠瑛, 「그리스도敎 傳來에 따르는 韓國 西洋畫의 流入의 軌跡」, 『홍익미술』, 1972년(창간호)
- 방오석, 「現代 韓國가톨릭 美術에 關한 研究」, 『韓國教會史論叢』,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裴賢淑, 「17·8世紀에 傳來된 天主教書籍」, 『教會史研究 第3輯』,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 裴賢淑, 「朝鮮에 傳來된 天主教 書籍」, 『韓國教會史論文集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유흥렬, 「韓國103位聖人 諡福經緯와 그 聖畫의 유래」, 『순교지와 순교유물』 신유 박해연구논문집·2,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 尹敏求, 「典禮의 土着化」, 『司牧』 114호, 1987.
- 李龜烈, 「韓國 가톨릭美術 2백년의 軌跡」, 『계간미술』 26호, 1984.
- 李南奎, 「教會美術의 土着化」, 『司牧』 115호, 1988.
- 이연호, 「한국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 『기독교미술의 원리와 과제』, 통합연구학회, 1993.
- 이영춘, 『天主教의 東洋 傳來와 朝鮮 天主教會』, 천주교서울대교구사제평생교육원, 2000.
- 張貞蘭, 「昭顯世子 研究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 『教會史研究 第9集』,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 趙 珖, 「가톨릭리즘과 韓國文化의 만남」, 『司牧』 107호, 1986.

- 崔爽祐, 「기해일기의 몇가지 문제점」, 『韓國教會史의 探求』,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崔爽祐, 「東亞細亞에서의 教會의 土着化」, 『韓國教會史論文集 I』, 한국교회사, 1990.
- 崔爽祐,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初期天主教會」, 『韓國教會史의 探求』,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崔爽祐, 「西學의 受容過程」, 『韓國教會史의 探求』,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崔爽祐, 「朝鮮後期の 西學思想」, 『韓國教會史의 探求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 崔爽祐, 「韓國教會史는 어떻게 敘述되어 왔는가?」, 『韓國教會史의 探求』,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도록】

- 김원모·정성길,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근대한국(1871~1910)』, 가톨릭출판사, 1997.
- 金奉圭, 『세계의 명화』 I~IV권, 삼성출판사, 1984.
- 방오석, 『韓國의 聖畵』, 분도출판사, 2001.
- 스테파노 주피, 『천년의 그림 여행』, 예경, 2005.
- 오륜대한국순교자기념관, 『한국 103위 성인들의 순교화집』,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989.
- 이규현, 『사진으로 보는 近代韓國 上,下』, 서문당, 1986.
- 장금선, 『이콘·신비의 미』, 기쁜소식, 1993.
- 鄭洵在, 『사진으로 보는 舊韓末(1880~1920)』, 매일관광문화사, 1980.
- 정진석, 『명동성당』, 가톨릭출판사, 2002.
- 하인츠 스크로부카(Heinz Skrobucha)·에드워드 로트만(Eduard Rotmann), 『유럽 聖畵(ICON)集』, 韓獨美術家協會, 1982.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영원의 모습』, 분도인쇄출판사, 1984.
- 한국교회사연구소,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시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한국교회사연구소, 『빛, 믿음, 흔적』,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 한중배, 『성화상』 3권, 성요셉출판사, 1989.
- 황규완, 『영감의 예술』, 석경미술, 2003

【사전】

- 국어국문학회, 『밀레니엄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 주비언 피터 랑, 『전례사전』, 가톨릭출판사, 2005.
-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1권~1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2005.

【단행본】

- H.V.스트라렌 외, 『제2차바티칸 공의회문헌해설총서 5』, 성바오로출판사, 1993.
-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 『종교와 예술』, 열화당, 1994.
- 구재덕, 『성화상의 의미』
- 김남철·정웅모, 『그림으로 보는 신앙』, 천주교서울대교구교육국, 2000.
- 김옥희, 『103위 성인전』, 순교의 맥, 1984.
- 김옥희, 『韓國天主教女性史 I·II』, 한국인문과학원, 1983.
- 김종익, 『그리스도교의 상징들』, 가톨릭출판사, 1987.
- 金昌文·鄭宰善, 『韓國 가톨릭 어제와 오늘』, 가톨릭코리아사, 1988.
- 마크 로스킬, 『美術史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4.
- 박정일, 『제2차바티칸 공의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샤르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上·中·下』, 분도출판사, 1979.

- 徐奉南, 『基督教美術史』, 집문당, 1994.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예술』, 풍만, 1987.
- 여진천,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기쁜소식, 2002.
- 吳光洙, 『韓國現代美術史』, 열화당, 1982.
- 유홍렬, 『增補 한국천주교회사 上·下』, 가톨릭출판사, 1984.
- 윤민구, 『전례의 토착화』, 가톨릭출판사, 1990.
- 윤선자, 『한국 가톨릭 문화 유산과 절두산 순교 기념관』, 절두산순교기념관, 1999.
- 李龜烈, 『近代韓國美術史의 研究』, 미진신서, 1994.
- 李龜烈, 『近代韓國美術의 展開』, 열화당, 1982.
- 이중희, 『한·중·일의 초기 서양화 도입 비교론』, 열과말, 2003.
-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 정진석, 『너는 주주 놓고 나는 세우고』, 바오로딸, 1995.
- 줄리오 단떼, 『한국 신앙의 씨앗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 천주교혜화동교회, 『백동 60년사』, 천주교혜화동교회, 1987.
- 천주교혜화동교회, 『우리과 함께 머무소서—한국 교회의 성미술』, 기쁜소식, 1997.
- 한국교회사연구소, 『만남과 믿음의 길목에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 한국교회사연구소, 『뫼텔주교일기 6 / 1916~192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한국사목연구소, 『교리교육·복음선교의 토착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한국사목연구소, 『전례·영성의 토착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 黃嗣永, 『黃嗣永 帛書 외』, 정음사, 1975.

부록

<한국103位聖人圖> 聖人들의 모습

- 김옥희, 『103위 성인전』, 순교의 맥, 2004 참조

| | | |
|---|---|--|
| 1 |  | <p>丁夏祥(바오로, 1795~1839. 9. 22), 45세, 신학생, 회장, 서울 서소문 밖</p> <p>聖人은 오른쪽 하단에 가장 넓게 공간을 차지한 위치에서 무릎을 꿇고 비스듬히 앉은 자세로 왼손에는 조선교회의 호교론인 '上梓相書'와 목주를 들고 있다. 그 당시 양반들의 상징인 턱수염을 기른 지긋한 선비의 모습으로 오른손은 풀밭을 짚고 고개를 약간 젖힌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 그동안 주님의 도구로서 조선교회의 재건과 성직자 영입을 위하여 모든 임무를 완성하셨다는 기쁨에 가득 찬 표정을 읽을 수 있다.</p> |
| 2 |  | <p>禹世英(일렉시오, 1845~1866. 3. 11), 22세, 진사, 서울 새남터 군문호수, p.315.</p> <p>聖人은 겸손한 자세로 흰 도포 차림에 망건만 쓰고 두 손은 깍지 끼고 무릎을 꿇고 있다. 과거에 급제한 젊은 선비로 출세의 길이 훤히 열렸지만 하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무芥같이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체포된 뒤 혹형을 못 이겨 배교하지 않, 곧 회개하고 포도청에 자수하여 혹심한 곤장과 많은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聖人의 뉘우치는 모습을 강조하듯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주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p> <p>“나는 지난 번 배교했던 일만으로도 많은 고통을 체험했소, 이제 나는 나의 스승이신 주교님과 함께 죽기만을 바랄 뿐이요”, 휘랑이의 칼춤 속에 세 번째 내려치는 칼에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다.</p> |
| 3 |  | <p>黃錫斗(루가, 1813~1866. 3. 30), 54세, 회장, 보령 갈매못</p> <p>聖人은 양반 집안의 삼대독자로 태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손에 넣을 수 있는 과거시험을 치려고 가던 중에 길을 되돌려 진리를 찾아 귀가하였다. 부친이 여물을 썰던 작두로 생명을 위협해도 태연했던 그는 갖은 비난과 무시를 받으면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병어리로 지낸 후 가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였다.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한 聖人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한 후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 진리를 찾은 기쁨에 마냥 흘러내리는 눈물을 누가 볼까봐 옆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p> |
| 4 |  | <p>丁義培(마르코, 1795~1866. 3. 11), 72세, 회장, 서울 새남터에서 군문호수</p> <p>聖人은 순교 당시 머리카락이 없어 수염으로 머리를 매달았다고 한다. 항상 하늘나라를 원하던 모습으로 흰색 도포에 細條帶메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느님 저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제게서 도로 거두어 주신다면 더할 영광 없사옵습니다.' 라고 두 손을 활짝 펼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한평생 '산 聖人'의 삶으로 살아오신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두 손과 기부좌의 자세가 삼각형 구도가 되어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p> |
| 5 |  | <p>張周基(요셉, 1803~1866. 3. 11), 64세, 회장, 보령 갈매못 군문호수, p.330.</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 위에 망건을 쓰고, 눈을 지그시 감고 大君大父[하느님]를 뵈옵는 듯 왼손으로 오른손을 포옥 감싸고 턱에 괴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1845년경 제천 땅 배론 골짜기에 살았는데 1855년 그 곳에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자 자신의 집을 신학교로 쓰게 한 후 11년간 신학교 살림을 이끌었다.</p> <p>“제가 을사년(1845) 제천으로 옮겨가서 聖敎를 배우니 실로 大君大父의 가르치심입니다. 비록 형틀아래 만 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교 할 이치는 만무하니 어서 처리하여 주십시오.”</p> |

| | | |
|----|---|---|
| 6 |  | <p>앵베르 范 리우렌시오(Laurent Joseph Marius Imbert, 洪世亨, 1796~1839. 9.21) 주교 43세, 서울 새남터, p.119</p> <p>聖人 앵베르 범 주교는 압록강의 얼음을 타고 의주 관문을 숨어들어 오신 후 衣食住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제2대 조선교구장으로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교사의 직무를 다하셨다. 붉은 색 수단 위에 입은 하얀 中白衣 하단에는 서양 레이스 문양이 그려 있고 황금색 영대를 어깨에 걸치고 있다. 왼손은 '무거운 짐과 멍에를 맨 자는 다 내게로 오라'(마태11:28)는 표시인 듯 벌리고 있으며, 오른손은 강복을 주는 모습이다.</p> <p>“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자, 그들은 군인들에 의해 손을 결박당한 채 가마를 타고 형장으로 끌려갔다. 형장에 이르자, 군사들은 그들의 겨드랑이에 긴 몽둥이를 꿰고 화살로 귀를 뚫고, 얼굴에 화를 뿌린 다음 군중의 조롱과 욕설을 듣게 하지만 너무나 태연하게 천상의 기도만을 하고 있다.”</p> |
| 7 |  | <p>金大建(안드레아, 1821~1846. 9. 16) 신부, 26세, 서울 새남터</p> <p>聖人은 한국의 첫 사제로서 화면 중앙에 위치해 있다. <79位福者圖>에서는 마티칸 대성전을 배경으로 왼쪽에는 女敎友가 오른쪽에는 男敎友가 배치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사제들이(백 랑페르 유스또 신부—98번, 장 베르너 시메온 신부—99번) 女敎友들과 함께 있고 현석문(가롤로, 8번) 聖人은 여교우들에게 교리를 전하고 있다.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는 흰 버선위에 흑혜를 신고 검은 갓을 쓰고 소매가 넓은 도포를 입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만, 십자가와 붉은 빛을 수놓은 붉은 영대를 메고 어깨에 메고 있어 사제임을 알 수 있다. 손은 가지런히 붙이고 가슴 위에 합장한 모습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굳건한 반석임을 알 수 있다.</p> |
| 8 |  | <p>玄錫文(가롤로, 1797~1846. 9. 19), 50세, 회장, 서울 새남터</p> <p>聖人은 도포를 입고 상투를 틀어 올린 머리에 망건만 쓰고 있다. 턱수염을 기른 지긋한 모습의 聖人은 중년 계급 출신이다. 중국인 周文謙(야고보) 신부의 순교로 성직자 없는 조선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의 첫 사제인 金大建(안드레아) 신부 바로 옆에 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좋은 길로 안내해 주리라는 손의 표현으로 오른손을 펴고 女敎友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님은 현경련(베네딕타, 58번)이다.</p> |
| 9 |  | <p>趙信喆(가롤로, 1796~1839. 9.22), 45세, 미부, 서울 서소문 밖</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만 쓰고 두 손을 깎지 끼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다. 비록 常民이었지만 세상의 계급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소임을 온전히 일구어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한 삶을 바친 온화한 모습에서 순박한 미소가 스며 나오고 있다. 23세 때 冬至使의 마부가 되어 劉進吉(아우구스티노, 26번)과 丁夏祥(마오로, 1번)을 알게 되어 북경을 왕래하면서 성직지영입을 도왔다.</p> |
| 10 |  | <p>쥘 헨리교 도리(Pierre Henri Dorie, 1839~1866. 3. 7) 신부, 27세, 서울 새남터, p.290.</p> <p>聖人은 검정색 수단에 소백의를 입고 붉은 영대를 걸치고 서 있다. 오른쪽으로 살짝 얼굴을 내밀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두 손을 깎지 끼고 교우들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에서도 한국인으로 살고 싶었던 聖人の 아름다운 마음이 聖書에서도 한국인과 함께 하려는 간절함으로 고개를 넘어서 돌려 보는 모습에서 한껏 묻어나온다.</p> <p>1866년 경기도 용인 손곡리에서 한국말을 배운 聖人은 문조를 하는 도중에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하자, “이 나라에 머무는 동안 말을 배웠으니, 죽었으면 죽었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였다.</p> |

| | | |
|----|---|--|
| 11 |  | <p>鄭化경(안드레아, 1807~1840. 1. 23), 33세, 회장, 서울 새남터</p> <p>聖인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합장을 하고 앵베르 주교의 왼쪽 어깨 뒤편에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서 있다. 앵베르 범 주교 뒤에 聖인을 배치한 것은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박해를 피해 내려온 앵베르 범 주교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것은 회장으로서 교회의 많은 일을 도왔지만, 본성이 순박하고 양순한 반면 고지식하여 포졸들의 핏에 빠져 주교의 거처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聖인은 자신의 부족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 돌아서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p> |
| 12 |  | <p>金濟儼이나시오, 1797~1839. 9.22), 44세, 회장, 서울 서소문 밖, p.147.</p> <p>聖인은 1814년에 순교한 金震厚(비오, 1738~1814)의 손자이며, 金大建(안드레아) 신부의 부친이다. 시선은 약간 위로 향하고,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 쓰고 있다. 두 손을 짝지 끼고 모든 것을 주님의 안배와 섭리에 맡긴 모습으로 서 있다. 聖인은 굳게 다짐했던 자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邪學(천주학)을 신봉한다는 죄와 국법을 거슬러 아들을 마카오에 보낸 죄로 국사범이라는 중죄를 가하자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였다. 그러나 형조로 이송된 후 즉시 취소하고 뉘우치며 순교하였다. 옥에 있는 교우들은 “마음을 돌려 당신의 잘못을 고백한 다음, 재판관 앞에 나가 배교하겠다는 말을 취소하고 순교자로 세상을 마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고하였다.</p> |
| 13 |  | <p>羅 베드로 모방(Pierre Philibert Maubant, 羅伯多祿, 1804~1839. 9.21) 신부, 35세, 서울 새남터, p.120</p> <p>聖인은 검은 수단에 흰 소백의를 입고 붉은 영대를 어깨에 걸친 聖인의 모습에서 멜키세덱(Melchizedek)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한 사제적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조선교우와 함께 의주 변문을 통과하여 입국한 첫 사제로 착한 목자로서 3년 9개월간 헌신적으로 선교의 뜻을 피우기 위하여 활동 하였다. 한국 사제양성을 위하여 김대건(안드레아), 최양업(토마스), 최방제(프란치스코) 등 세 소년을 마카오에 유학시켰다.</p> <p>“항상 어린 시절의 꿈 [세계의 끝까지 가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포교를 하겠다]을 키우기 위하여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었다.”</p> |
| 14 |  | <p>朴宗源(아우구스티노, 1792~1840. 1. 31), 48세, 회장, 서울 당고개, p.219.</p> <p>聖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신 듯 순교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에서 품위를 느낄 수 있다. 부인은 고순이(바르바라, 80번)이다.</p> <p>聖인의 罪名은 “그는 천당과 지옥을 마치 확인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며, 제사를 헛된 예식이라 하여 폐하고, 천주를 중심으로 믿고 공경하여 죽을지언정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노라고 맹세하였다.”</p> |
| 15 |  | <p>安 다블뤼 안토니오(Marie Nicolas Antoine Daveluy; 安敦伊, 1817~1866. 3. 30), 주교, 남, 48세, 보령 갈매못, p.318.</p> <p>조선교구 제5대 교구장인 聖인은 자주색 수단 위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소백의를 입고 어깨에 황금색 영대를 걸치고 있다. 교회의 참 목자로서 양 떼를 인도하듯 두 팔을八字형으로 펴고 가슴에 십자가를 걸고 있다. 조선의 첫 사제 金大建(안드레아) 서품식과 첫 미사에 참석하고 페레올(Ferrol, 高) 주교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입국하였다. 21년 동안 가장 조선인으로 사셨던 聖인은 언어와 풍습에도 능통하여 저술과 편찬에 힘썼다.</p> <p>“신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漢韓佛字典』을 편찬하고, 신심서 및 교리서를 번역 저술하였다. 『聖教要理問答』, 『天主教禮規』, 『天堂直路』 등의 번역서와 『神命初行』, 『悔罪直指』, 『領洗大義』, 『省察記略』 등의 저서들은 모두 그의 노력에 의한 것들이었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사와 순교사의 정리는 그의 두드러진 업적들 중의 하나이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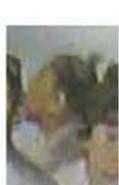
| | | |
|----|---|---|
| 16 |  | <p>孫善지(베드로, 1820~1866. 12. 13), 47세, 회장, 전주 숲정이, p.349.</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황색 두루마기를 입고 두 손을 깎지 끼고 무릎을 꿇고 장례를 하고 있다. 聖人이 유일하게 황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이유는 처형장으로 나설 때 다른 신자에게 자기 옷을 주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오 이 옷은 더 이상 내게 소용이 없으니 이 옷을 입시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p> <p>“이윽고 칼을 든 병졸이 聖人의 어깨를 내리치자, “장난하지 마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순교의 율계관을 얻었다.”</p> |
| 17 |  | <p>南鍾三(요한, 1817~1866. 3. 7), 50세, 승지, 서울 서소문 밖, p.299.</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이층 程子冠을 쓰고 있다. 文官으로 승정원의 정삼품 承旨까지 지낸 높은 신분이었음을 복장으로도 알 수 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장례하고 있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清白 吏로서 의덕과 겸손의 청빈한 삶을 살아왔음을 느낄 수 있다. 官職으로 인하여 신앙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조국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였다.</p> <p>“나는 이제 國法에 따라 죽지만 나라를 배반한 일은 털끝만치도 한 일이 없다. 비록 나는 죽고 또 죽을 때까지 심한 고통을 받겠지만, 나에게 악의에 찬 어떤 행위를 가한다 해도 나는 내세의 영복을 위해 즐겁게 받고 참으리라”</p> |
| 18 |  | <p>劉大喆(베드로) 남 13세 소년 (1827~1839. 10. 21) 서울 포청옥, p.170.</p> <p>103位 聖人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순교한 聖人은 흰색 저고리에 푸른색 전복을 입고 테두리에 금박을 두른 복건을 쓰고 있다. 두 손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약간 들어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교의 은혜를 꼭 내려 주세요.’ 라는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다.</p> <p>하루는 옥쇄장이 담뱃대로 그의 넓적다리를 내리쳐 살점을 한점 떼어내며, “이래도 아직 천주교를 버리지 않겠느냐?”고 소리쳤다. “그가 그럼요, 이렇게 한다고 배교할 줄 아세요.”라고 대답하자, 분개한 옥쇄장은 벌건 솟덩이를 집어넣으려고 입을 벌리라고 하였다. 두려워함이 없이 순순히 입을 벌리자, 옥쇄장이 기가 막혔는지 물러나고 말았다.</p> |
| 19 |  | <p>南履瀆세바스티아노, 1780~1839. 9. 26), 60세, 회장, 서울 서소문 밖, p.134.</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무릎을 꿇고 있다. 부친 南必容은 1801년 5월 10일 강진으로 유배 되었다가 사망하고, 20세인 聖人은 경상도 단성 땅으로 유배되어 그 곳에서 趙曾伊(바르바라, 93년)와 결혼하였다. 그 당시 사회풍습으로 자녀가 없어 침을 두었던 聖人은 천주교 교리를 알고 회개한 후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듯, 왼손으로 목주를 돌리며 기도하고 있다.</p> <p>형장에 가기 위해 수레에 오르면서 하인에게 자신과 함께 체포되어 옥중에 있는 아내에게 “우리는 같은 일을 위하여 죽도록 하자.”는 말을 전하였다.</p> |
| 20 |  | <p>南明顯다미아노, 1802~1839. 5. 24), 38세, 회장, 서울 서소문 밖, p.55.</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장례를 하고 있다. 두 손을 깎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젊은 시절 잘못된 생활을 뉘우치듯 통회하는 모습이다. 천주교에 입교한 후 신자분분을 철저히 지켰다.</p> <p>하루는 친구 한 사람이 웃으면서 그에게 “저 세상에서 자네 이름을 무어라고 부를 것이가?”하고 물으니, “천주를 위하여 순교한 聖衣會의 남 다미아노라고 불러주면 원이 없겠네.”라고 하여 순교의 뜻을 말하였다.</p> |

| | | |
|----|---|--|
| 21 |  | <p>李光獻(아우구스티노, 1787~1839. 5. 24), 남, 53세, 회장, 서울 서소문 밖 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두 손을 합장하고 왼발은 세우고 장례하고 있다. 辛酉年(1801)에 여러 순교자를 낸 廣州李氏 집안에서 태어난 聖人은 젊은 시절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다. 천주교에 입교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 主保聖人(聖 아우구스티노)을 본받아 과거생활을 완전히 청산한 기쁨과 순교의 월계관을 차지한 감격에 끊임없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동생은 이광렬(요한, 31번), 부인은 권희(바르바라, 65번), 딸은 이 아가타(64번).</p> |
| 22 |  | <p>林致百(오셉, 1804~1846. 9. 20), 남, 43세, 시공(포졸), 서울 포청옥, p.267. 聖人은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으로 긴 턱수염을 기르고 흰 바지저고리를 입고 있다. 외교인으로 포청옥에서 金大建(안드레아) 신부 만나 세례를 받은 聖人은 무식한 자녀도 효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신앙고백을 하였다. “十誠命을 외우지 못하는 완전한 신자가 아니니 배교를 권하는 포장 앞에서 “저는 비록 무식하지만 천주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만하면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면서 참수 치명하기를 원하였다.</p> |
| 23 |  | <p>閔 루기(Martin Luc Huin, 1836~1866. 3. 30) 신부, 30세, 보령 갈매못, p.436. 聖人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을 저곳이 감고 있다. 검은 수단 위에 소백의를 입고 붉은 영대를 어깨에 걸친 후 손은 편안하게 포개어 아래로 내리고 서 있다.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떠나시면서 의금부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순교자의 후손으로 잘 살고 있는지 반성케 한다. “나는 젊어서 죽는 것도 칼을 받아 죽는 것도 고��스럽지 않다. 그러나 저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괴롭다.”</p> |
| 24 |  | <p>南景文(베드로, 1796~1846. 9. 20), 40세, 군인(회장), 서울 포청옥, p.256. 聖人은 금위영의 병정으로 검은색 전복에 푸른 띠를 허리에 두르고 술이 달린 군모를 쓰고 있다.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부친으로부터 신앙을 받지 못하고 20살에 병이 들어 대세를 받고 입교한 聖人은 순교의 월계관을 차지한 흠족한 마음으로 두 손은 깎지 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서 있다. 포청옥으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는 중에 “나는 천주께서 창조하신 물건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나라에서 쌀도 많이 받았습시다. 그러나 이제는 순교하는 길밖에 없으니 나라의 패를 반납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p> |
| 25 |  | <p>崔京煥(프란치스코, 1805~1839. 9. 12), 35세, 회장, 서울 포청옥 聖人은 두건을 쓰고 있으며, 두 손은 깎지 끼고 고개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순교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다. 포졸들을 따라 교우 40여 명을 데리고 서울로 향하던 중 도중에 외교인들이 일행을 놀리며 비웃었지만, “형제들, 용기를 내시오, 주의 천사가 금재(金尺)를 가지고 당신들의 걸음을 재고 있는 것을 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을 서서 갈마리아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시오”라고 소리치며 모든 이들을 격려했다.</p> |
| 26 |  | <p>劉進吉(아우구스티노, 1791~1839. 9. 22), 남, 49세, 역관, 서울 서소문 밖 聖人은 순교 당시 정3품 堂上譯官의 높은 벼슬이었다. 조선시대 文武百官들의 常服인 네모진 흉배에 紋樣이 있는 담홍색의 團領袍를 입고 紗帽를 쓰고 있다. 배교를 강요하는 형제와 친지들에게 천주를 안 뒤에 그분을 배반할 수 없으며 육신의 사정보다도 내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니,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 교우가 되십시오.”라고 하여 신앙을 지켰던 굳건한 믿음을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다. 이들은 유대철(베드로8번)</p> |

| | | |
|----|---|--|
| 27 |  | <p>洪秉周(베드로, 1798~1840. 1. 31), 42세, 회장, 서울 당고개</p> |
| 28 |  | <p>洪永周(바오로 1801~1840. 2. 1), 39세, 회장, 서울 당고개 聖人은 홍영주(바오로, 28번)와 형제지간이다. 형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오른손으로 十字聖號를 그으려는 듯 자세이고, 뒤 쪽의 동생 홍영주(바오로)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눈을 감고 서 있다. 그 당시 법은 형제를 같은 날 죽이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따로따로 형을 집행하여 묘이 순교한 다음날 동생도 순교의 월계관을 차지하여 천국에서도 사이좋게 앞뒤에 배치되어 있다.</p> |
| 29 |  | <p>뫼 베드로 오메트르(Pierre Aumaitre, 1837~1866. 3. 30), 신부, 29세, 보령 갈매뭇, p.327. 聖人은 검은 수단에 흰 소백의를 입고 붉은 영대를 어깨에 걸치고 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 주님께서 운명하신 시간과 같은 시간에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다. 그 기쁨을 나누려는 듯 오른손을 활짝 펴고 있다. “오메트로 신부를 포함한 세 선교사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250리나 떨어진 충청도 水營의 갈매뭇 사형장으로 끌려가 참수 치명하니, 그 날이(1866년 3월 30일) 예수 수난일(聖 金曜日)로 예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라고 전하여진다.</p> |
| 30 |  | <p>朴厚巖(요한, 1799~1839. 9. 3), 41세, 상인(신정수), 서울 서소문 밖, p.102 聖人은 두 손을 깎지 끼고 하늘을 날고 있는 천사를 바라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천상보화로 여기고 간직하여 순교의 월계관을 차지한 기쁨을 한껏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관장이 “임금께서 이 敎를 금하고 있으니, 너는 그 금령을 어기는 것이다”고 하자,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저는 임금님보다도 하느님께 더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敎는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니, 배교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p> |
| 31 |  | <p>李光烈(요한, 1795~1839. 7. 20), 45세, 동정, 서울 서소문 밖, p.84. 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두 손을 깎지 끼고 있다.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후에는 세속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독신생활을 하였다. 이광현(아우구스티노, 21번)의 아우이고, 권회(바르바라, 65번)의 시동생이며, 이 아가타(64번)의 숙부이다. “포청에 압송된 후 온갖 혹독한 형벌을 당하여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만을 고백하여 여러 차례 주뢰를 틀리며 곤장을 맞고, 오랫동안 옥에 刑과 笞刑을 당하였다.” 영광스런 순교의 월계관을 차지하여 천상행복을 누리고 있다.</p> |
| 32 |  | <p>孫子善(도마, 1820~1866. 5. 18), 28세, 농부, 공주 공주옥, p.337. 聖人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李光烈(요한)을 쳐다보며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 일세’ 하고 말하는 듯 하다. 3대째 천주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聖人은 내포 지방을 중심으로 전교하면서 순교 자료를 모아 성직자들에게 전하고, 그의 집에서 모든 공소 예절을 하였다. 관장이 “이 미련하고 고지식한 놈아, 네가 정녕 배교하지 않는다면, 네가 끝까지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네 손으로 네 살점을 때 내든지 아니면 피를 보이든지 하여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배신한 것으로 판단하겠다.” 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이빨로 두 손등을 물어뜯어 신앙을 증거 하였다.</p> |

| | | |
|----|---|---|
| 33 |  | <p>崔 炯(베드로, 1814~1866. 3. 9, 53세, 회장(출판), 서울 서소문 밖, p.305.</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팔을 편안하게 내리고 두 손을 잡고 있다. 부친은 20세 때 영세 입교하여 가족들을 모두 주님께 봉헌하였다. 형 최수(요한)은 순교자이고 동생 최방제(프란치스코)는 최초의 신학생 중 한 명이다. 모든 교회서적을 정리를 할 때 출판책임자로 임명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 나가며 4년 동안 주님의 도구로 일하였다.</p> <p>언제나 목에 목주 걸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 聖人の 사형선고문에는 “이 자들은 흑심한 곤장에도 굴하지 않고 쇠나 돌같이 고집들이 세어 邪敎를 단념하지 않을 것을 맹세까지 한 자들이다. 또 이들은 진리를 고백하면서 자기들 사형 선고문에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 이에 국법을 따라 이들을 마땅히 사형에 처하노라”고 기록되어 있다.</p> |
| 34 |  | <p>趙화서(베드로, 1815~1866. 12. 13, 52세, 농업(농부), 전주 숲정이, p.305.</p> <p>36. 趙윤호(요셉)는 아들</p> <p>聖人이 서 있는 그 앞에 아들 조윤호(요셉, 36번)가 위치해 있다. 聖人은 아들과 함께 순교의 월계관을 얻기 위하여 후손이 끊어지는 세속적 유혹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옥중에서 아들이 배교할까봐 노심조사하였던 마음을 이제는 놓고 두 손을 꼭 쥐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p> <p>“요셉아! 결코 뜻을 굽히지 마라, 원님 앞에 가서도 기어이 진리만을 대답해야 한다. 하고 아들을 격려하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천주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마시라”고 당부하며 父子가 서로 순교를 각오했다. 처형 직전에 회광이에게 “그대여! 천주교를 믿어보시오. 우리는 죽으면서도 진리인 하느님을 신봉하지 않은가”라고 복음을 전한 후 성호를 긋고 나서 세찬 칼을 세 번 받았다.</p> |
| 35 |  | <p>全長雲(요한, 1866. 3. 9, 56세, 출판공(상인), 서울 서소문 밖</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있다. 흰 두루마기가 구름 그늘에 희색빛으로 물들여 있다. 두 손은 깎지 끼고 왼쪽으로 돌아보며 교회서적 출판에 참여하다가 함께 순교한 聖人 崔炯(베드로, 33번)을 바라보고 있다. 장 주교의 명에 의해 교회서적 출판을 위해 板刻 장만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교우들이 피신을 권하지만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p> <p>“내가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천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체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체포되나 다른 곳에 피했다가 체포되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교우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귀중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목관이 교회에 매우 유익하다고 믿기에 어떠한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달게 받으며 여기를 지키렵니다.”</p> <p>교회서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한 聖人の 모습을 읽을 수 있다.</p> |
| 36 |  | <p>趙윤호(요셉, 1848~1866. 12.23, 19세(농업), 전주 숲정이</p> <p>34번 趙화서(베드로)의 아들</p> <p>聖人은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9명의 聖인들 무리 속에 싸여 얼굴 부분만 보인다. 포졸에게 체포된 부친이 아들에게 멀리 피하라고 당부하자 “아버지, 저더러 이제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지도 같이 묶여 가기가 소원입니다. 이제껏 믿어온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저도 잡혀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날을 그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하며 아버지와 함께 잡혀 압송되었다. 1839년에 순교하신 祖父 조 안드레아, 父親 趙화서(베드로), 조윤호(요셉)의 장한 순교로 연 3대의 순교자 가문이 되었다.</p> |

| | | |
|----|---|--|
| 37 |  | <p>李尹一(요한, 1823~1867. 1. 21), 남, 45세, 회장, 대구 권덕정</p> <p>聖人の 왼쪽으로 민극가(스테파노, 40번) 회장, 이문우(요한, 42번) 회장, 이호영(베드로, 43번) 회장이 함께 그려져 있다. 聖人は 긴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두 손은 깍지 끼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민극가(스테파노, 40번) 회장에게 ‘우리가 천주를 믿어서 이렇게 영복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며 다정스레 말을 건네고 있다. “사형선고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순교하러 떠난다. 너희들은 집에 들어가 성실하게 천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꼭 나를 따라 오너라” 하며, 돈주머니를 꺼내어 회광이에게 주며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네에게 줄 터이니 받아서 요긴하게 쓰게 나. 그 대신 부디 한 칼에 내 목을 베어 주게나.” 하고 말한 후 경건하게 십자성호를 긋고 조용히 꿇어앉아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다.</p> |
| 38 |  | <p>李명서(베드로, 1821~1866. 12. 13), 남, 46세, 농업(농부), 전주 숲정이</p> <p>聖人は 천주교신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지 고개를 높이 들고 하늘 바라보고 있다. 착하고 어진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聖人は 가슴앓이로 고생을 하였는데, 신자들이 다 그를 박해를 예상하고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나는 병 때문에 피하지 못할 처지이고 천주님의 안배에 의지할 따름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병은 영원히 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순교할 뜻을 밝혔다.</p> |
| 39 |  | <p>劉正律(베드로, 1837~1866. 2. 17), 30세, 회장, 평양, p.279.</p> <p>聖人は 자신을 때렸던 배교자들을 기억하는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p> <p>“1866년 새해 첫날 저녁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전부 체포되어 평양감영에 끌려갔다. 심한 곤장을 받은 신자들은 모두 배교하여 聖人만 남게 되자. 화가 치민 감사는 배교자들에게 곤장을 주면서 쳐 죽이라고 명을 내렸다. 聖人は 자기를 때리는 동료들에게 “아, 진실로 육신이 육신을 잡아먹으니 슬픈 일입니다.”라고 통곡하며 배교자들의 매에 숨졌다. 배교자들이 대동강에 던져 버린 시신은, 얼마 후 붉은 피가 번져 나가면서 가라앉지 않고 등등 떠 있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매 맞은 자리마다 이상한 광채가 빛났다는 것이다.”</p> |
| 40 |  | <p>閔克可(스테파노, 1787~1840. 1. 30), 53세, 회장, 서울 포청옥</p> <p>聖인이 회장으로서 굳고도 온화한 성격과 바른 태도로 비신자들을 입교시킨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왼쪽 이문우(요한, 42번) 회장과 오른쪽 이운일(요한, 37번) 회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p> <p>어느 배교자의 밀고에 따라 체포된 聖인에게 포장이 “이 敎를 버리겠다고 하면 즉시 놓아주마.” 하자 그는 “만약에 나를 놓아주면 다시 내 종교를 준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교하여 회두시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옥중에서도 상처를 못 이겨 신음하면서도 배교자를 꾸짖고, 목숨을 아까워하여 가족을 걱정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며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권면하여, 여러 사람이 배교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p> |
| 41 |  | <p>鄭원지(베드로, 1845~1866. 12. 13), 21세, 농부, 전주 숲정이, p.358.</p> <p>聖人は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옥중에서 아내에게 전했던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가 오리니 그날을 기다립시다.” 하던 날을 생각하듯 옆모습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p> <p>“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만나 뵙기 위해서라도 聖敎會의 진리를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던 聖인에게, 포청의 관리 하나가 술에 취하여 희롱하며 “죽어 천당은 무슨 놈의 천당이나?”고 하며 하늘을 향해 욕을 퍼붓자, 머리를 번쩍 들고 “그래 너는 네 아버지, 네 어머니를 저주하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머리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p> |

| | | |
|----|---|---|
| 42 |  | <p>李文祐(요한, 1840. 2. 1), 남, 31세, 회장</p> <p>聖人は 회장으로로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오른쪽의 회장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독신생활이 소원이었던 聖人は 아내와 두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자, 수탁생활을 실천하는데 전념하였다. 비록 독신생활은 못하였지만 한 평생 사제들을 따라다니며 도와드렸다. 선교사들이 순교한 후에는 교우들과 함께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노고산에 모셨다.</p> |
| 43 |  | <p>李孝英(베드로, 1803~1838. 11. 25), 36세, 회장, 서울, p.23.</p> <p>聖人は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꿈으로 순교를 예감했던 聖人は 4년 동안 옥중생활을 하면서 갖은 심문과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옥중에서 병으로 늙게 되자 “나는 칼날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었으나, 모든 일이 하느님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겼다.</p> |
| 44 |  | <p>徐 루도비코(1840~1866. 3. 7) 신부, 26세, 서울 새남터, p.294.</p> <p>聖人は 어린시절에 어머니가 성모님께 봉헌하였다. 아홉 살에 소신학교에 입학하고 전교를 향한 열망을 품기 시작하여, 1864년 7월 15일에 프랑스 파리를 출발하여 도리(Dorie, 鎭) 신부, 브르트리에르(Bretnieres, 白) 신부, 위앵(Huin, 閔) 신부와 함께 1865년 5월 27일 조선의 내포 지방에 도착하였다.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하여 “이토록 잘 전교할 수 있는 지방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라고 행복스럽게 말하며, 고해성사를 들을 정도로 한국말에도 능숙해졌다고 한다.</p> |
| 45 |  | <p>鄭 사스탕 야고버(1804~1839. 9. 21) 신부, 35세, 서울 새남터, p.124.</p> <p>聖人は 변문을 통과하고 表服을 입고 걸어서 서울에 도착했던 그날을 생각하며 감회가 새로운 듯 기쁨이 넘쳐흐르는 모습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두 손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p> <p>聖人は 변문을 통과한 후, 기쁨에 넘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천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구원과 특히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할 것이므로 어떤 일이라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회가 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감수할 힘을 주님께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p> |
| 46 |  | <p>張성진(요셉, 1786~1839. 5. 26), 54세, 환부, 서울 포청옥, p.62.</p> <p>聖人は 왼손을 들고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다. 아마 이 땅에 살면서 냉담했던 시절과 돈벌이에 급급했던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서 있는 듯 하다.</p> <p>聖人は “자기의 과거 허물을 통회하고, 그전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성서를 읽었으며, 세속의 유희를 더 잘 피하기 위하여 외교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집에 들어 앉아 문을 단아걸고 굶주림과 추위에도 상관하지 않고 기도와 공부에만 전심하였다. “나의 지난날의 죄가 오로지 의식을 풍족히 하려는 욕망에서 온 것이었으니, 暖衣飽食 하느님보다 차라리 주님과 추위를 택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잠시 피로움을 견디어 뉘으로써 죽은 후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 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금도 굶히려 들지 않았다.</p> |
| 47 |  | <p>韓재권(요셉, 1836~1866. 12. 13), 31세, 회장, p.355.</p> <p>聖人は 아기 천사들이 날아오는 먼 하늘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포졸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에 장작을 패고 있던 聖人は 쉽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전주 감옥에 있던 聖人は 여러 가지 심문과 고문보다도 가족들의 구명 운동과 배교 강요 때문에 심한 번민을 하였다.</p> <p>부친은 친구 박 별감에게 석방을 교섭하고 간절한 편지를 보내지만 聖人は “배교하라는 말씀은 부당합니다. 아버님이 아무리 애쓰셔도 소용없는 헛고생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위해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거절하였다.</p> |

| | | |
|----|---|---|
| 48 |  | <p>鄭文浩(바르톨로메오, 1801~1866. 12. 13), 66세, 원님, p.343.</p> <p>聖人は 양반집의 자제로 태어나 원님까지 지낸 선비로 학식과 교양과 인격을 겸비하였다. 신자들에게나 비신자들에게나 차별 없이 상대했고, 또 교리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예의범절도 잘 가르쳐 주어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p> <p>전주 순정이 형장으로 가는 도중 그는 조화서(베드로)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 천국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조화서(베드로)는 “그렇고말고요, 우리의 행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끔찍한 형벌 중에 있지만, 잠시 후에 眞福을 받으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응수하였다.</p> |
| 49 |  | <p>韓履亨(리우렌시오, 1799~1846. 9. 20), 48세, 회장, p.259.</p> <p>聖人は 14세 때 천주교 교리를 배운 후부터 여러 시간동안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던 습관으로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聖人は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애국시사로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었고, 포졸들이 감탄할 정도로 혹독한 고문도 잘 참아내어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다.</p> <p>“포졸들이 배교하라는 강요를 거절하자, 또 다리를 묶고 그 사이에 끼인 그릇 조각들을 끼우고 나서 굵은 밧줄로 튼튼을 하여 살이 파이도록 하였다. 그가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자, 포졸들이 다른 신자들에게 “너희들도 진실한 천주교인이 되려면 한이형처럼 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p> |
| 50 |  | <p>崔昌畵(베드로, 1787~1839. 12. 29), 53세, 회장, 서울 서소문 밖</p> <p>聖人は 두 손을 합장하고 갓을 꼭 눌러쓰고 있다. 지난날의 자기 생활이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여 순교만이 자신의 잘못을 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여 순교하고자 하는 열렬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가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다.</p> <p>“최 베드로와 그의 가족은 6월에 함께 잡혀 포도대장 앞에 끌려가 7회에 걸쳐 지극히 혹독한 신문(訊問)을 당하였다. 형조에서 사형이 인도되어 서소문 밖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옥에 있는 부인과 딸에게 ‘눈물과 고통은 옥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순교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나의 뒤를 따르기 바란다.’고 옥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p> |
| 51 |  | <p>金暉暉(안토니오, 1795~1841. 4. 29), 47세, 회장, 서울 포청옥, p.246.</p> <p>聖人は 깍지 낀 두 손을 얼굴 가까이 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교할 수 있었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이인 聖인과 둘째가 즉시 입교하였고, 오래지 않아 셋째 뿐 아니라 여러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하여 경기도 광주 구산 마을이 열렬한 교우촌이 되었다. 배교하라는 재판관의 독촉에 천주교인임을 명백히 주장하였다.</p> |
| 52 |  | <p>許 翊(바오로, 1796~1840. 1. 30), 45세, 군인, 서울 포청옥, p.215.</p> <p>聖人は 훈련도감의 군인 복장을 입고 籠笠을 쓰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천사들을 환호하듯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다. 한 번의 배교로 치욕적인 형벌도 받았지만 순교의 월계관을 받은 기쁨이 온몸에서 넘치고 있다.</p> <p>“나는 배교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뉘우칩니다. 입으로는 일시적인 형벌을 못 이겨서 배교하였지만 마음에 있는 신앙심은 버리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 신앙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을 통회하고 새로운 형벌을 당할 작정으로 왔습니다. 화가 난 옥졸은 내가 참으로 뉘우친다면, 여기 사발이 있으니 저 통에 있는 인분을 퍼서 마시도록 하여라. 聖人は 서슴치 않고 한사발을 듬뿍 떠서 단숨에 마셔버리고 또 퍼 마시려고 하자, 옥졸들이 그를 말렸다.”</p> |

| | | |
|----|---|---|
| 53 |  | <p>權得仁(베드로, 1805~1839. 5. 24, 35세, 상인, 서울 서소문 밖, p.60.</p> <p>聖人은 두 손을 깎지 끼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다. 아마 함께 체포되었지만 배교하여, 순교하지 못한 부인과 처남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찾고 있는 모습이다.</p> <p>聖人은 “어찌하여 천주교를 믿느냐?” 하는 포장의 질문에 “천주는 천사와 사람과 만물의 임금이시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며 이 모든 물건을 사용하고 하느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감사할 생각을 두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천주를 공경하고 섬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p> |
| 54 |  | <p>丁국보(프로타시오, 1799~1839. 5. 20), 41세, 상인, 양반, 서울 포청옥, p.29.</p> <p>聖人은 두 손을 합장하고 턱씩 주저앉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관리들의 감언이설과 유혹에 빠져 배교하고 석방되었지만, 심한 가책을 느껴 침식도 잊고 지내다가 열심한 신자의 격려와 권고에 용기를 얻어 지수한 聖人은 그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이다. 기해 박해령이 선포된 후 첫 번째 순교자이다.</p> <p>형조의 문지기는 그가 찾아와 자기가 배교한 사실과 배교한 것을 취소하고 죽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 못난 놈아, 한번 말했으면 그만이지 못 들어간다.”라고 호령하며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형조판서가 지나갈 길목에 지키고 앉아 기다렸다가 그는 길 한 가운데 엎드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입으로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지금 뉘우칩니다.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언제까지든지 그러하고자 합니다.”하고 애원하였다. 그래도 판서가 그냥 지나치려 하자, 그가 하도 큰소리로 부르짖고 애원함으로 판서는 귀찮게 여기고 그를 잡아 옥으로 끌고 가도록 명했다.</p> |
| 55 |  | <p>丁情惠(엘리사벳, 1797~1839. 12. 19), 43세, 동정녀, 서울 서소문 밖, p.191.</p> <p>聖人은 흰 미사보를 쓰고 흰 한복을 입고서 무릎을 꿇고 장쾌하고 있다. 합장한 두 손에 쥐고 있는 묵주는 열심히 기도생활하면서 아름다운 덕행과 인내를 쌓아 동정 서원을 지켰고 성직자들의 생활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형장에서 기도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던 聖人의 강건하고 고결한 인품을 하늘을 향해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다. 아버지는 초기교회 설립자 중의 한 분이며 1801년의 신유박해 때에 순교한 정약종(아우구스티노)이고, 어머니는 유소사(체칠리아, 57번), 오빠는 정하상(바오로, 1번)이다.</p> <p>형장으로 떠나면서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세요”</p> |
| 56 |  | <p>孫小鶯(막달레나, 1801~1840. 1. 31), 39세, 부인, 서울 당고개, p.227.</p> <p>聖人은 흰 한복 차림에 곱게 쪽 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두 손을 합장하고 옆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聖人一家로 남편은 崔昌治(베드로, 50번), 딸은 崔榮伊(바르바라, 82번), 사위는 趙信喆(가롤로, 9번)이다. 두 살짜리 젖먹이 딸을 떼어내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모든 고통을 참아 영광의 월계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모습에서 聖人의 깊은 신앙심을 읽을 수 있다.</p> <p>“만일 천주께서 나를 도와주하지 않는다면, 내 힘만으로는 벼룩이나 이가 주는 괴로움조차 참더라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참아내는 힘은 오직 천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p> |

| | | |
|----|---|--|
| 57 |  | <p>柳召忠(체칠리아, 1761~1839. 11. 23), 79세, 과부, 서울, p.173.</p> <p>聖人是 103位聖人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분으로 백발의 쪽진 머리에 흰 한복을 입고 두 손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나라법이 노인에 대한 침수를 금하였기 때문에 갖은 문초와 형벌에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참아내어 옥 바다에 누워 마지막으로 '예수 마리아'를 소리 내어 부르고 숨을 거두었을 聖人の 모습에서 순교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넘쳐흐른다.</p> <p>“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辛酉박해 때에 순교한 남편 정약중(아우구스티노)이 나타나 “나는 천국에 방 여덟이 있는 집을 지었소, 그 중 다섯은 찾는데 나머지 세 방은 아직 빈 채로 있도오. 그러니 생활의 곤궁함을 잘 참아내어 꼭 우리를 만나러 오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聖人の 식구 8명 중에서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p> |
| 58 |  | <p>玄敬連(베네딕타, 1794~1839. 12. 29), 46세, 여회장, 서울 서소문 밖</p> <p>聖人是 쪽진 머리에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저고리에는 청색과 홍색의 술이 달린 노리개를 달고 있다. 기도 책과 묵주를 든 聖人에게서 주님을 섬기던 삶을 엿볼 수 있다.</p> <p>부친은 역관 출신인 현계흠이며, 시아버지는 조선교회의 창립 주역인 최창현이다. 오빠는 현석문(가롤로, 8번)이다.</p> <p>聖人은 기도와 묵상과 독서를 정한 시간에 하였고, 냉담하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었으며, 자기 개인의 성화를 위해 힘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이의 聖化를 위해서도 힘썼다.</p> |
| 59 |  | <p>金孝珠(아네스, 1816~1839. 9. 3), 24세, 동정녀, 서울 서소문 밖, p.110.</p> <p>聖人은 땅은 머리에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 땀기를 매었다. 흰 저고리의 끝동은 청색이고 옷고름은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달았다. 치마 끝으로 태사혜 코가 보인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듯 두 손을 다소곳하게 가슴에 올리고 있다. 아름다운 동정의 덕을 쌓아 많은 이의 귀감이 되었다. 언니는 김효임(골롬바, 61번)이다.</p> <p>“하루는 형리들이 아네스를 외딴 감방으로 끌고 가서 ‘학춤’이라는 형벌을 가하였다. 이 형벌은 죄수의 옷을 벗기고 손을 뒤로 결박 지어 공중에 매단 후, 여러 사람이 번갈아 매질을 하는 것이었다. 몇 분만 지나면 허가 나오고 거품이 고이며 얼굴빛이 검붉어져서 쉬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것이다.</p> |
| 60 |  | <p>李 빌라(1825~1839. 5. 27), 15세, 동정녀, 서울, p.69.</p> <p>聖人은 땅은 머리에 붉은 땀기를 매고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있다. 허계임(막달레나, 74번)는 외조모이며, 이영희(막달레나, 76번)와 이정희(바르바라, 73번)는 이모이다. 서울 청파동에서 부모 형제가 모두 교인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 모두 여의어 이모들이 키웠다.</p> <p>교황청 講書에 “포도청에 끌려가서 무수한 형벌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형조의 刑官은 “나이 어린 것이 요물이다”고 경탄하였다.</p> |
| 61 |  | <p>金孝任(골롬바, 1814~1839. 9. 26), 26세, 동정녀, 서울 서소문 밖, p.156.</p> <p>聖人은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왼손에는 묵주를 오른 손에는 순결을 상징하는 두 송이 백합꽃을 들고 있다. 동생 김효주(아네스, 59번)와 자메이므로 두 송이는 두 사람의 순결을 뜻한다. 흰 저고리에 청·홍색의 술이 달린 노리개를 차고 있다. 서울의 밤섬이라는 마을의 부유한 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김효임(골롬바)는 6남매 중 둘째이고, 김효주(아네스)는 넷째, 글라라는 다섯째이다. 세 명은 모두 동정을 지켰다.</p> <p>포장이 천주교도임을 확인하고 난 후 어찌하여 그 나이에 혼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골롬바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여 천지, 神人, 만물을 조성하신 천주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말을 이렇게 정확히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p> |

| | | |
|----|---|---|
| 62 |  | <p>李瓊伊(아가타, 1813~1840. 1. 31), 27세, 부인, 서울 당고개</p> <p>聖인은 청색 끝동을 달은 흰 저고리에 붉은 옷고름은 순교를 상징하고 있다. 한영이(막달레나, 84번)의 딸 권진이(아가타, 63번)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궁녀를 감독하던 내시에게 속아서 출가했던 결혼이 교회법상 무효가 되어, 권진이(아가타) 집에 의지해 살았기 때문이다. 두 아가타는 함께 기도하고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p> |
| 63 |  | <p>權珍伊(아가타, 1819~1840. 1. 31), 21세, 동정녀, 서울 당고개, p.234.</p> <p>聖인은 붉은 옷고름이 달린 연두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받쳐 입었다. 이경이(아가타, 62번)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으며, 순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당대에 문장과 명필로 뛰어났던 학자이며 양반인 권 진사와 한영이(막달레나, 84번)의 딸로 태어난 聖인은 뛰어난 미모와 굳은 신앙심을 가진 아름다운 규수로 교우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으로 일어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죄를 기워 갚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순교를 간절히 원하였다.</p> <p>“시형선교를 받은 후 한 교우에게 옥중서간을 썼는데, 대단한 열심과 순교할 간절한 원의와 박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간곡한 말과 크게 회심하는 인사가 표현되어, 많은 교우들이 감동을 받았다.</p> |
| 64 |  | <p>李 아가타(1823~1840. 1. 9), 17세, 동정녀, 서울 포청옥, p.205.</p> <p>聖인은 흰 미사보를 쓰고 붉은 옷고름이 달린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어머니와 함께 서 있다. 왼쪽이 어머니 권희(바르바라, 65번)이며 아버지는 이광현(아우구스티노, 21번)이다. 살포시 든 오른손에서 순수한 마음이 묻어 나온다. 부모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였다.</p> <p>형리들은 부모가 배교하고 석방되었다고 하자, 그녀는 “저의 부모님이 배교를 하고 안하고는 그분들의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섬겨온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분명히 했다.</p> |
| 65 |  | <p>權 禧(바르바라, 1794~1839. 9. 3), 46세, 부인, 서울 서소문 밖</p> <p>聖인은 하늘 높은 곳에서 환호하는 천사를 바라보며, 두 손은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원래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결혼 후에 남편 이광현(아우구스티노, 21번)과 함께 천주교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광렬(요한, 31번)은 시동생이고, 이 아가타(64번)의 어머니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일가’이다. 남편을 도와서 앵베르 범 주교 및 신부들을 집에 모시고 신자들에게 미사에 참례케 하고 성사를 받도록 배려하였다.</p> |
| 66 |  | <p>金任伊(데레사, 1811~1846. 9. 20), 36세, 동정녀, 포청옥, p.268.</p> <p>聖인은 눈을 감고 조용한 모습으로 순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미 일곱 살 때에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聖인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 할 뿐이라고 기도 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다.</p> <p>“결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하여 왕비궁의 침모로 들어가 3년 동안 살았다. 그러다가 1844년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식복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동생에게 “언제고 신부님이 잡히시면 나는 자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부님의 뒤를 따를테니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마라.”</p> |

| | | |
|----|---|---|
| 67 |  | <p>손敬俔(아기타, 1787~1839. 9. 3), 53세, 궁녀, 서울 서소문 밖, p.139.</p> <p>聖人은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던 소매 끝에는 흰색 거들지(끝동)가 달린 연두색 쓰개를 쓰고 있다. 궁녀 박희순(루치아, 69년)을 만나 그녀의 감화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궁중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훌륭히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편안하고 사치스런 궁중 생활을 병을 핑계로 용감히 박차고 나와 박희순(루치아)과 함께 살았다.</p> <p>“포장이 너는 궁녀로서 다른 부녀들과는 다른데 어떻게 邪道에 혹하였느냐?” 하고 묻자 아가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천주는 천사와 사람과 만물의 임금이요 주재이십니다. 이 천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착한 이를 상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니 그분은 우리의 대군대부이십니다.”</p> |
| 68 |  | <p>朴大阿只(마리아, 1786~1839. 9), 34세, 부인, 서울 서소문 밖</p> <p>聖人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 높이 올려보고 있다. 앞쪽의 궁녀복을 입은 박희순(루치아, 69년)의 언니이다. 동생 루치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교인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집을 나와 조카 집에서 동생(루치아)과 함께 지내던 중 체포되었다. 국법에 따라 동생(루치아)과 같은 날 순교하지 못하고, 동생이 순교한 후 참수형을 받고 치명하였다.</p> |
| 69 |  | <p>朴喜順(루치아, 1801~1839. 5. 24), 39세, 동정궁녀, 서울 서소문 밖, p.50.</p> <p>聖人은 길상문양이 찍힌 궁중예복을 입고 첩지를 얹은머리에 긴 비녀를 꽂았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아름다움과 총명함으로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았고, 궁중에 불러 들어가 왕후의 시녀가 되었다. 30세쯤 되었을 때에 천주교를 믿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궁중에 매인 몸일 뿐 아니라, 김 대비의 총애를 받고, 다른 궁녀들을 보살피는 상궁의 자리와 선왕의 위패를 지키는 소임을 맡았기에 궁궐을 빠져 나오기가 매우 힘들었다. 신앙 때문에 병을 빙자하여 궁중에서 나왔다.</p> <p>포장은 “궁녀는 다른 여자와 달리 높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러한 邪學을 어찌 믿을 수가 있단 말이나!”고 꾸짖었다. 이에 루치아는 “지희들은 邪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천주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의 의무입니다.”</p> |
| 70 |  | <p>李連喜(마리아, 1804~1839. 9. 3), 36세, 부인, 서울 서소문 밖, p.108.</p> <p>聖人은 무릎 꿇고 간절한 눈빛으로 김대진(안드레아) 신부를 바라보고 있다. 남명혁(다미아노, 20년)의 아내로 남편이 회장직을 잘 수행하도록 안주인의 역할을 다한 넉넉한 모습에서 거룩함이 배어 나온다. 남편과 함께 주교와 신부들을 집으로 모시고 침례를 보았으며, 성직자와 신자들이 모여오면 이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등 갖은 열성을 보였다. 이러한 그녀의 모범은 많은 교우들의 마음을 끌었다.</p> <p>어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마음을 송두리째 바쳐 천주를 진실히 사랑하였고, 그 영혼의 원은 오직 천국을 향하여 있었다.”고 하였다.</p> |
| 71 |  | <p>金琉璃代(울리에타, 1784~1839. 9. 26), 56세, 궁녀, 서울 서소문 밖, p.136.</p> <p>聖人은 궁중예복을 입고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 족두리를 쓰고 있다. 17세에 동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전부 뽑아버려 신앙의 견고함을 증명하였다.</p> <p>그녀는 성격이 강직하고 의지가 굳었으며, 그녀의 언행은 엄격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의 접촉은 거의 없이 기도와 묵상에 전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리에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여인이다”라고 칭찬하였다.</p> |

| | | |
|----|---|--|
| 72 |  | <p>李干蘭(아가다, 1814~1846. 9. 20), 33세, 과부, 서울 포청옥</p> <p>聖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며 두 손을 꼭 쥐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의 어느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여덟 살 에 시집을 갔으나 3년 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혼자 생활하였다. 천주교 이야기를 들은 후 재가하라는 권고를 물리치고 신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간청하였다. 다행히 친척 중에 신자인 명이 있어 쉽게 이루어져 중국인 유방제(劉方濟, 파치피코)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았다.</p> |
| 73 |  | <p>李貞喜(바르바라, 1799~1839. 9. 3), 41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p> <p>聖인은 어느 가난한 양반집에서 태어났다. 허계임(막달레나, 74번)의 딸이며, 이영희(막달레나, 76번)의 언니이다. 완강한 외교인이자 천주교를 몹시 싫어하는 아버지 때문에 동정을 지키기 위하여 3년 동안 앓은병이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밑에서 동정을 지킬 수 없다면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소원대로 신자와 혼인을 할 수 있었다.</p> |
| 74 |  | <p>許季任(막달레나, 1773~1839. 9. 26), 67세, 부인, 서울 서소문 밖</p> <p>聖인의 두 딸은 이영희(막달레나, 76번)와 이정희(바르바라, 73번)이다. 비록 남편은 천주교를 몹시 싫어하여 입교시키지 못했지만, 남편 몰래 신앙을 지키며 두 딸을 입교시킨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에도 힘입어 두 딸이 훗날 순교하였다. 특히 그녀는 딸 이정희(바르바라)가 동정을 지키기 위해 외교인 청년과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서울로 가서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을 볼 때, 그녀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겪은 희생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p> |
| 75 |  | <p>김 데레사(1796~1840. 1. 9), 44세, 과부, 서울 포청옥</p> <p>聖인은 미사보를 쓰고 있는데,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당고모이다. 조부 김진후(비오)는 1814년에 해미에서 순교했고, 부친인 김한현(안드레아)는 1816년에 대구에서 순교하였다. 열일곱 살에 손연옥(요셉)에게 출가하여 여러 자녀를 낳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함으로써 모범적인 가정으로 만들었다.</p> |
| 76 |  | <p>李英喜(막달레나, 1839. 7. 20), 31세, 동정녀, 서울 서소문 밖, p.86.</p> <p>聖인은 어머니 허계임(막달레나, 74번)과 언니 이정희(바르바라, 73번)와 고모 이매임(데레사, 77번)은 모두 열심한 신자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완고한 외교인이라 몰래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성장하자 아버지는 딸을 출가시키려 하고, 이영희(막달레나)는 동정을 지키기 위하여 집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자신이 범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며 신앙을 지켰던 聖인에게서 숭고함이 느껴진다.</p> <p>딸이 고모 집에 무사히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에 더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허락하였다.</p> |

| | | |
|----|---|---|
| 77 |  | <p>李梅任(데레사, 1788~1839. 7. 20), 52세, 부인, 서울 서소문 밖, p.76.</p> <p>聖人은 황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충만한 기쁨에 두 손을 활짝 펼치고 있다. 이영희(막달레나, 76번)와 이정희(바르바라, 73번)의 고모이며, 허계임(막달레나, 74번)의 시누이다. 스무 살에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같은 동리의 한 여교우로부터 聖敎會를 알고 입교하였다.</p> <p>이매임(데레사)를 포함한 여섯명의 여교우들이 포청에 지수하자 “너희들은 천주교 도리가 옳은 것이라고 믿느냐?” “물론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배교하고 천주교 책을 바쳐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교를 못하겠습니다.”</p> |
| 78 |  | <p>禹述任(데레사, 1803~1846. 9. 20), 44세, 과부, 서울 포청옥, p.260.</p> <p>聖人은 남편을 여의고 서울로 올라와 여러 교우 집을 다니며 하인노릇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기도에 전념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뜻으로 친한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우술임(데레사)는 덕행이 뛰어나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그녀는 늘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만 순교할 기회를 놓친 것뿐이다.”라고 하였는데, 하느님 섭리로 그 기회를 다시 얻게 되도록 기도하였다.</p> |
| 79 |  | <p>金阿只(아가타, 1787~1839. 5. 24), 66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32.</p> <p>聖人은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미신을 몹시 섬기던 어느 외교인에게 출가하여 오랫동안 미신을 숭상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친정 언니가 신자여서 제사의 무익함과 우상숭배의 헛됨을 깨달았다. 聖人은 워낙 우둔하여 신앙생활은 지극하였지만, 끝 끝내 기도문은 외우지 못하였다.</p> <p>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이 “네가 천주교를 믿는다니 사실이나?”라고 묻자, 김아가(아가타)는 “저는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만약 너를 형벌하여 죽게까지 된다면 하여도 예수 마리아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녀는 혹독한 형벌을 당했으나, 대답은 한결 같으므로 포장은 김아가(아가타)를 형조 옥으로 이송하였다. 옥에서 신자들은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타가 왔군.”하고 말하며, 그녀의 굳은 믿음을 칭찬한 후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다.</p> |
| 80 |  | <p>高順伊(바르빌라, 1839. 12. 29), 여, 42세, 부인, 서울 서소문 밖, p.32</p> <p>聖人은 1801년 신유박해 때에 순교한 고광성(高光晟)의 딸로 서울에서 출생하여 지조가 굳고 지력이 뛰어났다. 부친이 피로써 증명한 신앙을 본받아 수덕생활에도 열심히 하였다. 18세에 교우 박종원(아우구스티노, 14번)과 결혼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꾸렸다. 회장인 남편의 자선사업을 도와주며, 자신도 냉담신자를 권면하며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자 환자들을 진심으로 간호하였다.</p> <p>이들 부부는 그 후 포청에서 서로 만나게 해 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통의 새로운 길을 깨끗하게 걸어가자고 서로 격려하였다.</p> |

| | | |
|----|---|--|
| 81 |  | <p>순(바르바라, 1805~1839. 5. 27), 35세, 과부, 서울, p.64.</p> <p>聖人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 천성이 순하다. 소녀는 부모를 통하여 聖敎會를 알고 있던 중, 13세 때에 서울의 어느 부자 신자집의 하녀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입교하였다. 이때부터 열심히 聖敎會를 믿으며 동정을 지키길 바라고 있었지만, 하루는 아버지가 찾아와 딸에게 “훌륭한 자리가 나서 나는 벌써 승낙을 했으니 너도 시집갈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마치 결혼 상대가 신자 청년인 것처럼 꾸며 결혼하기를 강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였다.</p> |
| 82 |  | <p>崔榮伊(바르바라, 1818~1840. 2. 1), 22세, 부인, 서울 당고개, p.245.</p> <p>聖人은 끝동과 웃고름을 붉은 색인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천상잔치에 초대되어 그 기쁨을 연주하듯 피리를 불고 있다. 아버지 최창흠(베드로, 50번)과 어머니 손소벽(막달레나, 56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려는 열의로 가득 찼고, 또 본성이 순량하고 충명하였다. 스물 살에 나이와 문벌에 상관하지 않고 마부이던 조신철(가롤로, 9번)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p> <p>그녀는 옥중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 “부모와 남편과 현경련(베네딕타, 58번)이 모두 순교하였으니 내 마음이 어찌 안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을 생각하면 스스로 위로를 받고 이 은혜를 천주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마음이 흔희작약(欣喜雀躍)합니다.”</p> |
| 83 |  | <p>洪今珠(베르베뚜아, 1894~1899. 9. 22), 36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151.</p> <p>聖人은 서울 사대문 밖 어느 교우 집안사람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소 교리는 알았으나 교리의 근본은 잘 모르고 있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게 되자 어린 자식 박(朴)호량을 데리고 여기저기 교우 집을 돌아다니며 의탁하여 생계를 이어가다가, 아들마저 잃게 된다.</p> <p>평소에도 순교의 마음을 갖고 “나는 붉은 옷을 입는 것이 소원이요”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 뜻을 물으며,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니까요”라고 답하여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나타내었다. 포졸들이 저희들 멋대로 특별한 옥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겨 대들보에 매달라놓고 능욕하였으나, 홍금주(베르베뚜아)는 태연자약하여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p> |
| 84 |  | <p>韓榮伊(막달레나, 1784~1839. 12. 29), 56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183.</p> <p>聖人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준 남편의 간절한 부탁이 생각났는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이 생각에 잠겨 있다. 외교인이자 가난한 시골 양반의 집에서 태어난 한영이(막달레나)는 장성한 후에는 권영좌의 후처로 들어가 권진이(아가타, 63번)의 어머니가 되었다. 남편은 당시 글씨로 유명한 학자였는데, 중년에야 천주교에 뜻을 두고 아내에게도 권하다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가족들에게 천주교인답게 살라는 간절한 부탁을 남겼는데, 한영이(막달레나)는 이 권고에 따라 신자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며 살았다.</p> |

| | | |
|----|---|--|
| 85 |  | <p>솔루치아(1769~1839. 9), 71세, 과부, 서울, p.159.</p> <p>聖인은 조바위를 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생각에 잠겨 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우의 본분을 방해하는 남편을 떠나 여러 교우 집으로 피해 다니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병자와 허약자를 돌보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자기의 열성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부인은 천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 구하기에 열중하여 여러 외교인을 입교시키기도 하였다.</p> <p>어떤 양반 외교인이 “지옥이 그렇게 좁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요?” 하고 물으니, 솔 루치아는 “당신의 작은 마음에 비록 만권의 서적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좁다고 생각하신 적은 한번도 없겠지요?”라고 반문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 양반은 대답할 말이 없어, “천주교인들은 무식한 사람도 모두 조리 있는 말을 한단 말이야” 하며 크게 감탄했다.</p> |
| 86 |  | <p>李仁德(마리아, 1818~1840. 1. 31), 22세, 동정녀, 서울 당고개, p.231.</p> <p>聖인은 활짝 웃음 띤 얼굴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영덕(막달레나, 87번)의 동생이다. 어머니 조 바르바라에게 천주교 신앙을 배워 입교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그녀의 부친이 너무나 완고하고 또 천주교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여행을 간 사이에 세례를 받았다. 언니 이영덕(막달레나)가 순교한 지 1개월 후에 참수되어, 언니와 함께 동정과 순교의 두 가지 영광을 얻고 천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p> |
| 87 |  | <p>李榮德(막달레나, 1812~1839. 12. 29), 28세, 동정녀, 서울 서소문 밖, p.199.</p> <p>聖인은 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받쳐 입었다. 외교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고, 1840년 1월에 순교한 이인덕(마리아, 86번)의 언니이며, 어머니는 조증이(바르바라, 93번)이다. 어려서부터 막달레나는 어른처럼 점잖고 성품이 매우 온화하였으며, 외할머니가 열심한 교우였으므로 천주교의 진리를 쉽게 배워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였다. 이영덕(막달레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정을 지키며 살았는데 포도청에 붙잡혀 온 이 막달레나는 주리를 틀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시달렸으며 옥중의 모든 고초를 당하였다.</p> |
| 88 |  | <p>鄭鐵鸞(카타리나, 1817~1846. 9. 20), 30세, 하녀(부인), 서울 포청옥, p.272.</p> <p>聖인은 얇은머리에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받쳐 입고 있다. ‘턱이’라고도 불렸다. 그녀의 성격은 매우 온순하고, 마음은 매우 용감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p> <p>정철염(카타리나)이 스무 살 되던 해 동짓날 집주인이 미신행위의 참여를 강요하자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노하여 정철염(카타리나)의 두 팔을 뒤로 결박하고, 몸에는 큰 맷돌을 매달아 장작더미에 얹어두도록 하였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주인은 끌어내어 혹독한 매질을 하여, 45주일 뒤에서야 몸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또 이듬해 춘분 제삿날이 오자 다시 미신행위에 참여하라는 주인의 명을 어겨 전보다 더욱 심한 곤욕을 치렀다. 그 후 1845년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덕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p> |

| | | |
|----|---|--|
| 89 |  | <p>朴阿只(안나, 1783~1839. 5. 24), 57세, 부인, 서울 서소문 밖, p.34.</p> <p>聖人은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있다. 천성적으로 기억력이 둔하여 교리문답과 기도문 배우기가 매우 힘들어서 “나는 천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껏 사랑하기로 힘을 쓰겠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남편과 장남이 함께 체포되어 포청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곧 배교하여 풀려났다. 그러나 박아기(안나)는 믿음이 견고하여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고, 굳은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다.</p> <p>여러 벗들의 나약함을 책하며 “아니, 며칠 더 살아 보려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위험을 무릅쓴단 말이오? 나보고 배교하라고 원하기는커녕 끝까지 항구하라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소? 당신들이야말로 어서 천주께 회두하시오, 그리고 내 행복을 부러워하시오.”</p> |
| 90 |  | <p>韓阿只(바르바라, 1792~1839. 5. 24), 48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10.</p> <p>聖人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듯 두 손을 내리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다. 부모의 교훈과 모범을 무시하고 신앙 없이 지내다가 어느 외교인과 결혼하였다. 친정에 다니러 왔다가 문간에서 김 막달레나를 만나 주님께 회두하기를 열렬히 권고하자, 곧 회개하여 그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덕을 닦으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30세가 되었을 때 남편과 자녀들을 여의고 친정어머니에게로 돌아와 더욱 열심히 수계하면서, 영혼을 구하려는 열정이 불타올라 외교인들에게 천주교를 전하고 죽어가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자주 단식을 하며 극기를 많이 행하였다.</p> |
| 91 |  | <p>趙 막달레나(1807~1839. 9), 33세, 동정녀, 서울, p.165.</p> <p>聖人은 창색 끝동과 붉은 옷고름이 달린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받쳐 입고 있다. 聖人の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고 있는 분은 어머니 이 카타리나(92번)이다. 대세를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천주교를 금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외가에서 생활하였다. 외조모가 열심히 하여 모녀도 편안히 본분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 그녀의 나이 18세가 되자 어머니가 딸을 교우에게 출가시키려 하였고, 막달레나는 비로소 어머니에게 동정을 지킬 결심을 말하였다. 외교인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 어떤 교우 집의 하녀로 일하다가 서른 살이 지나 혼담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효성과 열성으로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다.</p> |
| 92 |  | <p>李 가트리나(1783~1839. 9), 57세, 과부, 서울, p.162.</p> <p>聖人은 왼쪽의 만딸 조 막달레나(91번)을 바라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주님께 봉헌된 아름다운 동정녀의 삶을 산 딸이 자랑스러운 표정이다. 聖人은 열네 살 때 외교인 조씨에게 시집가서 교리를 더 배울 기회도 없었고, 더욱이 계명을 잘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마음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었다. 그 결과 남편을 권면하여 대세를 주어 선종하게 하였다. 그리고 삼남매를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키웠다.</p> <p>남편이 죽은 후 시댁 식구들은 천주교 믿는 것을 매우 반대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와 살았다.</p> |

| | | |
|----|---|--|
| 93 |  | <p>趙曾伊(바르바라, 1782~1839. 12. 29), 58세, 부인, 서울 서소문 밖, p.179.</p> <p>聖人은 명문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16세에 남이관(세바스티아노, 19번)에게 출가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순교하고 남편은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시골 친정으로 돌아가 남동생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살면서도, 친척인 정하상(바오로, 1번)이 북경으로 선교사를 모시러 가는 계획을 돕고 그 여비를 보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였다.</p> <p>하루는 포장이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의 敎를 배반하고 교우들을 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것이니 잘 생각하여 보아라.”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녀는 “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차라리 만 번 죽을지언정 죄를 하나라도 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절대로 배교할 수 없다는 결심을 나타내었다.</p> |
| 94 |  | <p>李召史(아가다, 1784~1839. 5. 24), 56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35.</p> <p>聖人은 흰 미사보를 쓰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영(베드로, 43번)의 누님이다.</p> <p>경기도 이천의 구월에서 태어났고, 17세의 나이로 어느 외교인에게 출가하여 3년을 살다가 남편과 사별했다. 현석문(가롤로)의 『기해일기』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얼마 안되는 가산마저 다 쓰고, 늙은 시어머니와 어린 시동생과 함께 근근이 살았는데, 그때에 그녀가 당한 고난은 필설로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곤궁 중에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화평한 기색과 기쁜 웃음이 떠나지 아니 하였으니, 그녀의 착하고 아름다운 언행을 모두 기록하기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p> <p>관관 앞에 불러나간 이소사(아가타)는 모진 매를 맞고 주리를 틀리었으나, 조금도 겁내는 빛을 보이지 않았고 또한 그녀의 용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p> |
| 95 |  | <p>술로사(1784~1839. 7. 20), 56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p> <p>聖人은 서울의 어느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聖敎를 모르고 자랐고 결혼까지 하였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그 후 그녀는 교우 친척과 함께 살게 되어, 자연히 교리와 수계생활이 남달랐다. 그 후 조선에 신부가 입국 하였으므로 자주 성사를 받았으므로 그녀의 신심은 날로 깊어갔다.</p> <p>포장이 배교를 강요하자, “우리가 공경하는 천주는 神人萬物의 대주이시며, 인간의 선악을 상벌하시어 선한자를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시니, 천주십계를 지키면 천당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요, 이를 어기면 지옥의 영원한 괴로움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님을 배반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없습니다. 이 이상 더 강권하여도 쓸데없으며, 저는 피를 흘려 이 진리를 증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 하여 교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결심을 나타낼 뿐이었다.</p> |
| 96 |  | <p>金長畚(안나, 1789~1839. 7. 20), 51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81.</p> <p>聖人은 서울 출신이며 교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중년에 이르러 과부가 된 후로는 늙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하였다. 신부가 조선에 입국했을 때 모친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종부 성사를 받고 선종하였다. 김장금(안나)가 살던 집은 이광렬(요한, 31번)과 이웃하여 있었는데 화목하기가 한 집안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p> |

| | | |
|-----|---|---|
| 97 |  | <p>朴鳳孫(막달레나, 1797~1839. 9. 30), 44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148.</p> <p>聖人은 청색 저고리를 입고 있다. 서울의 어느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15세 되던 해에 시골로 시집간 후 딸 둘을 낳고는 과부가 되었다. 시부모마치 여의게 되어 서울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김 체칠리아라는 여교우가 새어머니가 되어, 박봉손은 새어머니의 권고와 가르침을 받아 1834년경에 입교하고 수계생활을 시작하였다.</p> <p>포장은 배교하고 동료들이 있는 곳을 데리고 위협하자,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집안사람들은 나 모르게 도망하였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며, 책은 가진 것이 없고 교우들의 일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p> |
| 98 |  | <p>白 브르트리에르 유스토(1839~1866. 3. 7) 사제, 28세, 서울 새남터, p.284.</p> <p>聖人은 왼쪽의 장 시메온 주교와 함께 서 있다. 검은 수단에 붉은 영대를 어깨에 메고 두 손은 꼭 쥐고 있다. 1859년에 파리 성 실피스(Sulpice) 신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861년 7월 25일 파리 외방전교회의 신학교로 편입하였다. 그는 1864년 5월 21일 성 품성사를 받았고, 첫 미사를 지낼 때에 순교의 특음을 기도하였다고 한다. 1864년 장상이 조선 선교를 명하자 그는 “이 나라가 바로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다.”라고 말하였다.</p> <p>그는 불리외(Beaulieu, 徐浚禮) 신부, 위앵(Huin, 閔) 신부, 도리(Dorie, 金) 신부 등과 함께 본국을 떠나 홍콩에 도착하였다. 조선 입국을 위해 상해, 요동 등을 거쳐 많은 고난을 겪은 끝에 충청도 내포 지방에 상륙하여 마침내 1865년 5월 27일 조선 땅을 밟았다. 그러나 1866년 3월 7일 27세의 나이로 새남터에서 군무효수로 순교하였다. 그의 못다 한 선교사의 역할과 사명을 그가 흘린 순교의 피로써 다하였고, 그 피는 바로 이 땅의 신앙의 씨앗이 되었다.</p> |
| 99 |  | <p>張 베르뇌 시메온(1814~1866. 3. 7) 주교, 52세, 서울 새남터</p> <p>聖人은 붉은 수단에 황금색 영대를 어깨에 메고 있다. 장 베르뇌 시메온(Simeon Francois Berneux, 張敬一) 주교는 1814년 5월 14일 프랑스 망(Mans) 교구의 샤토 뒤 르와르(Chateau-du-Loir)에서 평범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대장간 일을 하던 부친의 신앙보다, 모친의 깊은 신앙으로 모든 사랑을 쏟아 아들을 가르쳤다. 어릴 때 부터 총명했고 또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당 신부가 학교에 보내 공부하던 중, 1831년에 망 교구의 대신학교에 입학하여 1837년 5월 30일 사제로 서품되었다. 1854년 8월 5일 교황 비오 9세(Pius IX)는 그를 조선 교구 제3대 교구장인 페레올(Ferreol, 高) 주교의 후임으로 제4대 조선 교구장에 임명함과 동시에 조선 입국을 허락하였다. 그는 두 신부와 함께 두 달 동안 숨어서 조선 입국을 준비하던 중, 교우 홍봉주의 안내로 상복을 입고 미투리를 신은 후 중국을 출발하여 4일 만에 서울에 당도하였다. 1866년 3월 7일 새남터에서 군무효수로 순교하였다.</p> |
| 100 |  | <p>金業伊(막달레나, 1774~1839. 5. 24), 53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41.</p> <p>聖人은 하얀 미사보를 쓰고 밝은 얼굴로 김성임(마르타, 101번)을 보고 있다. 김업이(막달레나)는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나이가 들어서서 동정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부모들의 강압에 못 이겨 어느 교우에게 출가하였다. 중년에 이르러 남편과 자녀를 잃고, 서울 근교 애고개로 이사하여 땅전을 만들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살았다. 시어머니의 성격이 괴팍하고 또 질시와 냉대를 받았지만, 그녀는 주님을 생각하며 희생과 극기로써 이를 이겨냈다.</p> |

| | | |
|-----|---|--|
| 101 |  | <p>金成任(마르타, 1787~1839. 7. 20), 53세, 과부, 서울 서소문 밖, p.73.</p> <p>聖인의 흰 치마저고리를 입은 모습에서 수덕생활을 열심히 이룸다움을 느낄 수 있다.</p> <p>부평 어느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김성임(마르타)는 아직 외교인이었을 때, 가정불화로 본 남편과 헤어져 서울에서 숨어 살다가 집쟁이 장남에게 재가하였다. 그때에 그녀가 천주교를 알게 되어 계명을 지키며 살다가 남편이 죽은 뒤에는 살아나갈 방도가 막연하여 신자 집에 더부살이를 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신자들로부터 도움만 받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신자들의 일도 거들어 주었다.</p> <p>포졸들에게 목주를 꺼내 보이면서, 천주교신자임을 밝히고 체포되었다.</p> |
| 102 |  | <p>元貴任(마리아, 1818~1839. 7. 20), 22세, 동정녀, 서울 서소문 밖, p.94.</p> <p>聖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그러나 아홉 살 때부터는 서울에 사는 고모인 원 루치아 집에 기거하면서 교리를 배웠다. 마리아는 천성이 순하고 선량하여 고모의 자랑거리였으며, 16세 때에 동정녀원을 하고 머리를 없애 시집간 여자 행세를 하였으며, 언제나 나이보다 젊음은 모범과 한결같은 마음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p> <p>포장은 배교하라고 강요하자, “저는 분명히 천주교인으로서 천주를 공경하고 제 영혼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결심은 단단하며 죽어야만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배교하면 영혼을 잃게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p> |
| 103 |  | <p>金 루치아(1818~1839. 7. 20), 22세, 동정녀, 서울 서소문 밖, p.90.</p> <p>聖인은 한강 근처에 살던 어느 양반 집에서 태어났다. 원래 교우였으므로 교리를 익혔고 수계생활도 하였는데, 재주와 용모가 뛰어났다고 한다. 외교인이었던 부친이 돌아가신 후 聖敎會를 가르치신 어머니마저 잃고 나자, 얼마 안되는 가산을 팔아 장례를 치르고, 함께 자수하고 순교한 이매임(테레사, 77번)의 집에 모두 6명의 여인들이 머물면서 덕을 쌓았다고 한다. 여기서 김 루치아는 동정할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p> <p>형조에서 김 루치아는 “저희들의 종교는 하도 아름답고 참된 것이어서 상감마마와 대신들이 연구하려 하신다면 기꺼이 믿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천주교의 도리를 밝히었으니, 형관도 그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할 정도였다.</p> |

A Study on Aboriginality Processing of Korean Catholic Art

– Case Study of Martyrdom Picture –

Bae, Sun-Young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Byung-Mo)

(Abstract)

Martyrdom picture expresses the times in the artists' religion reflecting their phases of the times, with compromising the work tide appeared which in had been changed from earlier studies of the period into the meaning of Icon.

This study tries to trace the historical course of Catholicism pictures within ecclesiastical history during 220 years more from being brought Christianity into this world up to being brought it up. And narrowing the scope more, this tries to investigate the iconological change with classifying Martyrdom pictures made with the subject of the martyrs by the time centering on the aboriginality.

In this purpose, the meaning of the sacred icon of general concept of Catholicism picture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sacred icon into Korea are to be investigated, the import of Catholicism and the role of the sacred icon, and the aboriginality of the Icon Art in the ceremony according to the Vatican Council spirit are explained, in the chapter II.

In chapter III, the beatification of 103 positions of honor great religious teachers

and the good sense of the beatification in Korean Catholic Church on the ecclesiastical history documentary records, and the works will be investigated with being divided by the time.

In the chapter IV, the aboriginality course of the Korean Martyrdom pictures was defined with being classified as from the Joseon Church set up to the position 79 beatification at the first period from 1784 to July 5, 1925, to the 24 beatification since the position 79 beatification at the second from 1926 to October 6, 1968, and the third period, to the 24 beatification since the position 79 beatification at the second from 1926 to October 6, 1968.

In conclusion, the aboriginality trends showed in Martyrdom pictures in three periods are as the following. The first, the character shows the Western Europe style of the Renaissance Icon and Korean style Icon were intermingled.

The Palm tree bough, the sword, the vindicating sanction tools and the punishment sites, etc. are appeared as the symbolic icon which can be showed extremely much in the sacred images of martyrs of the early Christianity.

The second, with following the symbolic icon of the early martyrs conscientiously, expressing the Korean appearance martyrs dressed traditional native costume putting painting Korean landscape behind evokes the sympathy on national heartstrings.

The third, the main figure of Korean in the Martyrdom pictures were expressed for the national identity and independence.

Integrating all above things, the religious artist must be the believer with creative soul. Since the work came to be brewed from being gave one's experience confession faith vent to, it must complete the suggesting role the religious direction leading to the sacred ground invisible through the Art works visible to the eyes.

The Catholic artists would be sure on the presence of themselves when they are the artistic instruments able to bring the social reality up with the aboriginal moulding language.

The aboriginality is developed when artists express naturally through feeling in Korean spirit as the Korean on the basis of their nation with feeling in their times. To keep developing a new tradition in which everyone can sympathy by generalizing our things handed down traditionally seems to be the aboriginality.